

2025 EAI 양극화 인식조사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개요

	2025 EAI 양극화 인식조사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93만여명)
표집 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표본 크기	1,514명
조사 방법	웹 조사
응답률	20.0%(7,583명에게 발송하여 1,514명 최종 응답)
조사 일시	2025. 1. 22. ~ 2025. 1. 23.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응답자 구성	[성별] 남성 49.4%; 여성 50.6% [연령] 18~29세: 15.5% 30~39세: 15.0% 40~49세: 17.4% 50~59세: 19.6% 60~69세: 17.7% 70세 이상: 14.8%

정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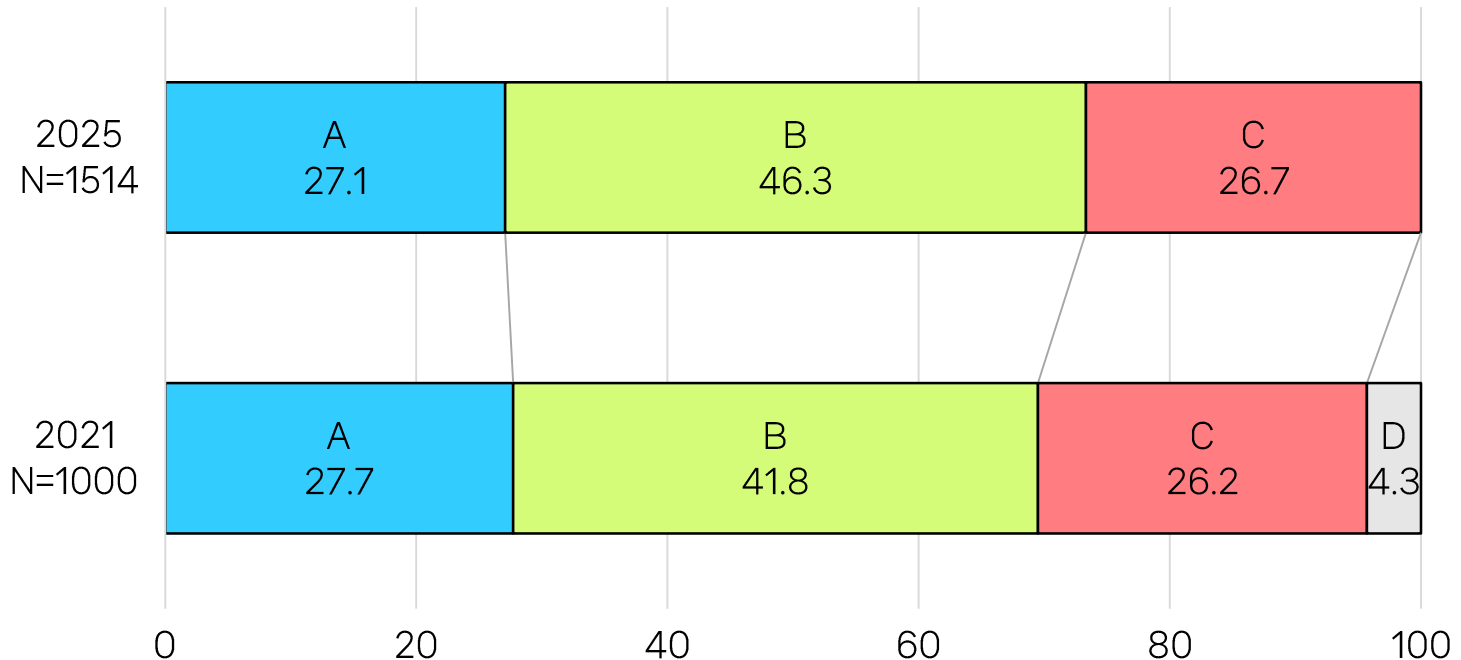
“정치 양극화, 이념 아닌 정서적·정파적 대립으로 심화”

- 전체응답자의 이념적 분포는 진보 27.1%·중도 46.3%·보수 27.7%로, 2021년(진보 27.7%·중도 41.8%·보수 26.2%)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는 상대 정당을 더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국민의힘 지지자에 비해 자신과 지지 정당 및 정치인 간의 이념적 거리를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자신과 지지 정당 및 정치인 간의 이념적 거리를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는 정당보다 정치 지도자(이재명, 윤석열)의 이념적 위치가 더 극단적이라고 평가했다.
- 전체 응답자의 주요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54.1%, 국민의힘 68.7%로, 4년 전보다 각각 10.4%p, 20.9%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상대 정당이 대한 비호감도는 각각 93.5%, 94.6%로 90%를 넘어섰다.
- 정치인 및 정당 호감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집단은 20대 여성으로, 100점 만점 기준 윤석열은 10점, 이재명은 44.9점을 기록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윤석열 22.6점, 이재명 24.9점으로, 두 정치인 모두에게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 호감도에서도 나타났는데, 20대 여성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15.1점, 더불어민주당은 52.7점인 반면, 20대 남성의 국민의힘(32.6점)과 더불어민주당(31.8점)에 대한 호감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한편, 정당 호감도가 50점 미만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킨다, 잘못하고 있음을 따지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더 높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억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억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3%와 60%로 더 높았다. 정치권으로부터 경쟁 당파의 퇴출을 원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양극화와 분열의 골이 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수 국민은 이러한 양극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 응답자의 57.8%가 1년 후 정치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완화될 것이다”(19.7%) 및 “변화 없을 것이다”(22.5%)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표 1] 자신의 정치적 이념 위치

문17. 다음의 정당, 정치인들 및 귀하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본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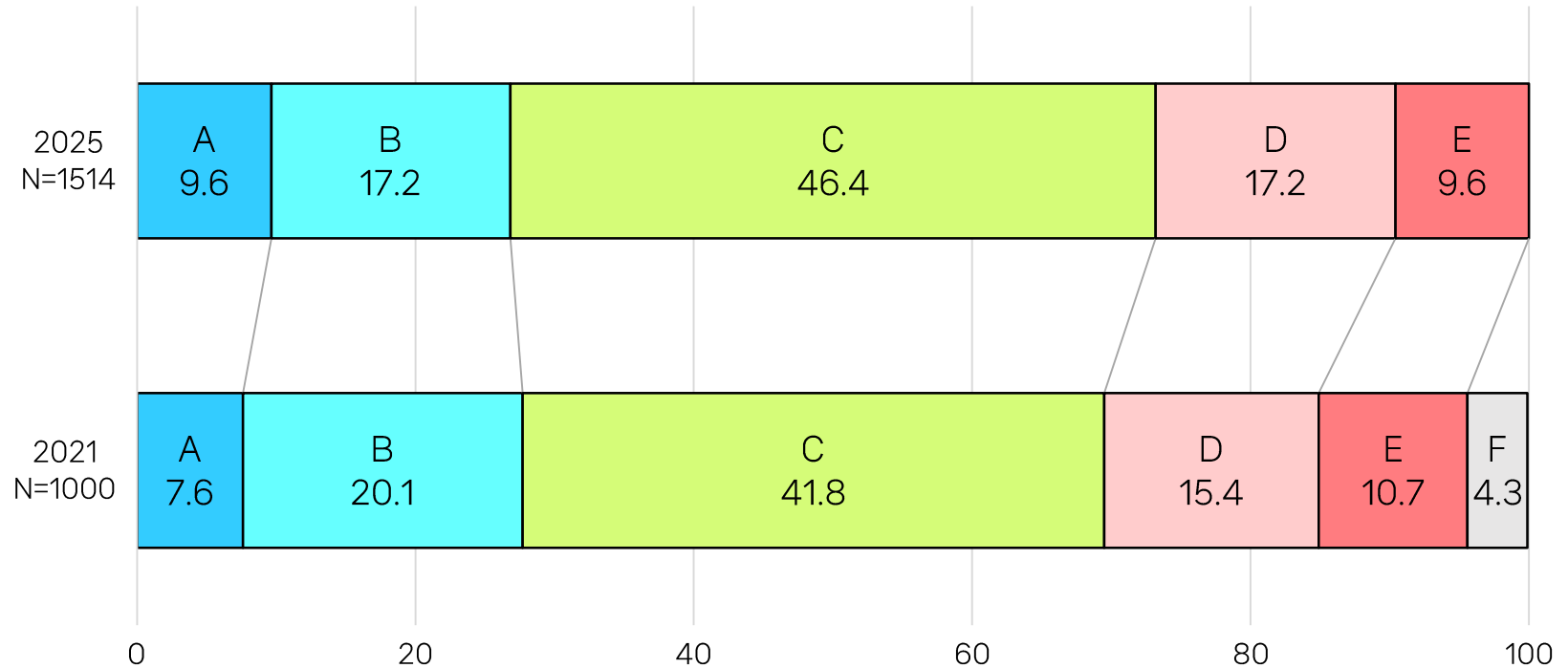


A	B	C	D
진보 (0~4)	중도 (5)	보수 (6~10)	모르겠다 (2021)

[표 2] 자신의 정치적 이념 위치

문17. 다음의 정당, 정치인들 및 귀하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본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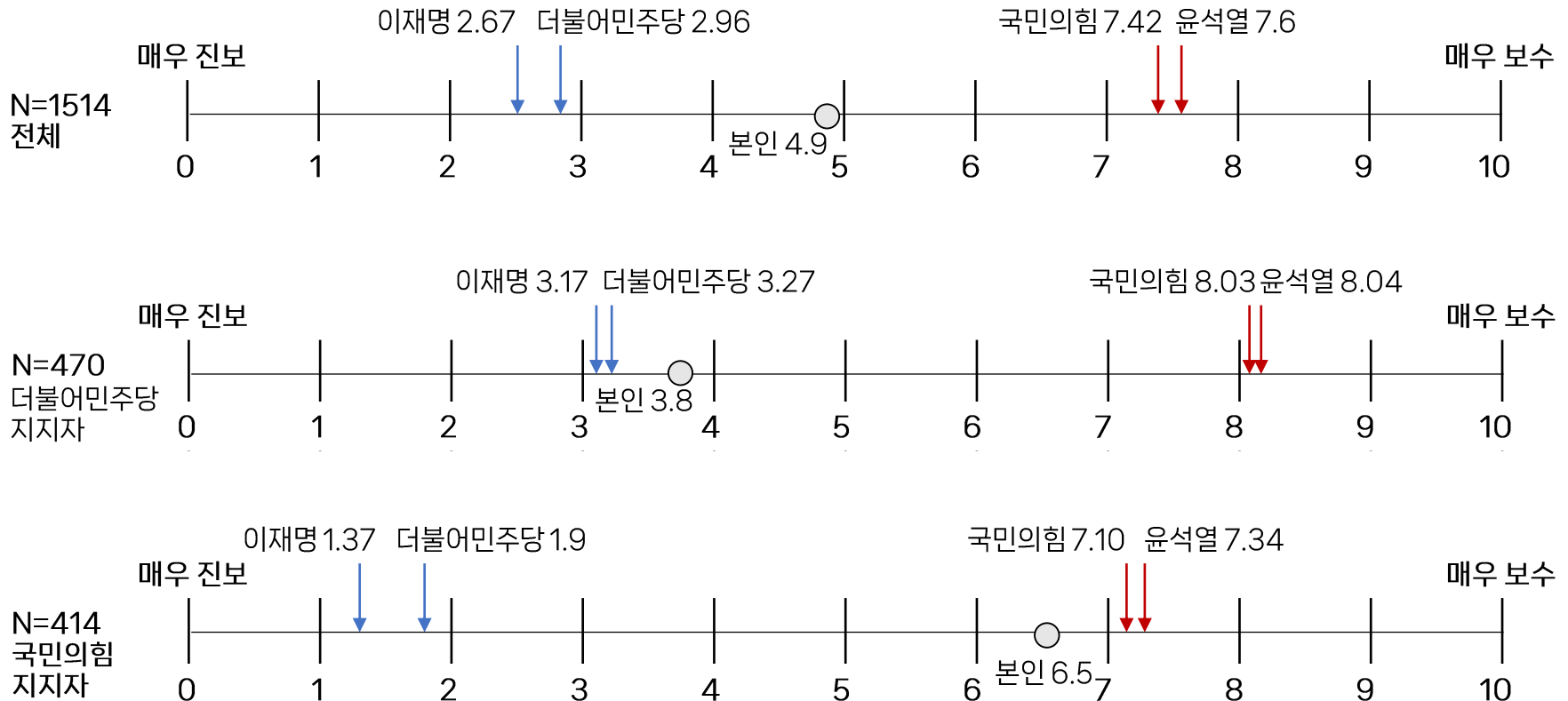


A	B	C	D	E	F
강성 진보 (0~2)	온건 진보 (3~4)	중도 (5)	온건 보수 (6~7)	강성 보수 (8~10)	모르겠다

[표 3] 정당 및 정치인의 이념 위치

문17. 다음의 정당, 정치인들 및 귀하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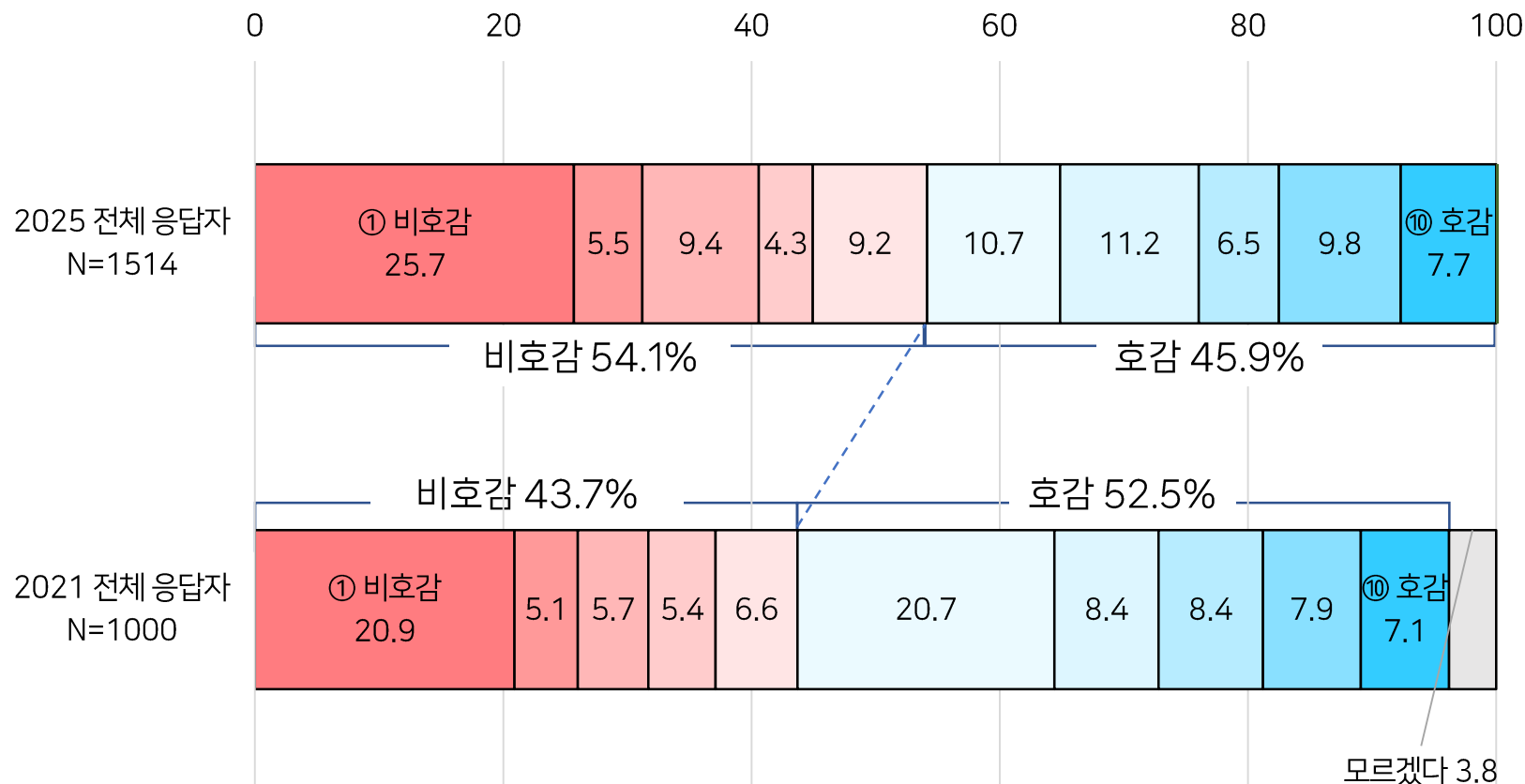


[표 4]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전체 응답자]

문23. 다음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선택해 주십시오.
(2021: “아래의 정당에 대한 호감 정도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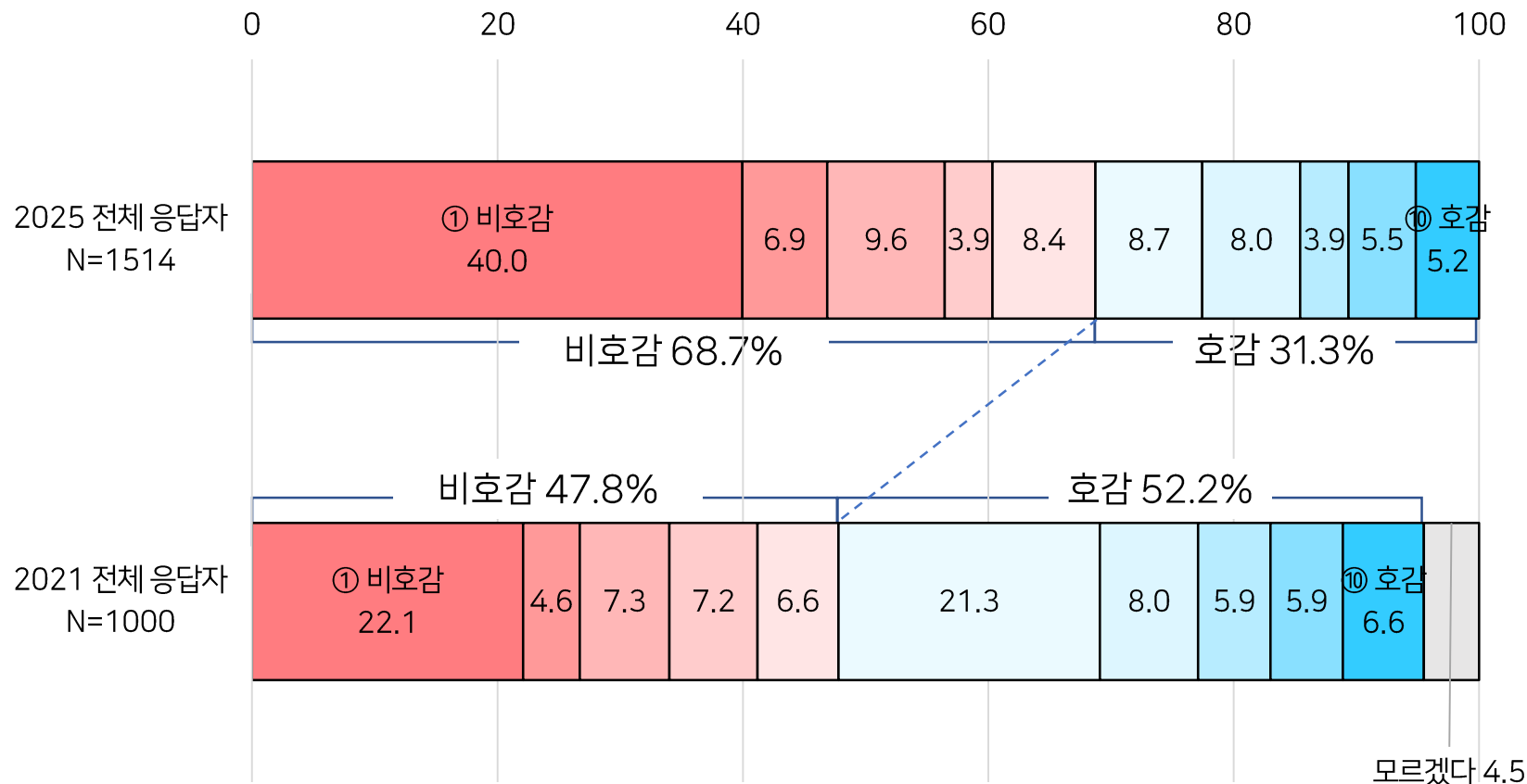


[표 5]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 [전체 응답자]

문23. 다음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선택해 주십시오.
(2021: “아래의 정당에 대한 호감 정도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

2.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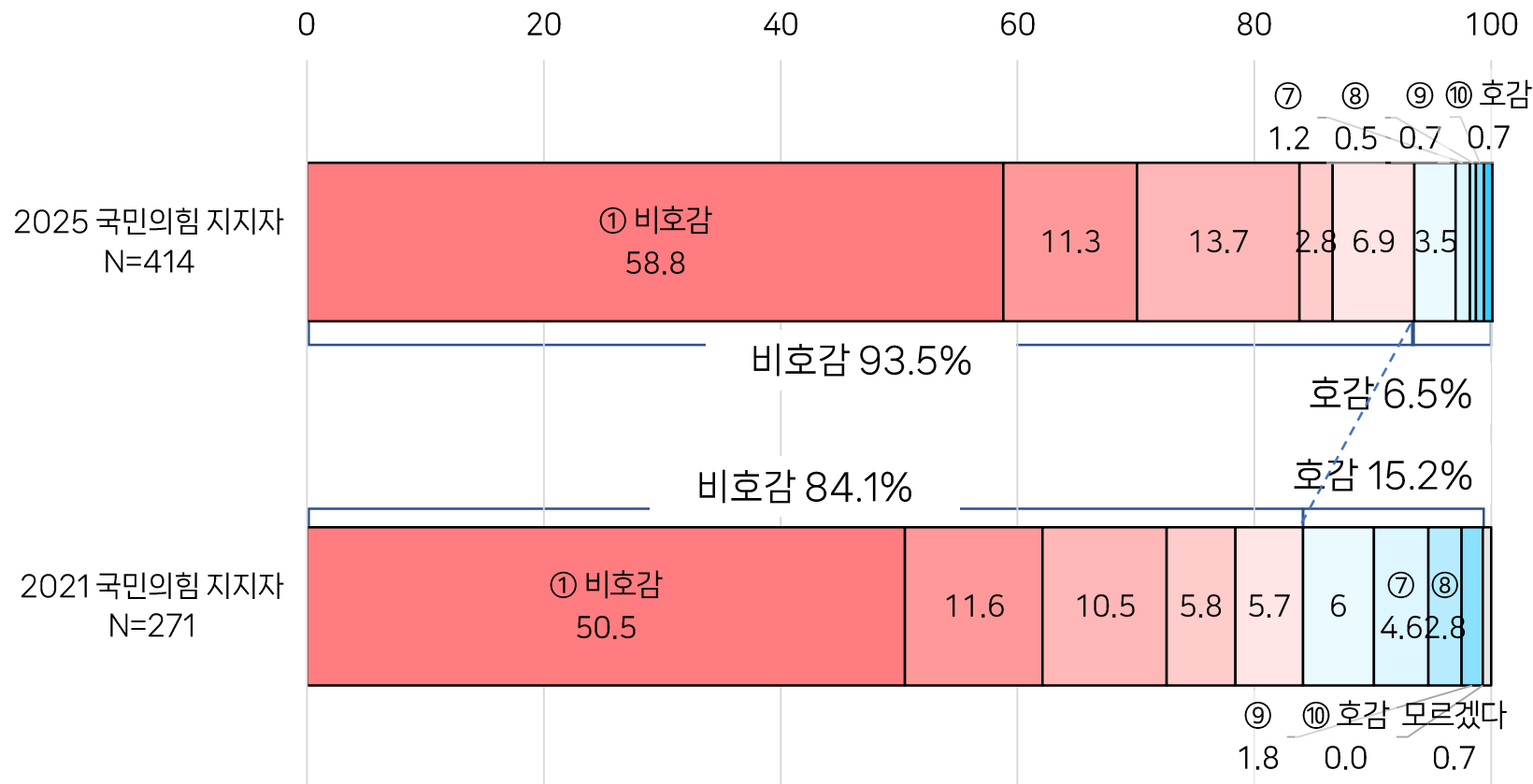


[표 6] 국민의힘 지지자의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문23. 다음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선택해 주십시오.
(2021: “아래의 정당에 대한 호감 정도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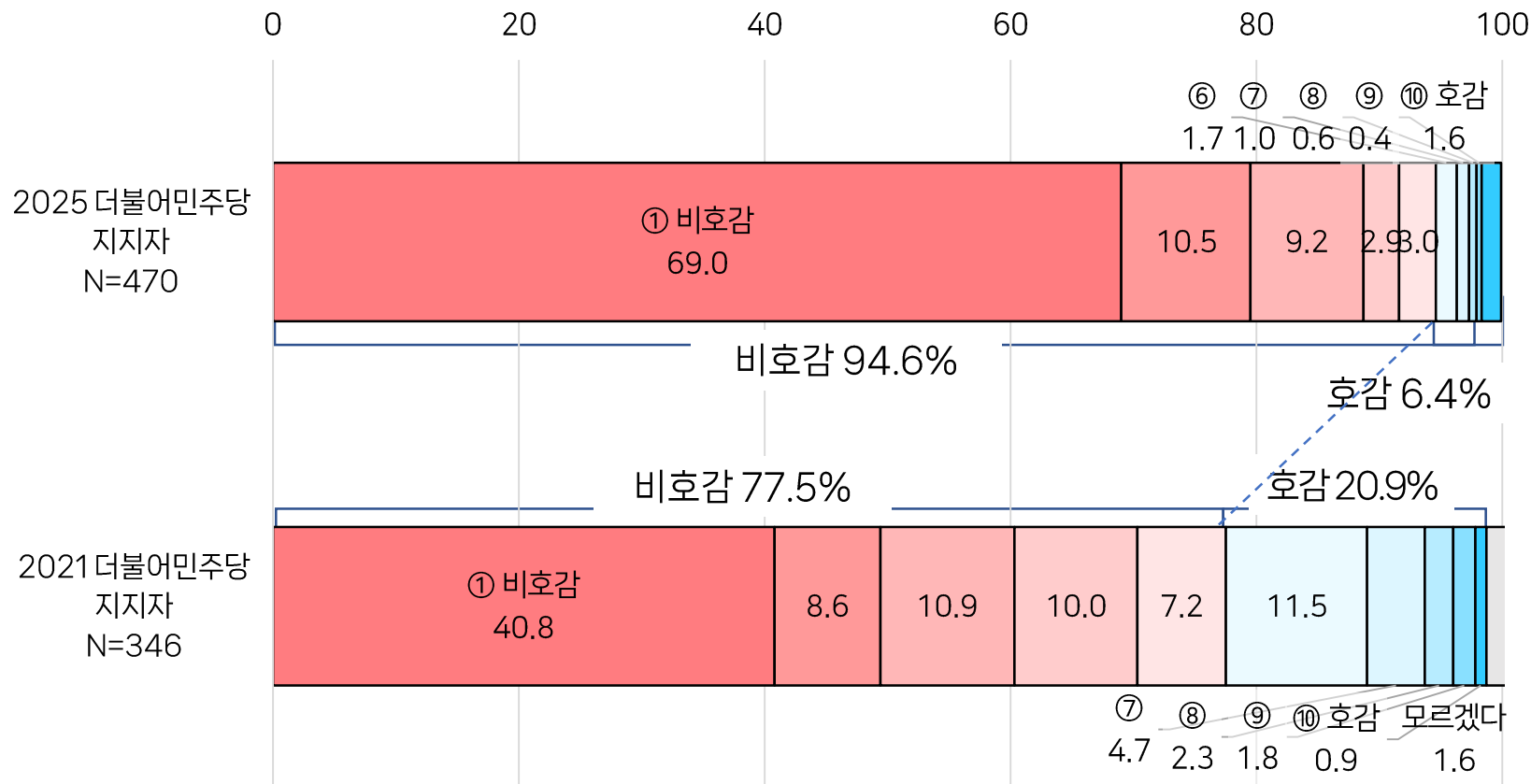


[표 7]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국민의힘 호감도

문23. 다음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선택해 주십시오.
(2021: “아래의 정당에 대한 호감 정도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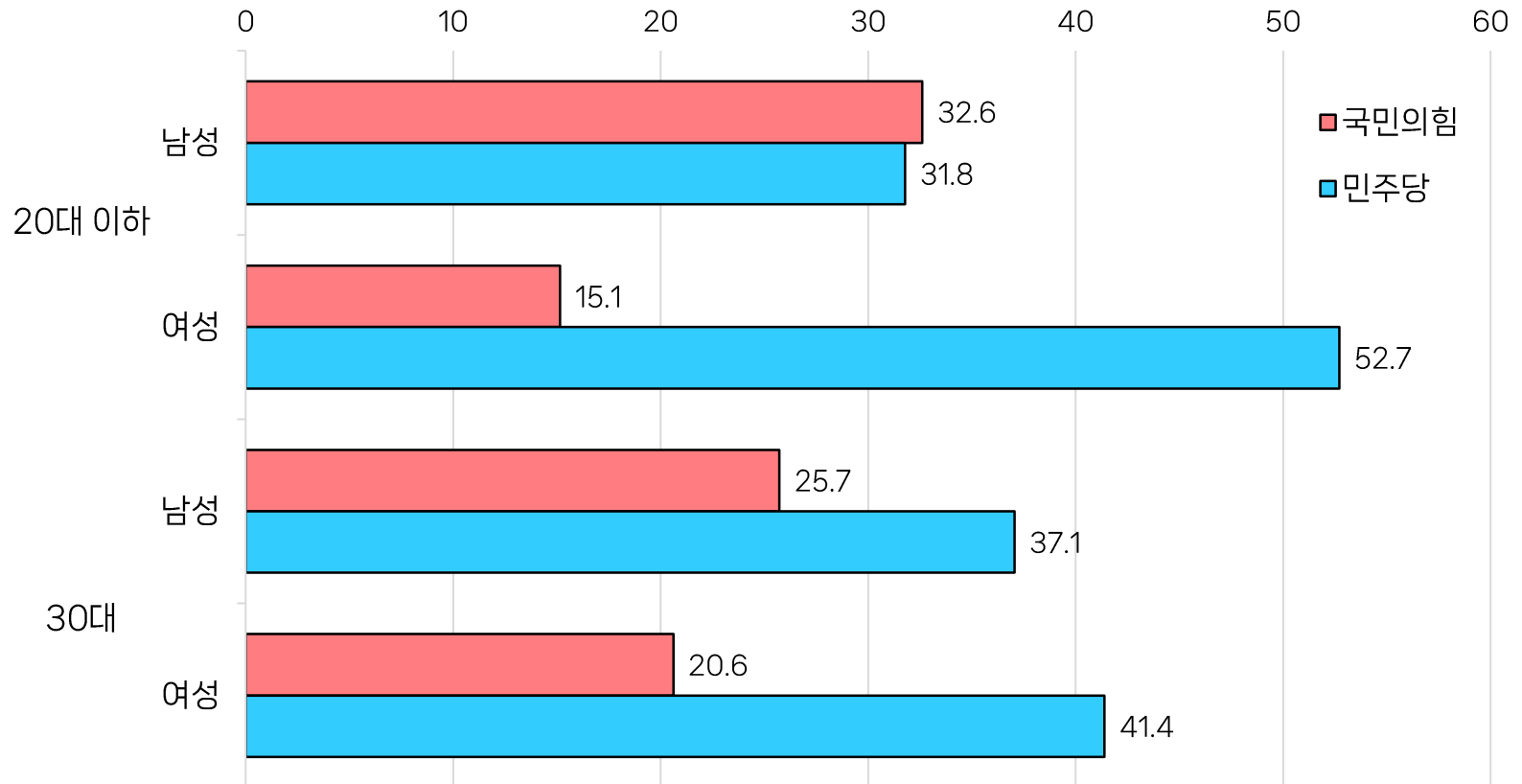
(%)

2. 국민의힘



[표 8] 정당 호감도 [2030 남녀]

문23. 다음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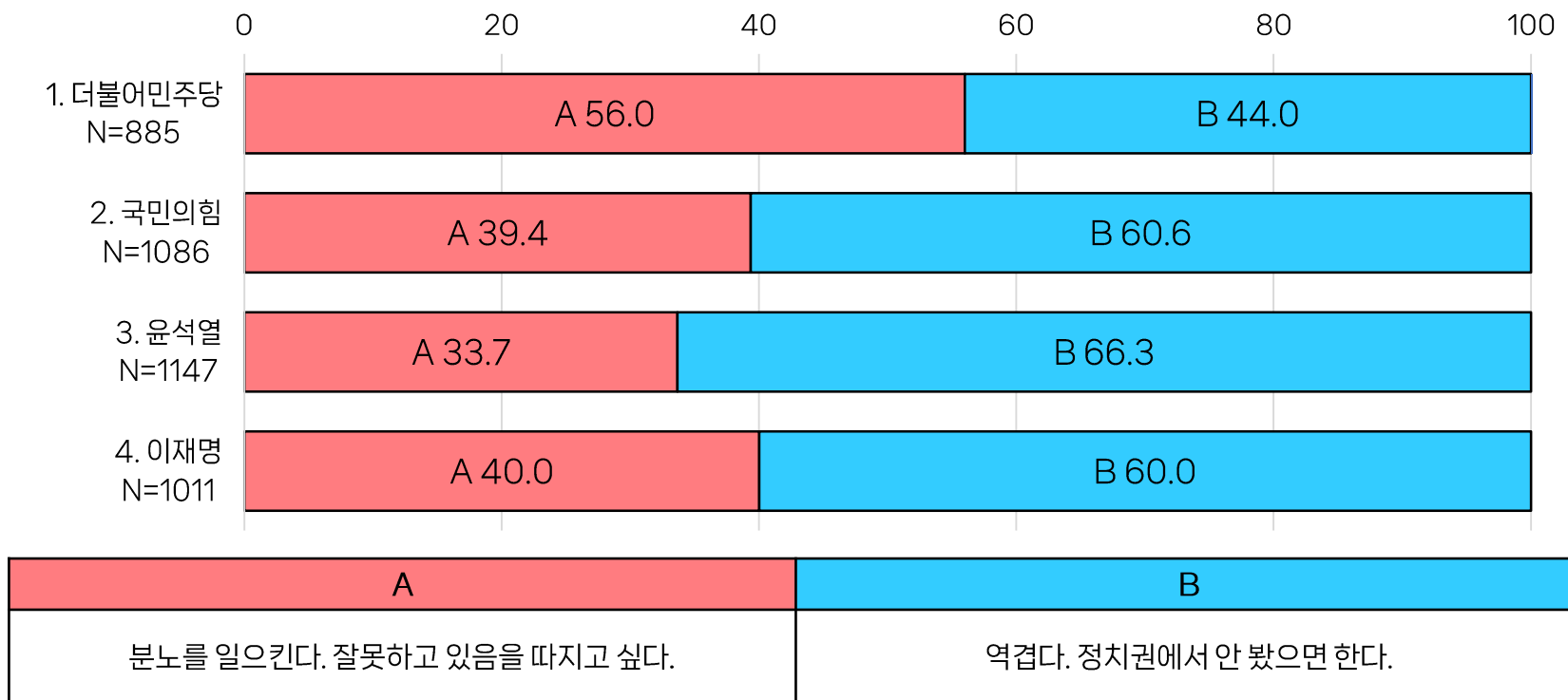


[표 9]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입장

문24. [문23에서 각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하여 50점 이하로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
귀하는 다음의 두 진술 중 어느 쪽이 귀하의 입장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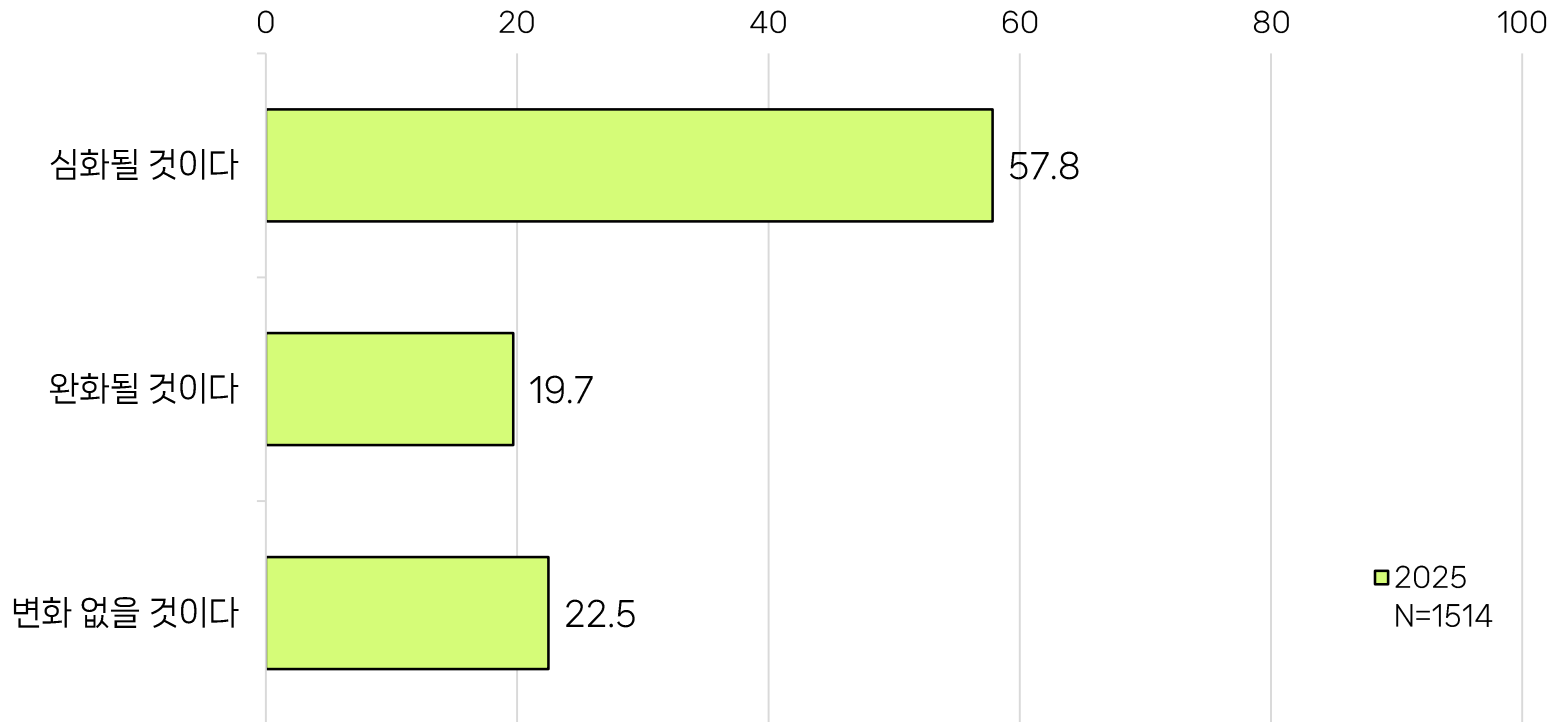
1. 분노를 일으킨다. 잘못하고 있음을 따지고 싶다.
2.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



[표10] 1년 후 정치권 갈등 전망

문28-3. 귀하는 지금과 비교할 때 1년 후 우리나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완화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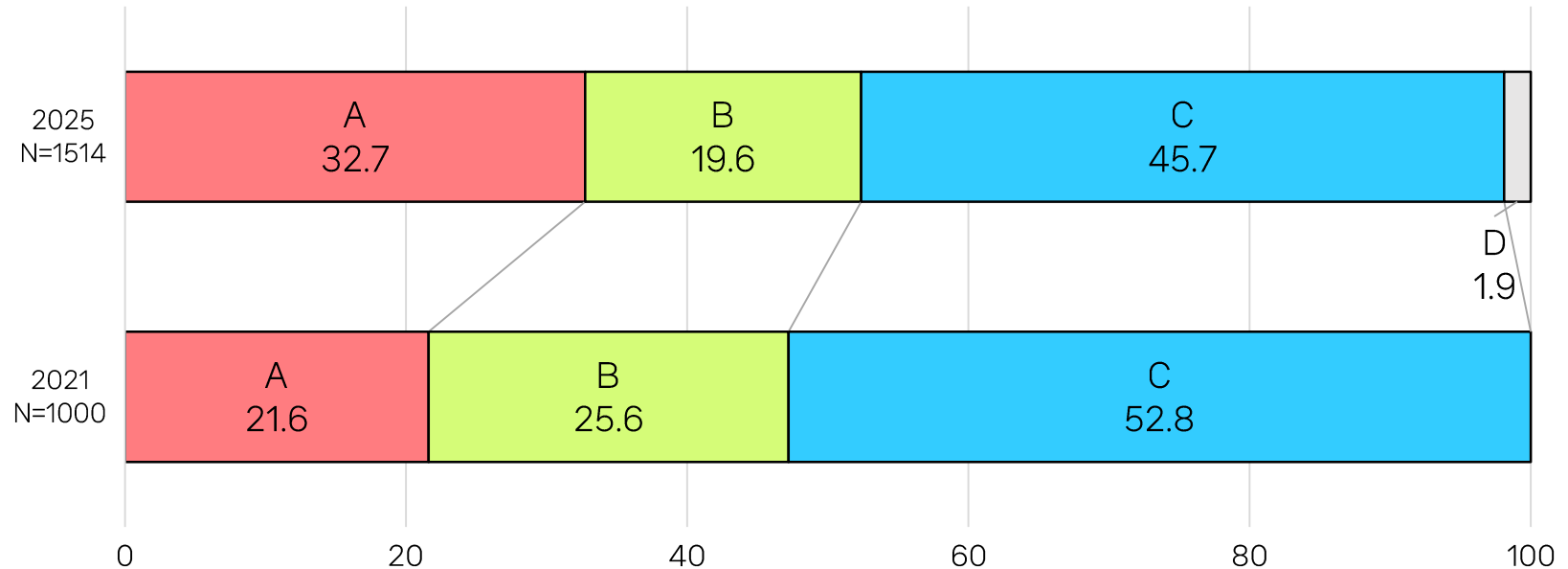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도 약화”

- 한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5.8%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 한국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한 비율 역시 46.7%에 그쳤으며,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로 2021년(21.6%)보다 증가했다.
-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의 지지 정당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6%가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 보다 항상 낫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61.4%에 그쳤고, 31.6%는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답했다. 또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 없다”는 응답은 무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18.6%)을 기록했다.
-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는 명제에 대해 남성의 71.9%, 여성의 77.9%가 동의했으며, 여성의 민주주의 신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20~30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민주주의가 항상 낫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남성 62.6%, 30대 남성 64.2%에 그친 반면, 20대 여성은 80.9%, 30대 여성은 86.5%로 집계되어 큰 격차를 보였다.

[표 11]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평가

문30. 귀하는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
(2021: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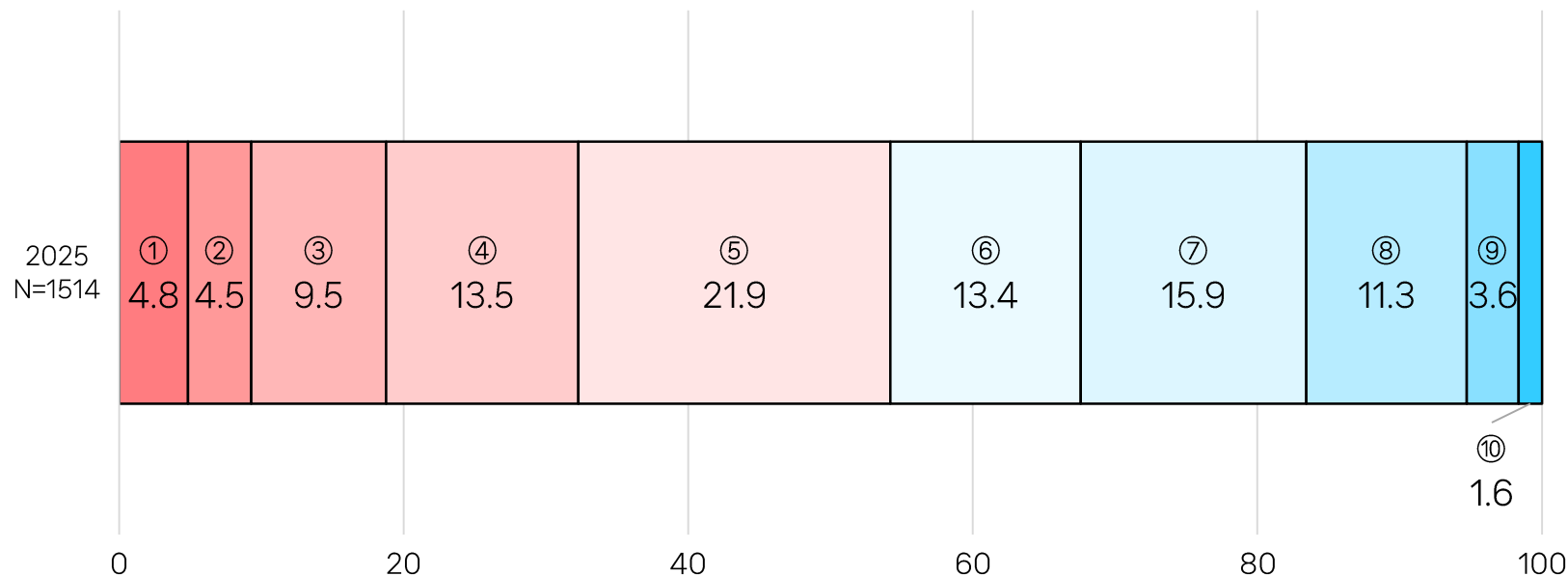


A	B	C	D
민주주의적이지 않다(0~4)	중간(5)	민주주의적이다(6~10)	모름/무응답(2025)

[표 12] 한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도

문31. 귀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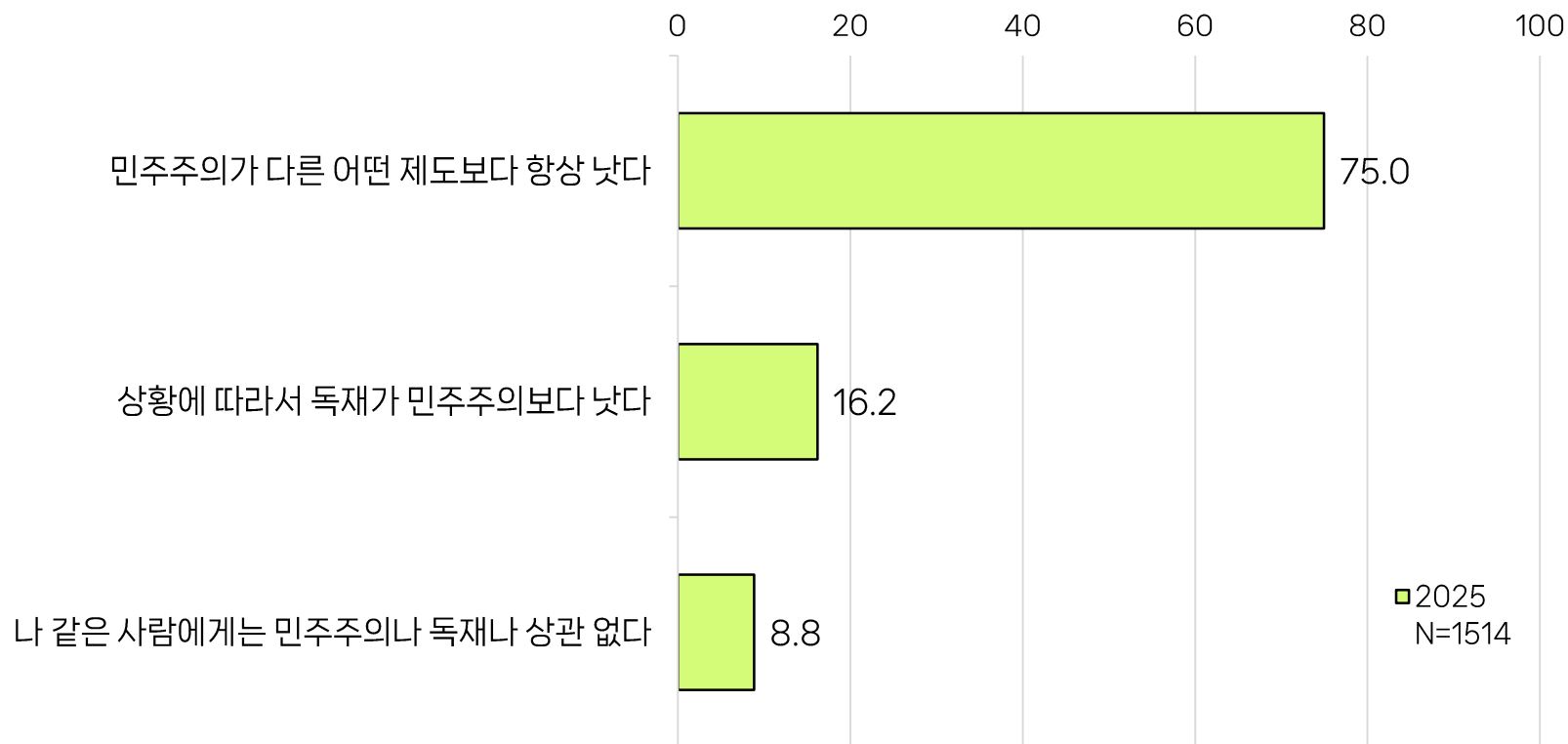


불만족(1~5)	만족(6~10)
54.2%	45.8%

[표 13]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의견

문29. 다음 중 어떤 의견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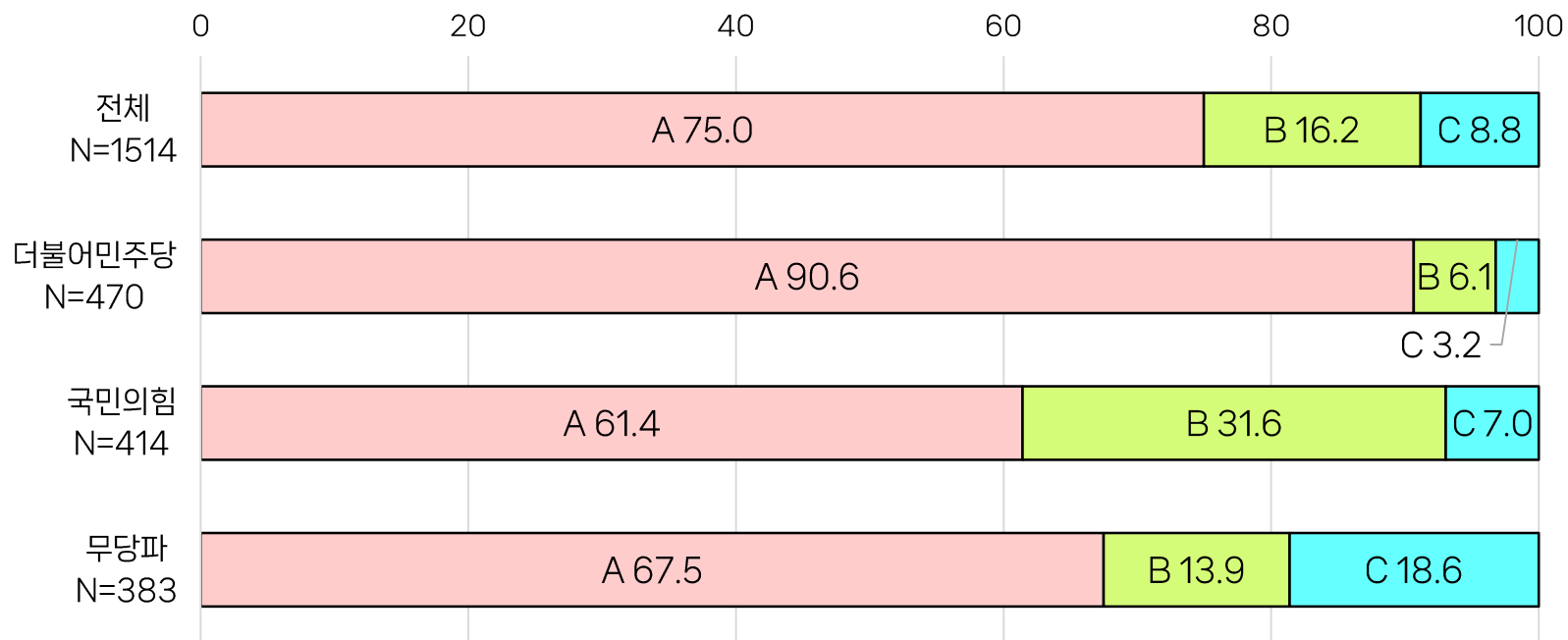
(%)



[표 14]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의견 [지지정당별]

문29. 다음 중 어떤 의견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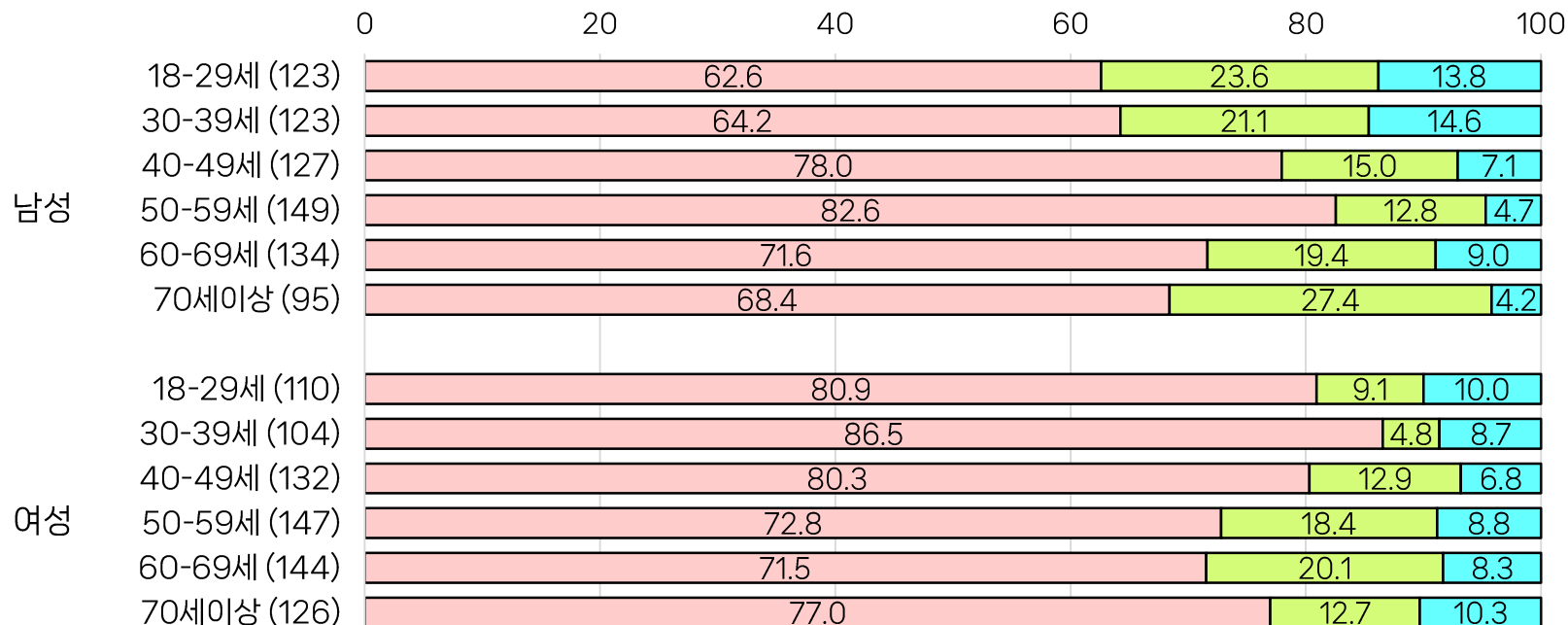


A	B	C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 없다

[표 15]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의견 [성별·연령별]

문29. 다음 중 어떤 의견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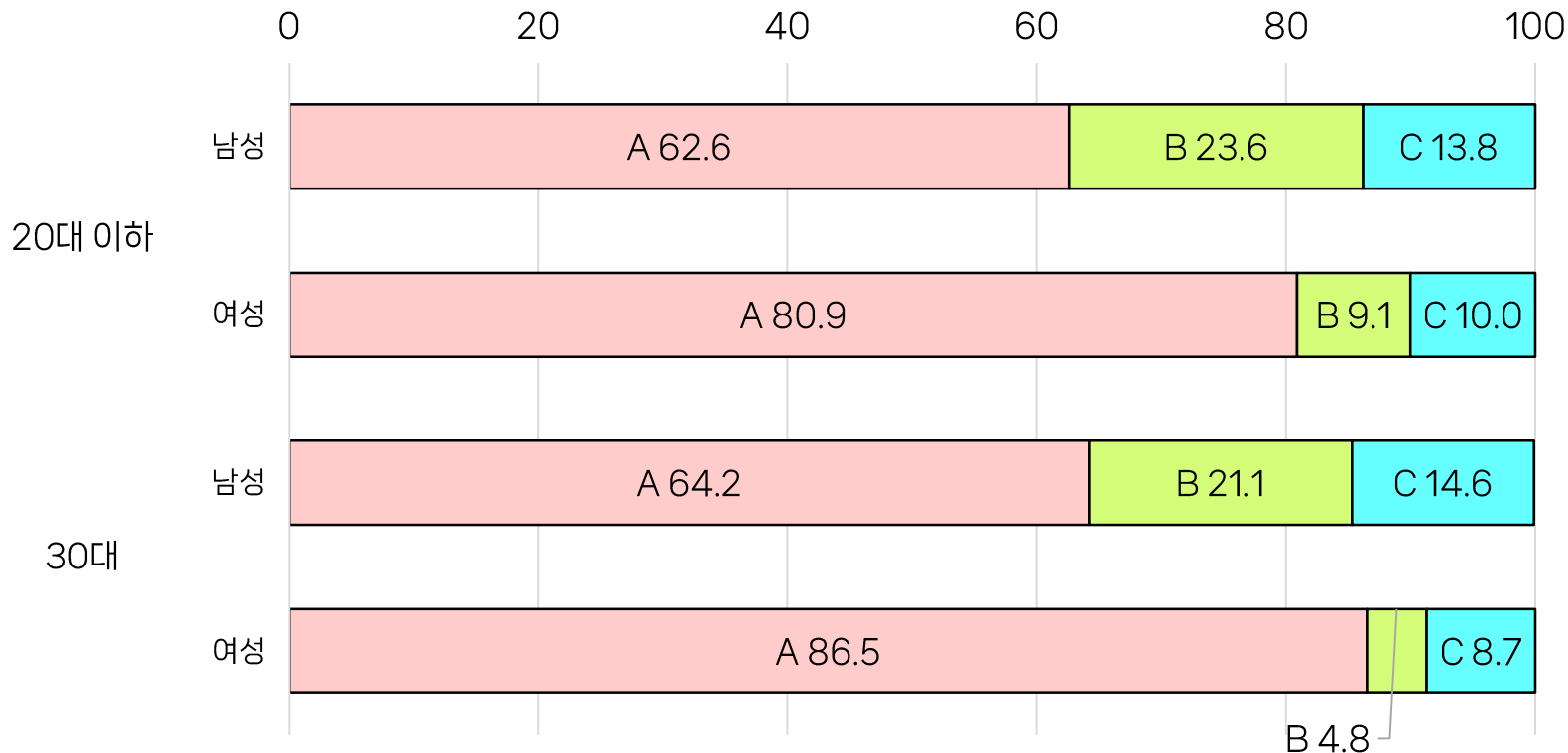


A	B	C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낮다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낮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 없다

[표 16]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의견 [2030 남녀]

문29. 다음 중 어떤 의견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



A	B	C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 없다

주요 기관 및 선거 공정성 신뢰도

“민주주의 지탱하는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정파별로 큰 차이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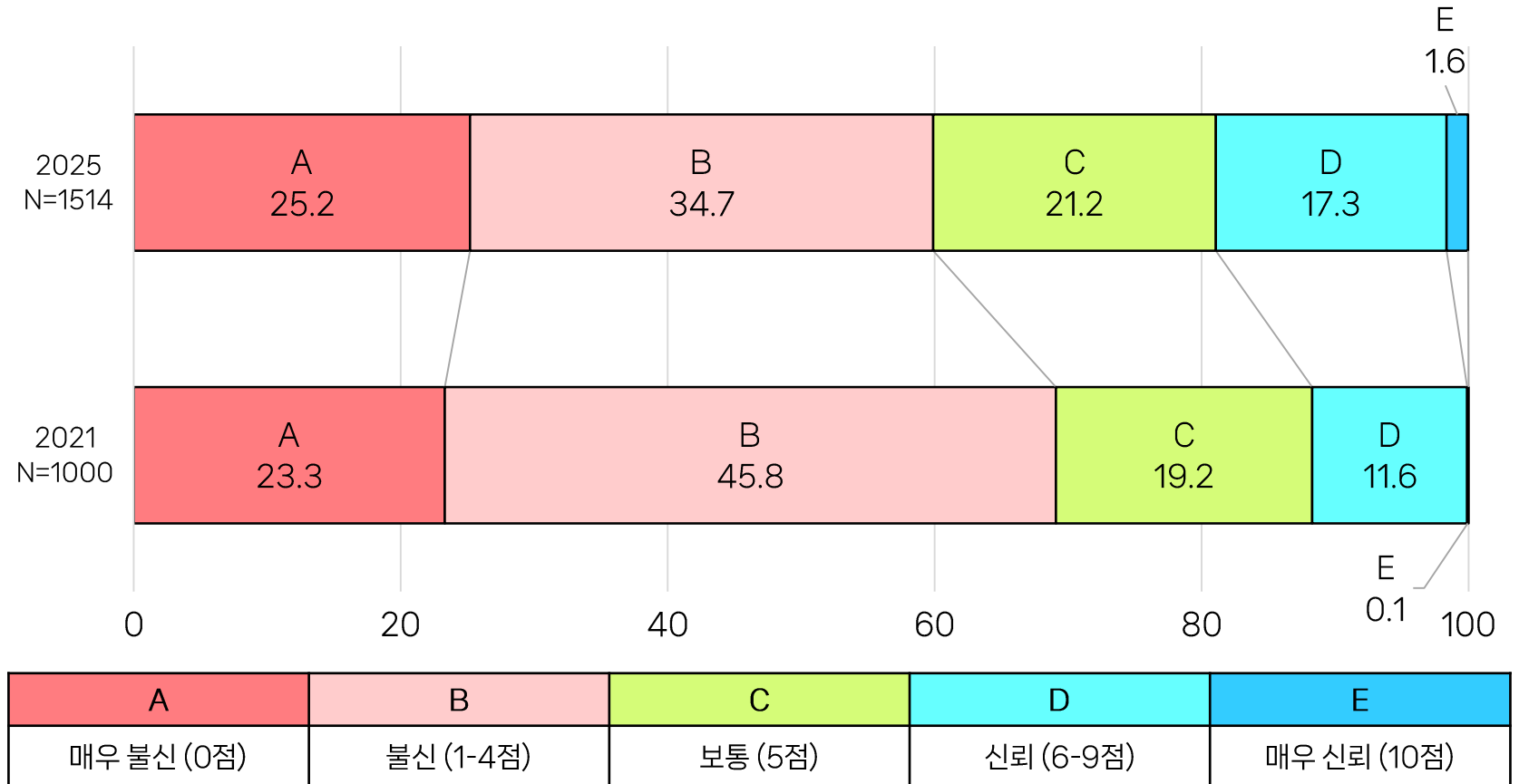
-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7.5%가 대통령을 불신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1년(32.5%)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회와 법원에 대한 불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국회에 대한 불신은 59.0%로 2021년 대비 9.2%p 하락했으며, 법원에 대한 불신 역시 40.2%로 22.4%p 감소하였다.
- 그러나 지지 정당별로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85.1%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법원을 불신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가 60.8%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2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은 32.9%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14.4%, 국민의힘 지지자의 57.3%가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전체 응답자의 42%가 선관위를 불신한다고 답했으며, 지지 정당별 선관위 불신 비율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16.2%, 국민의힘 75%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8%가 “공정했다”고 답했으며, 진보(70.4%)와 보수(64%)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진보 성향 응답자의 83%가 공정했다고 답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52.2%에 그쳤다.

[표 17] 기관별 신뢰 정도: 국회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

1.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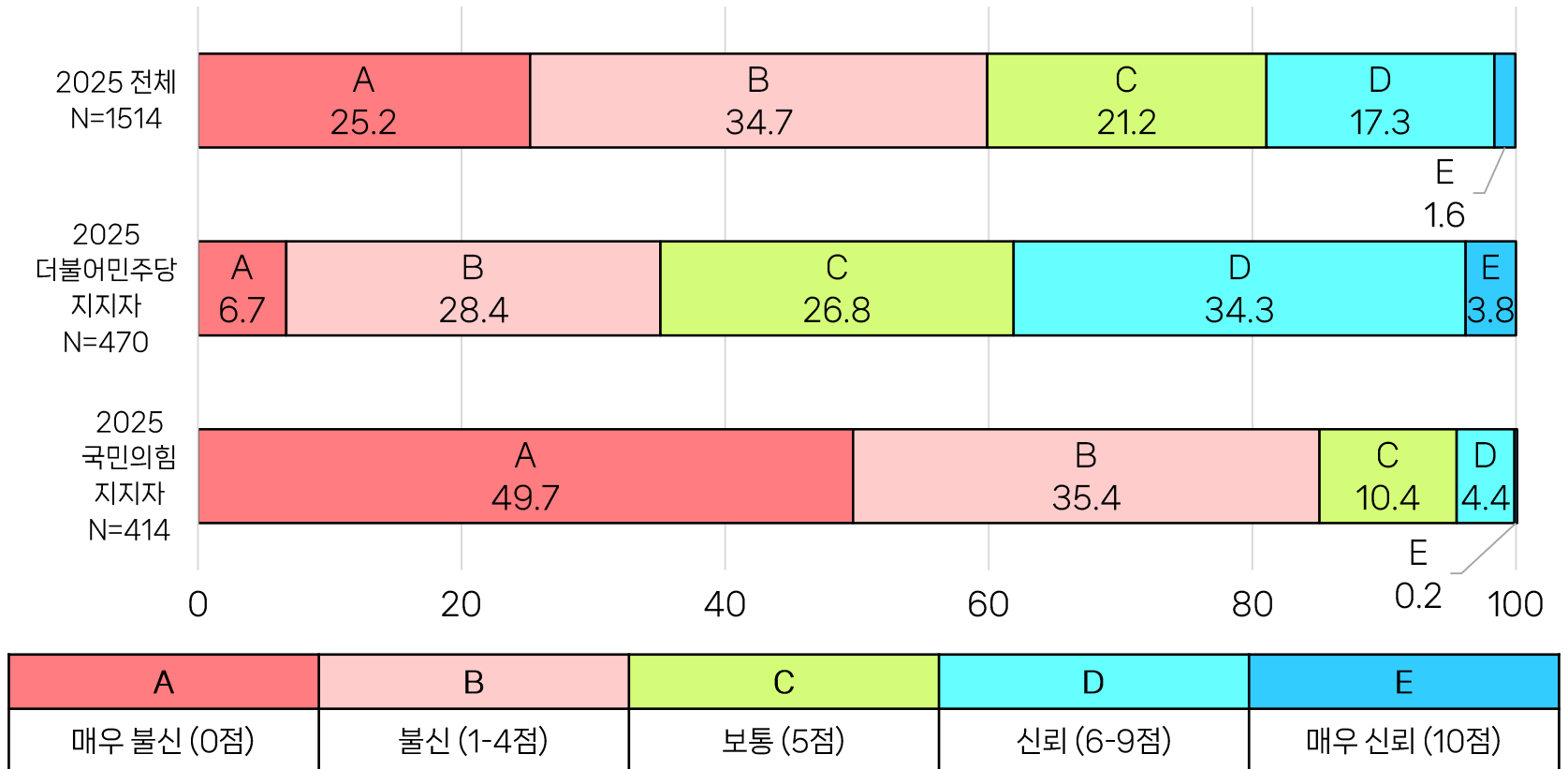


[표 18] 기관별 신뢰 정도: 국회 [지지정당별]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

1.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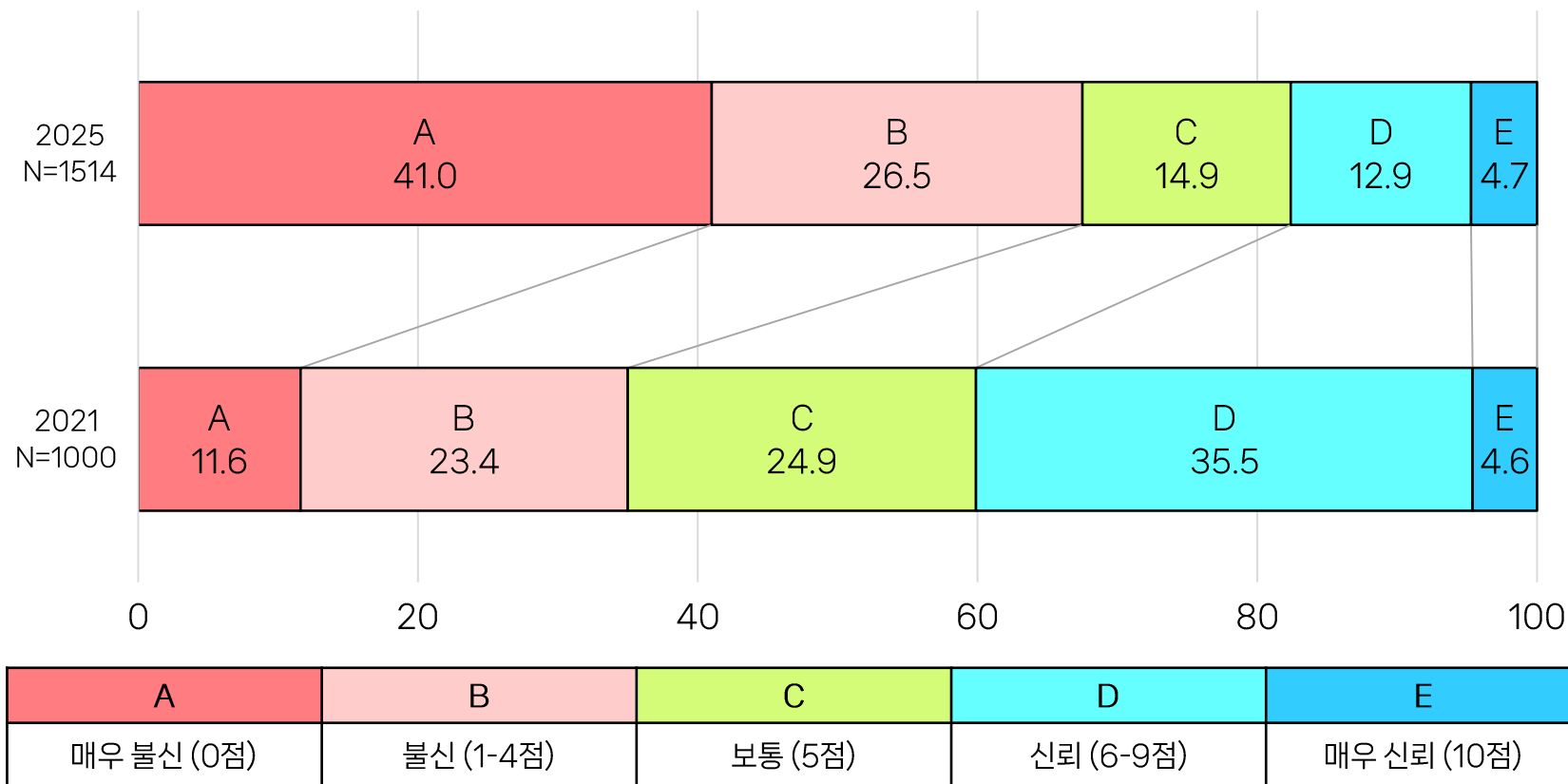


[표 19] 기관별 신뢰 정도: 대통령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2. 대통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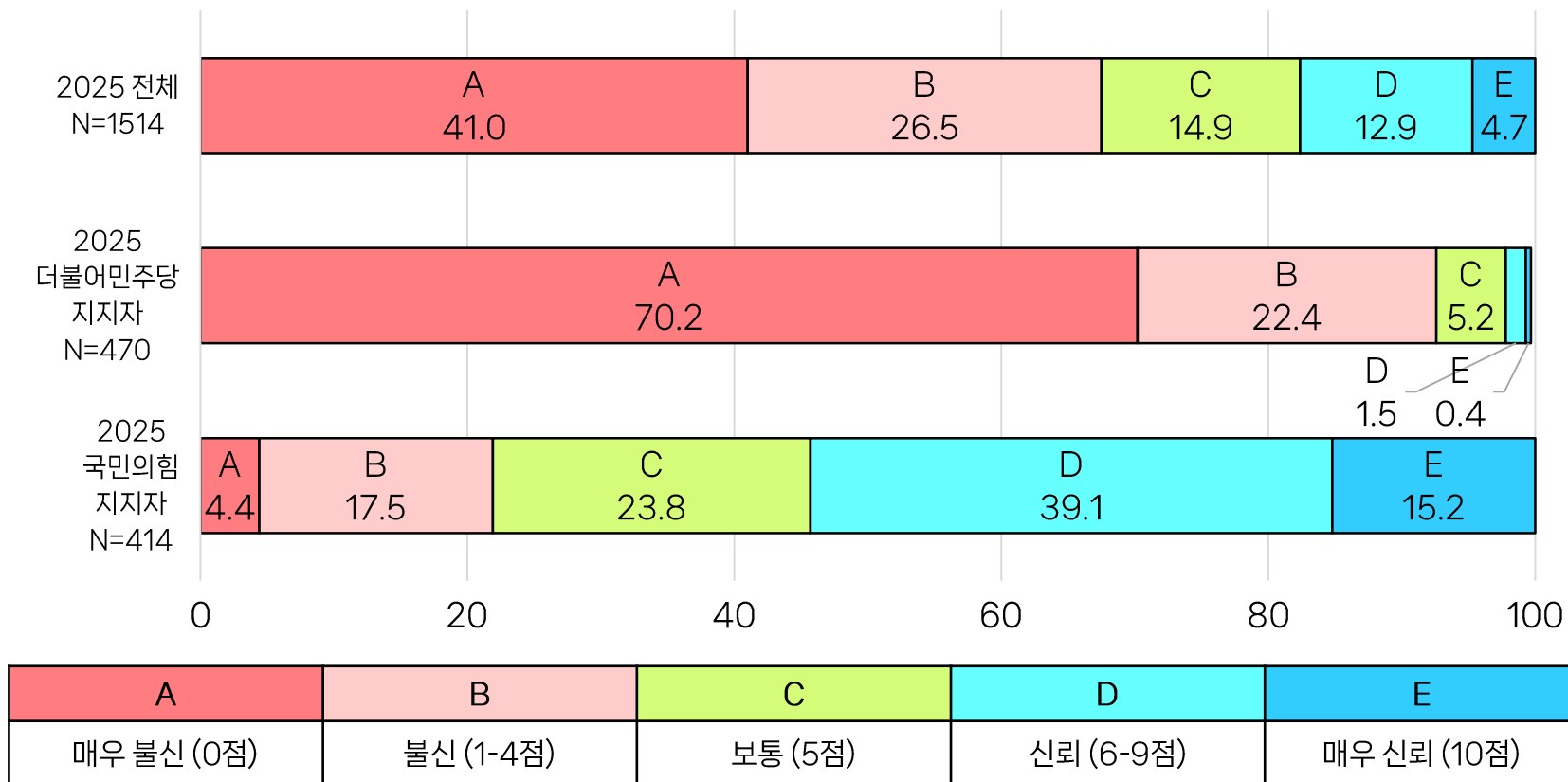


[표 20] 기관별 신뢰 정도: 대통령 [지지정당별]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

2.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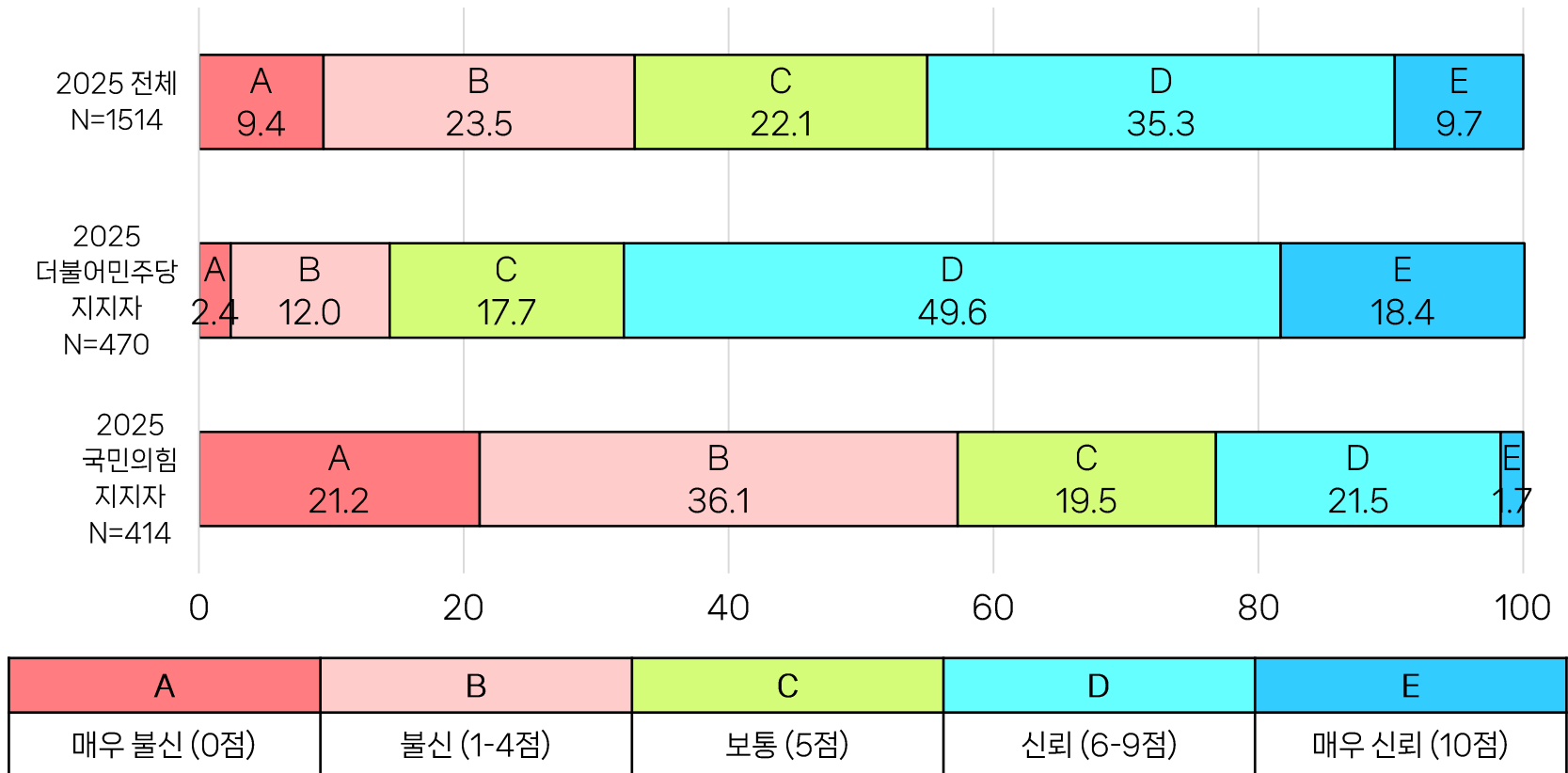


[표 21] 기관별 신뢰 정도: 헌법재판소 [지지정당별]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

3. 헌법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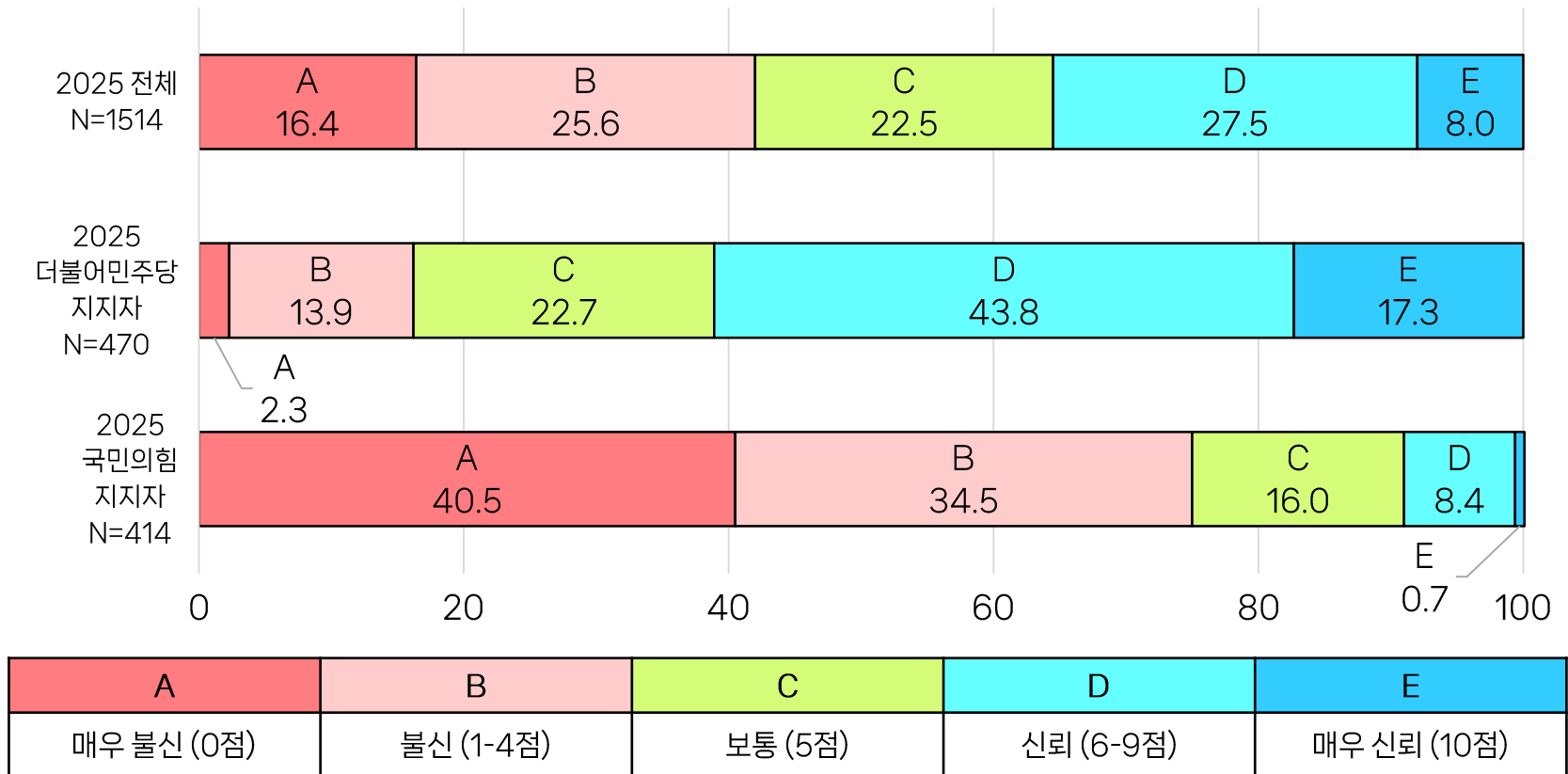


[표 22] 기관별 신뢰 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지정당별]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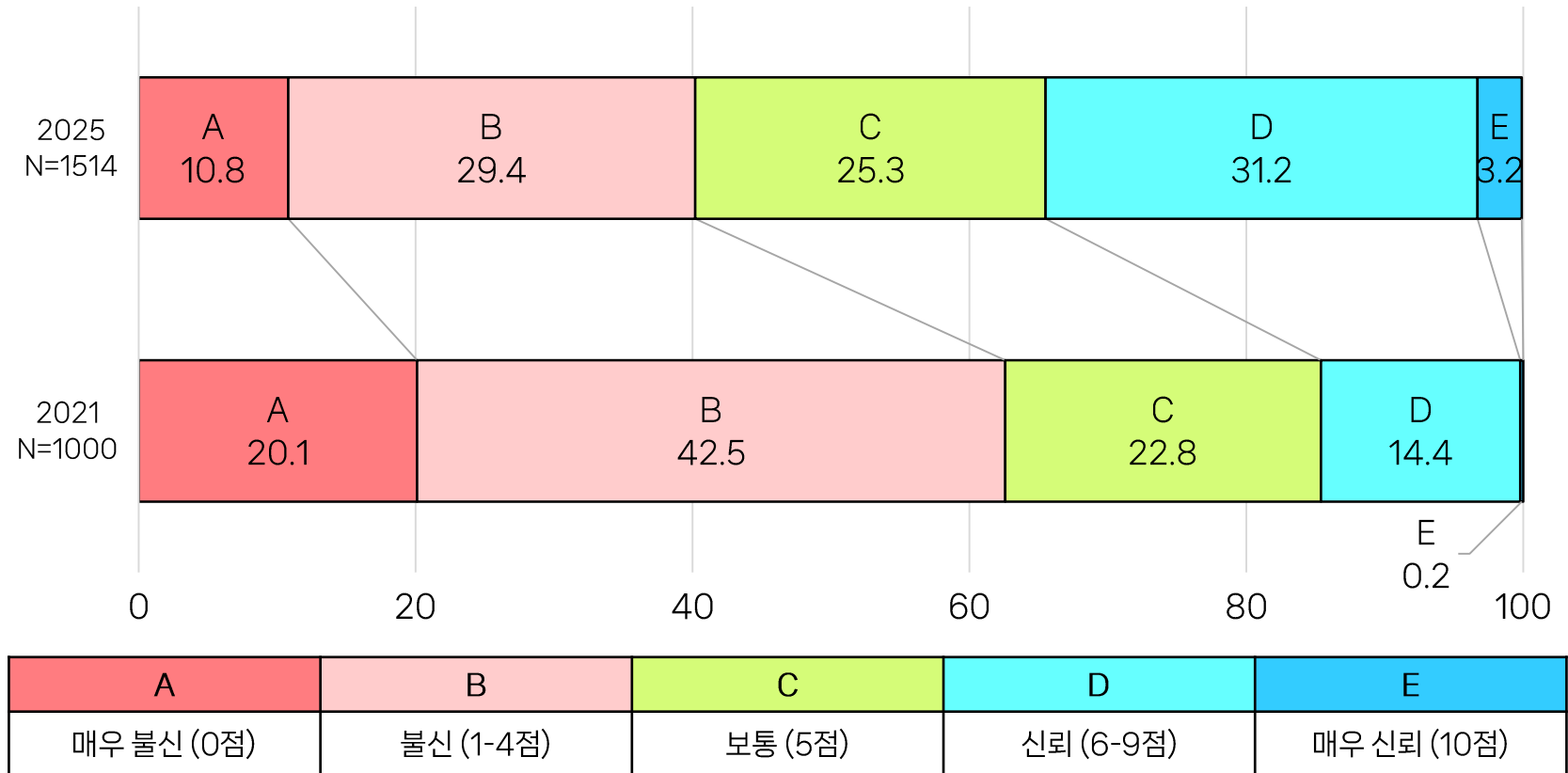


[표 23] 기관별 신뢰 정도: 법원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5. 법원 (2021년에는 “사법부”로 설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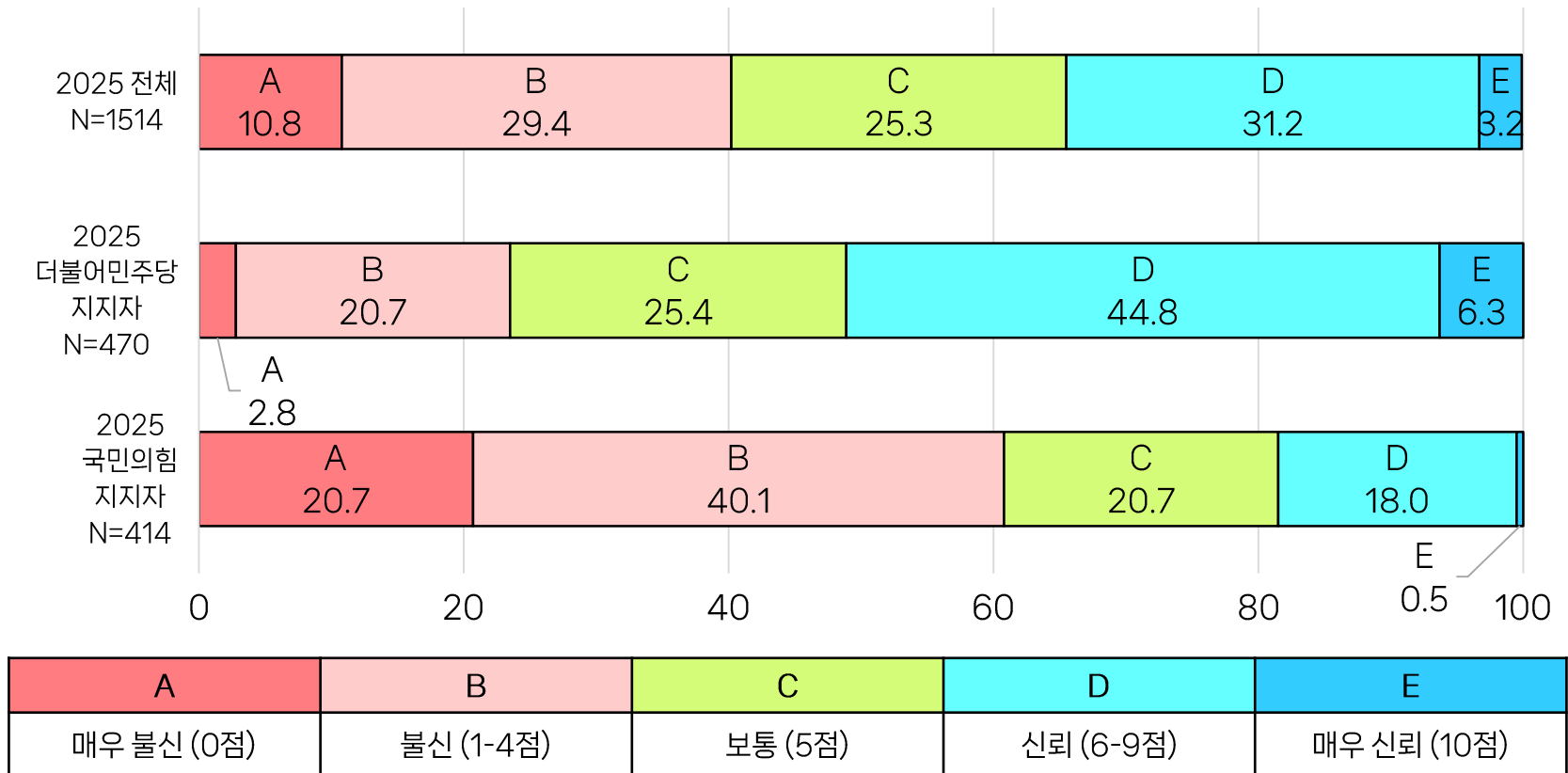


[표 24] 기관별 신뢰 정도: 법원 [지지정당별]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5. 법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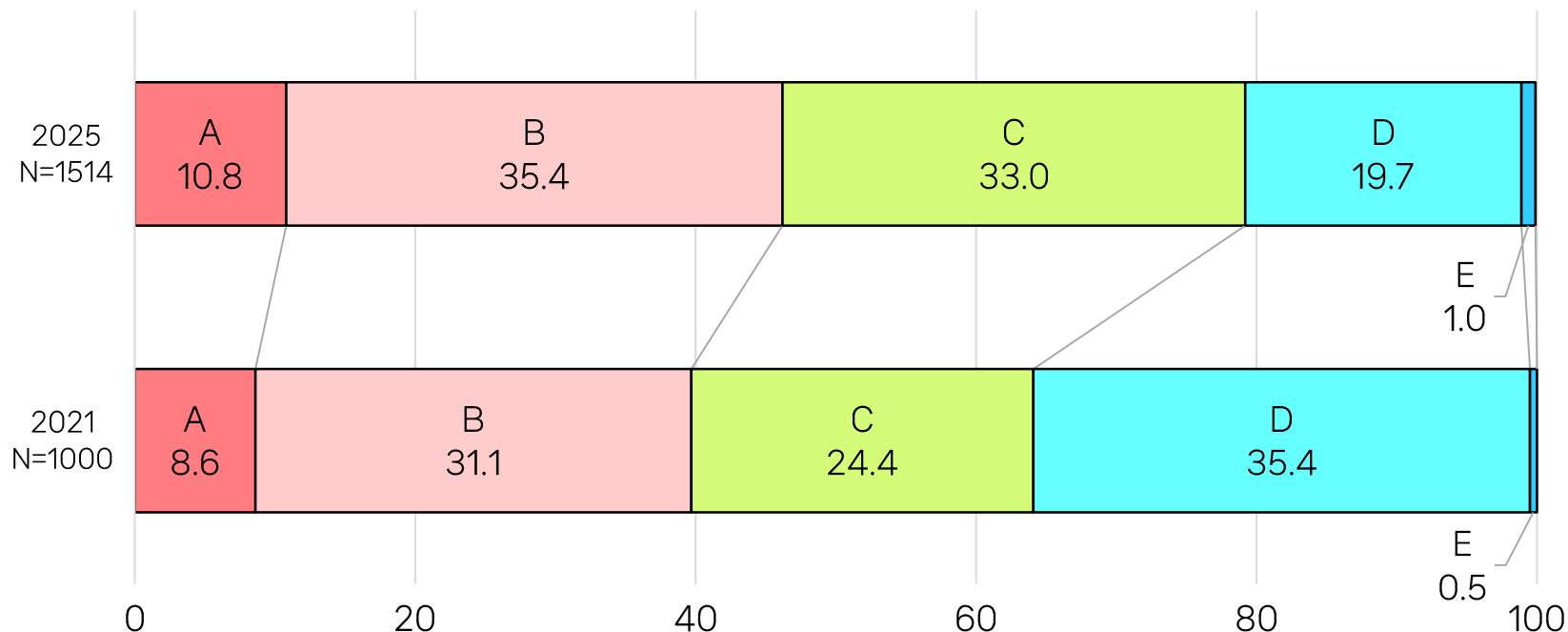


[표 25] 기관별 신뢰 정도: 행정부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6. 행정부 (2021년에는 “중앙 정부”로 설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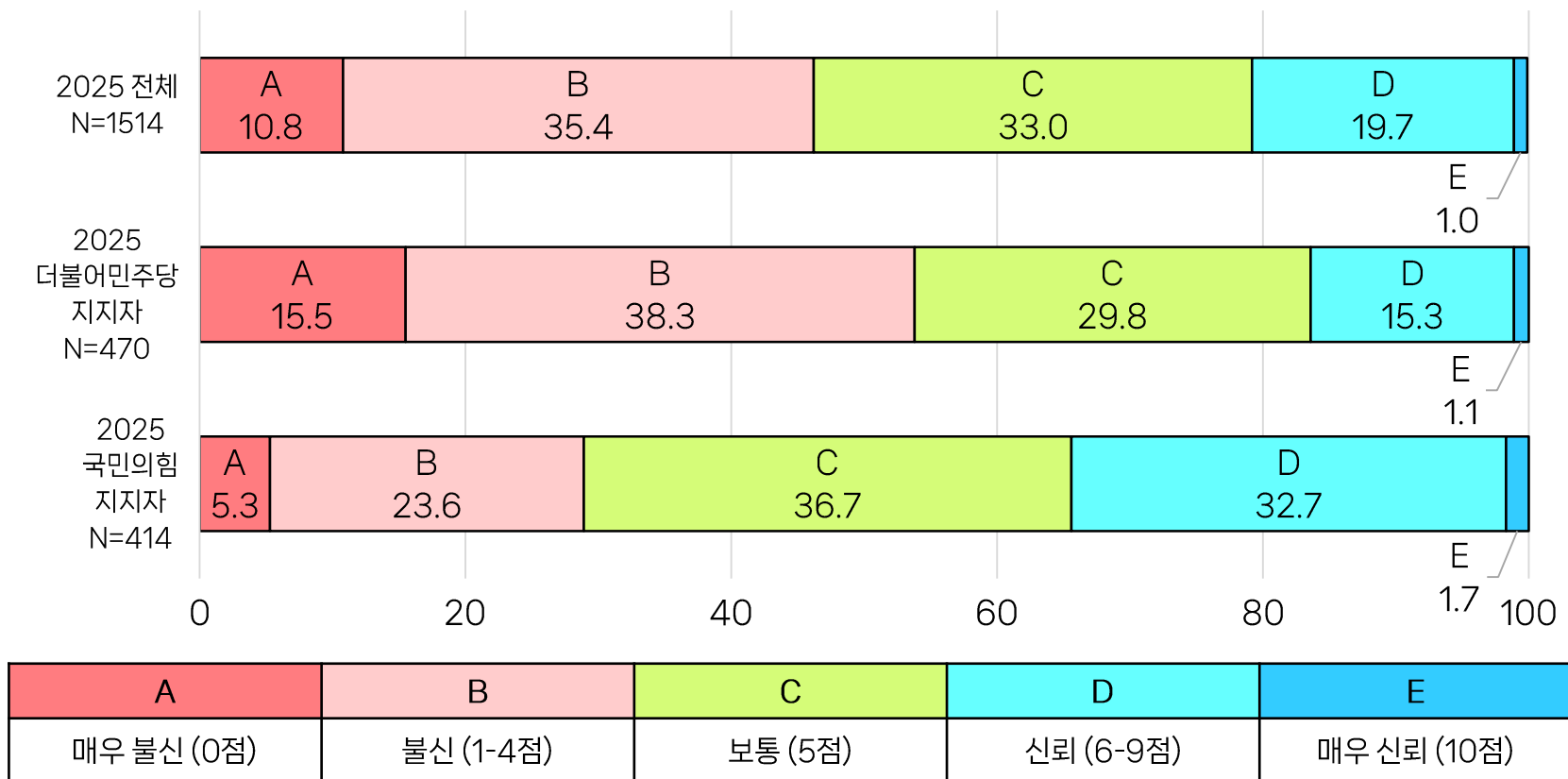
A	B	C	D	E
매우 불신 (0점)	불신 (1-4점)	보통 (5점)	신뢰 (6-9점)	매우 신뢰 (10점)

[표 26] 기관별 신뢰 정도: 행정부 [지지정당별]

문16.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6. 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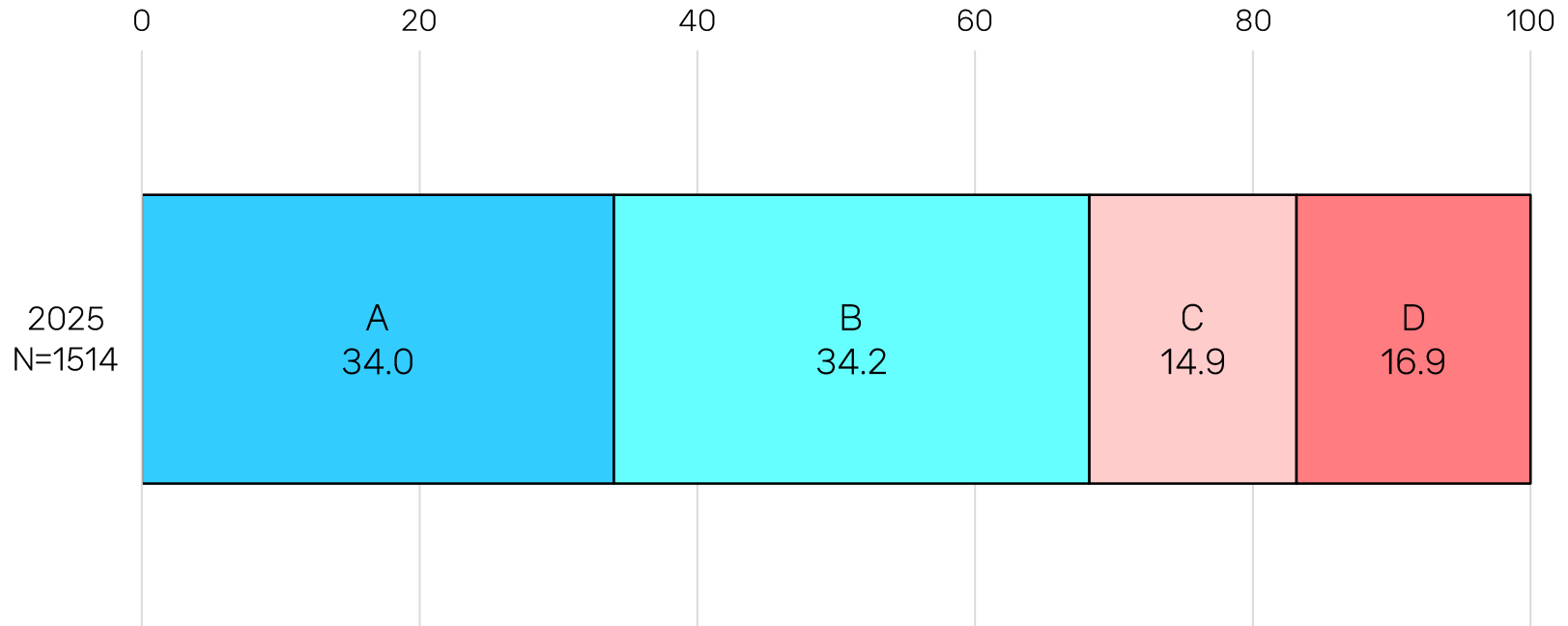
(%)



[표 2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성 신뢰 정도

문28-1. 귀하는 지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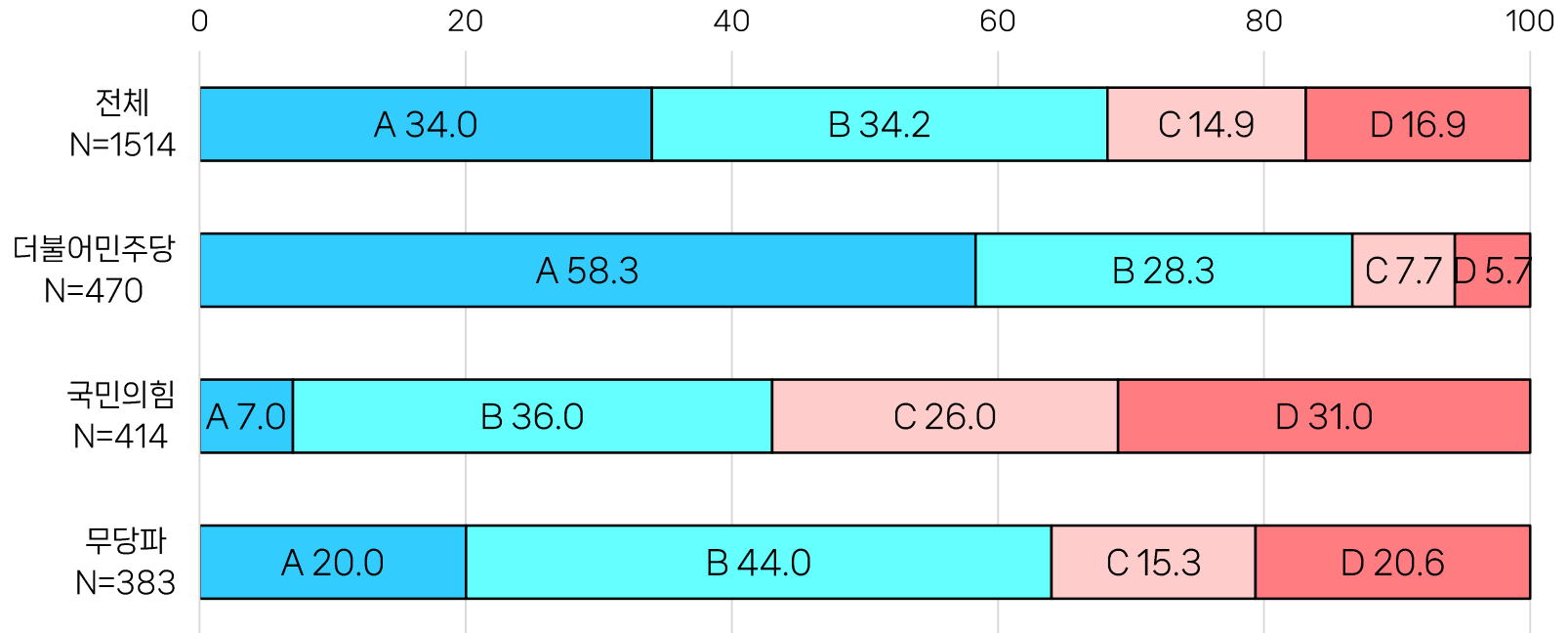


A	B	C	D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큰 문제들이 있었다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았다

[표 2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성 신뢰 정도 [지지정당별]

문28-1. 귀하는 지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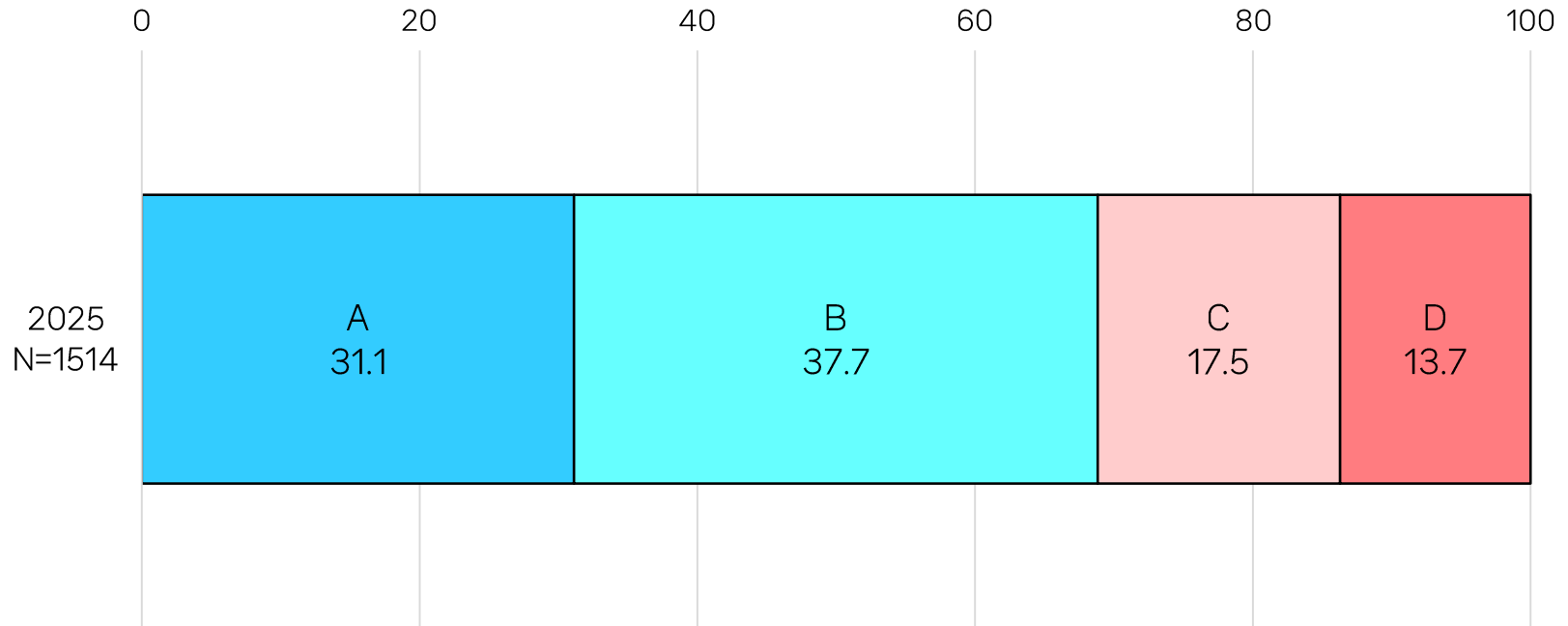


A	B	C	D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큰 문제들이 있었다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았다

[표 29]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신뢰 정도

문28-2. 귀하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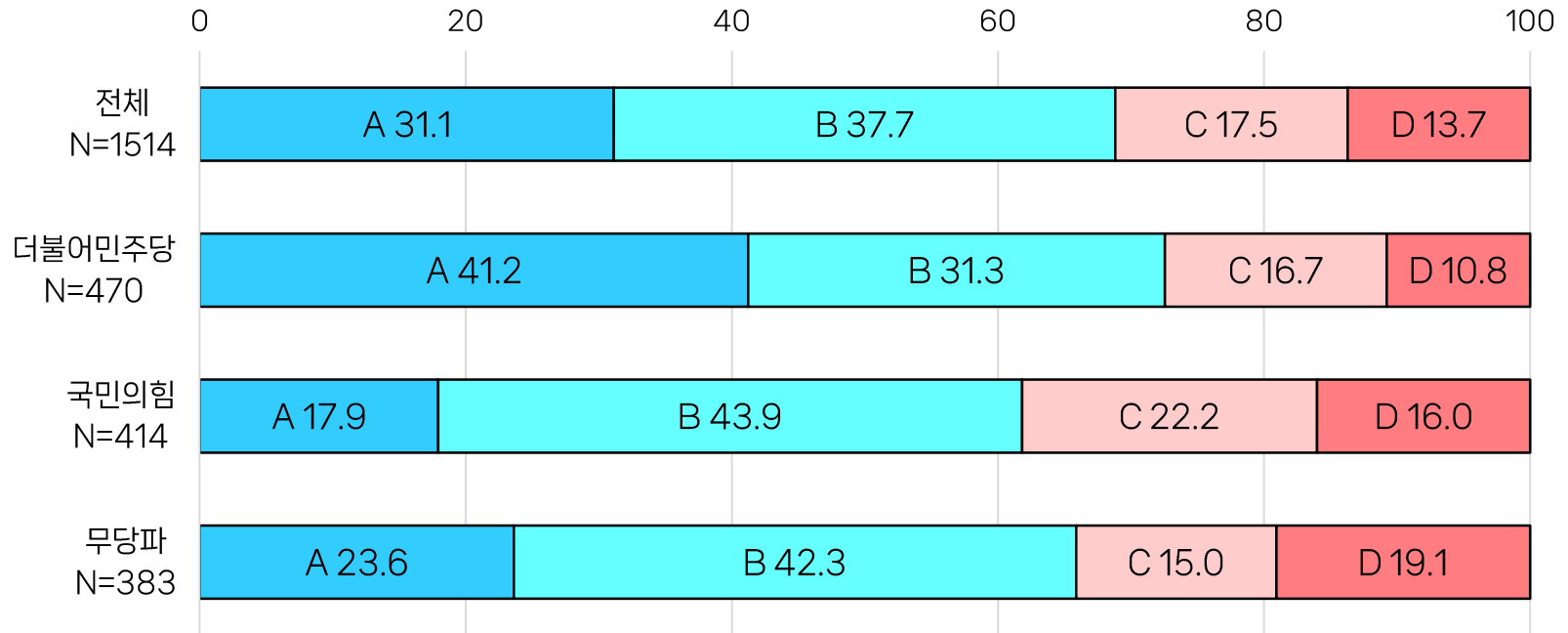


A	B	C	D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큰 문제들이 있었다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았다

[표 30]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신뢰 정도 [지지정당별]

문28-2. 귀하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A	B	C	D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큰 문제들이 있었다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았다

엘리트 정치, 포퓰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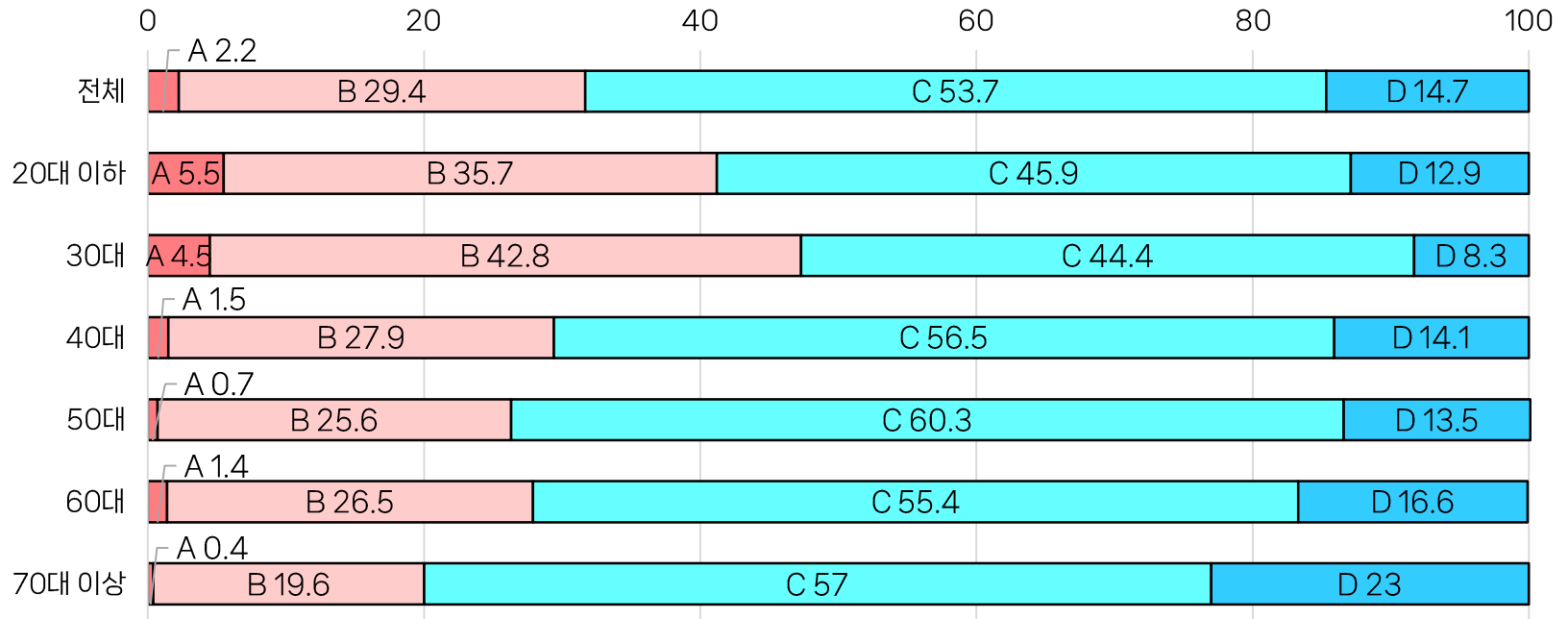
“정치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 심화”

- 전체 응답자의 68.4%가 평소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20~30대의 정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41.2%, 30대 47.4%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67.6%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동시에 과반 (60.9%)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두드러졌는데,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선출되지만, 실제 행동은 별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0.5%에 달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협으로 마무리한다”는 의견에 86.2%가 동의했으며, “엘리트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일반 국민들 간 입장의 차이 보다 크다”는 데에도 응답자의 72.5%가 동의했다.
- 아울러 “사회는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더 잘 운영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70%에 달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47.6%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는데,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에 의한 통치는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31]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문8. 귀하는 평소 정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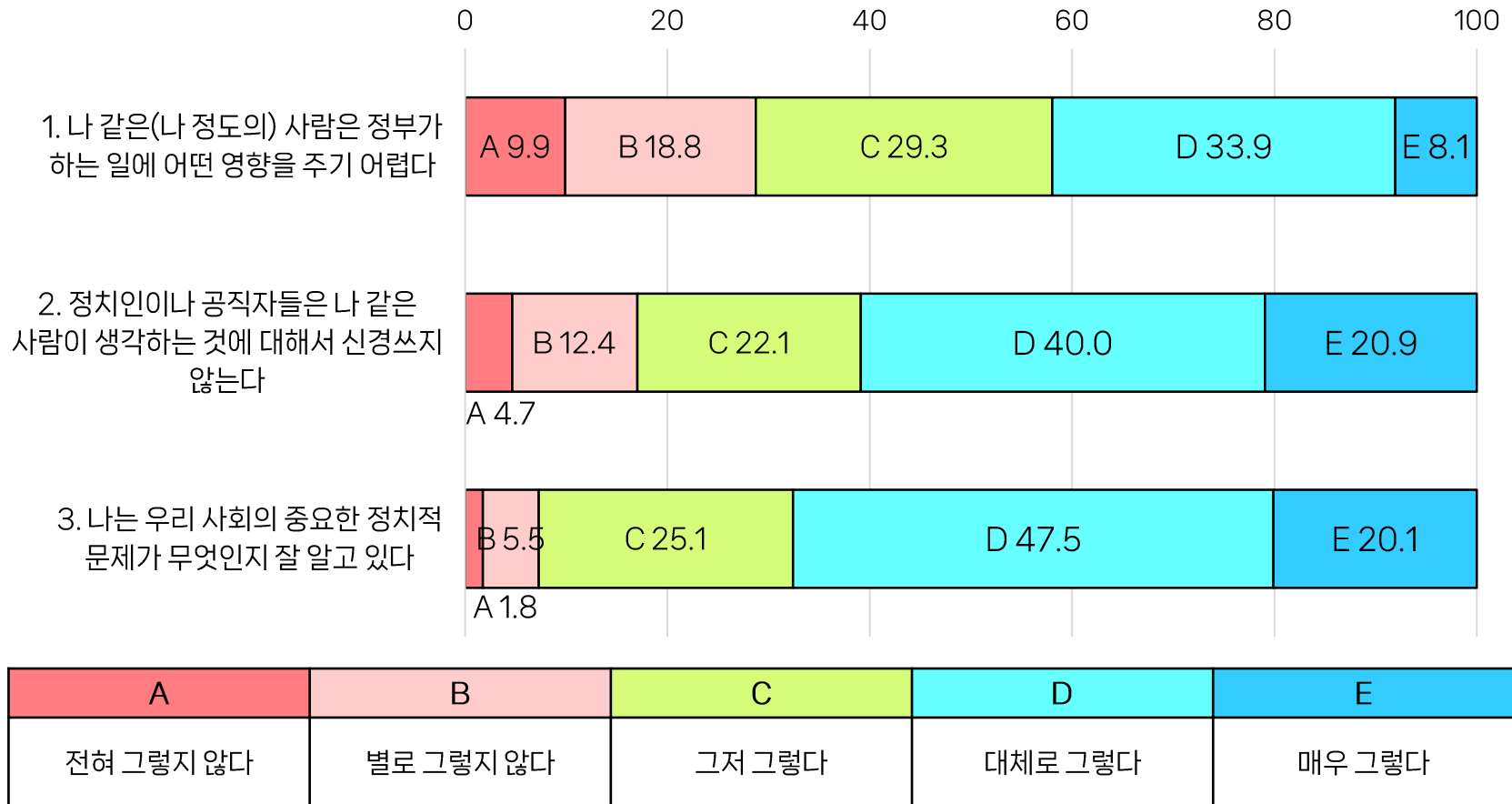


A	B	C	D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표 32]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

문9. 귀하는 다음 진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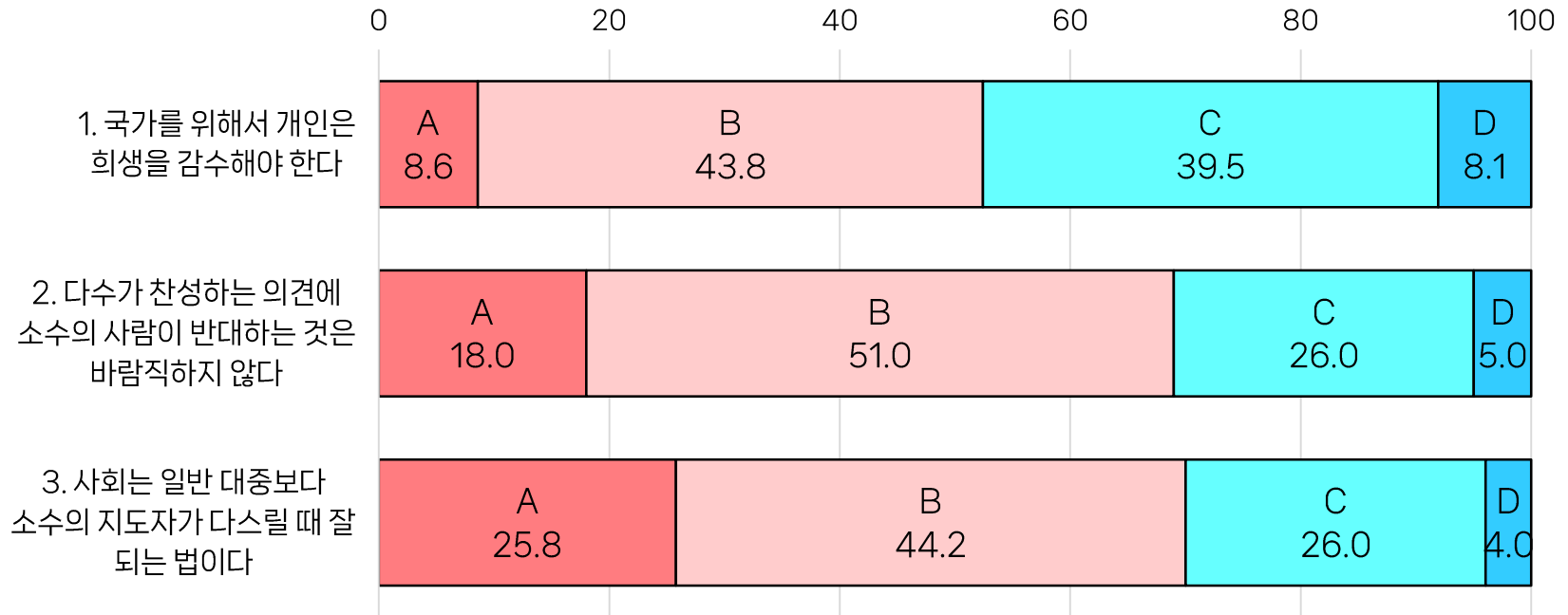
(%)



[표 33]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

문33. 귀하는 다음 진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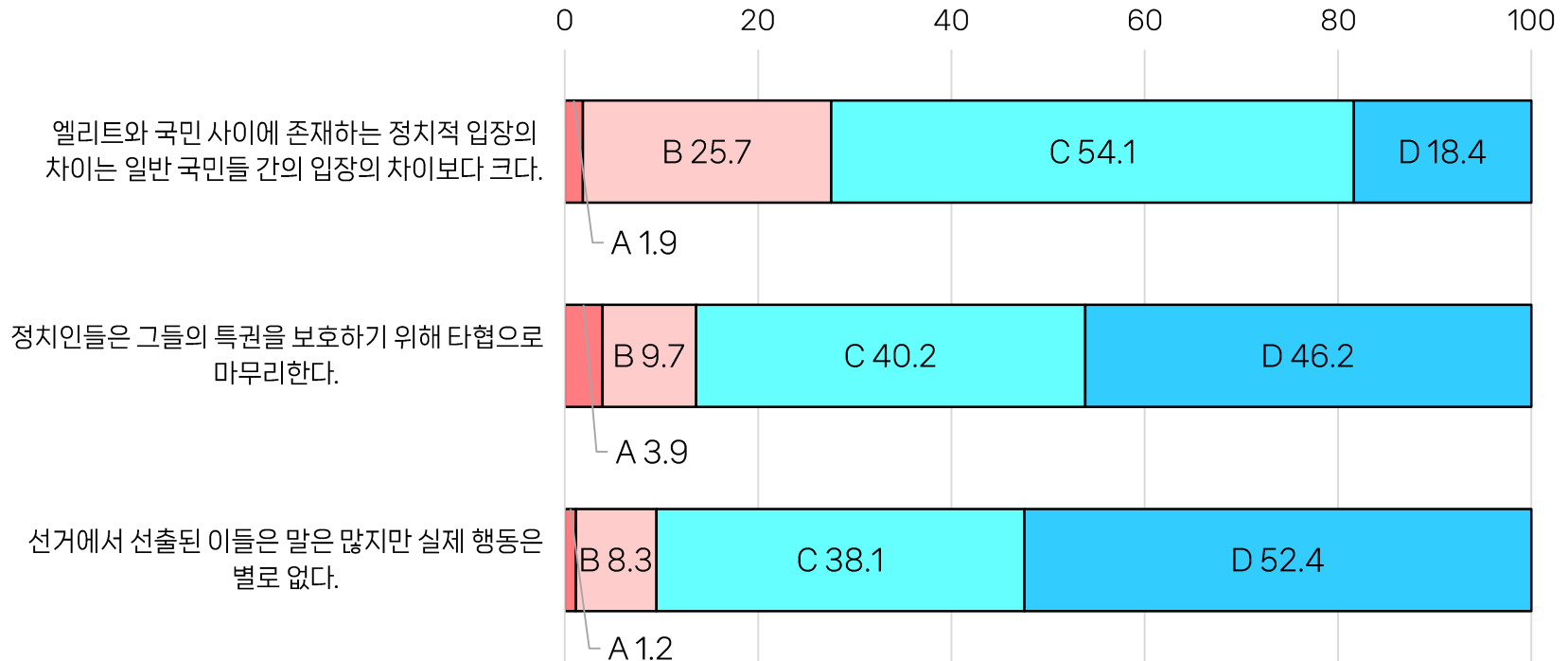


A	B	C	D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표 34]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

문34. 귀하는 다음 진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A	B	C	D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제도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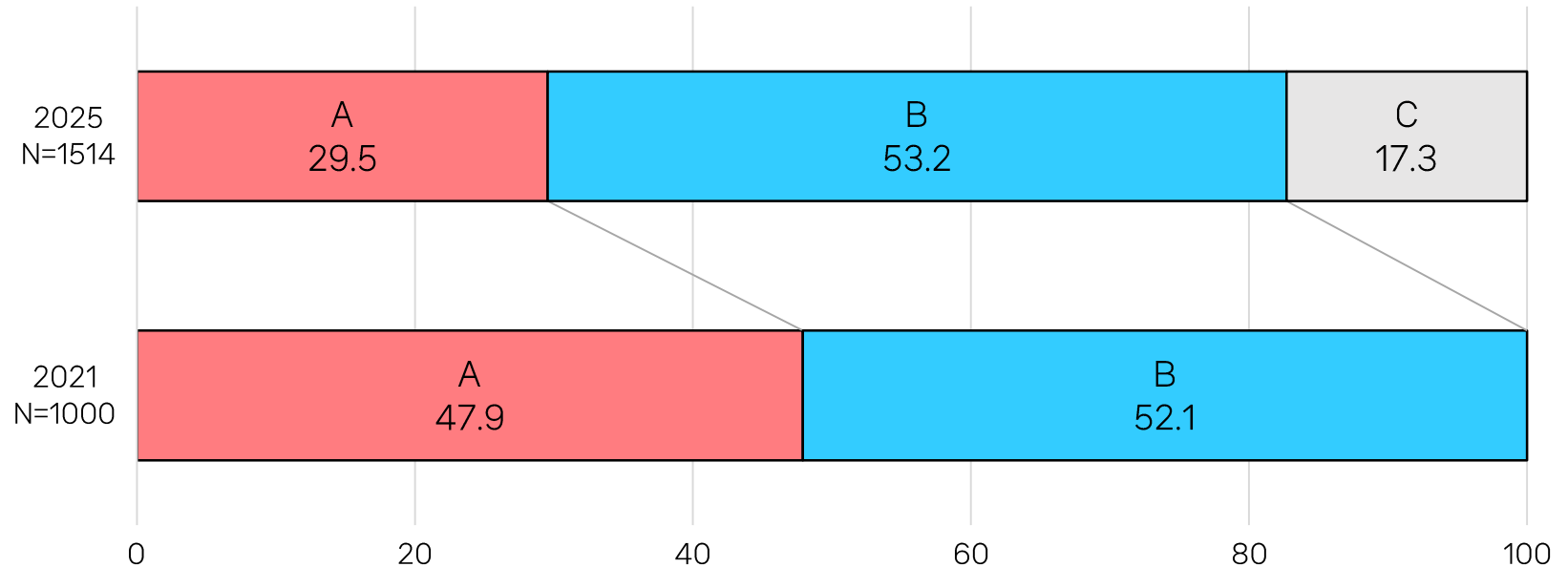
“대통령 권한 분산 찬성 47.3% vs. 유지 36.7%… 진보·보수 간 의견 차이 뚜렷”

-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53.2%)”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63.3%, 보수 성향 응답자의 4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진보 성향일수록 개헌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 응답자의 47.3%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분산시켜야 한다”고 답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6.7%)보다 7%p 높은 수치였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진보 성향 응답자의 61.3%가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26.3%만이 이에 동의했다.
-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7%가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거대 정당의 양극화된 구도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21.4%)”,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개헌에 대한 입장

문36. 귀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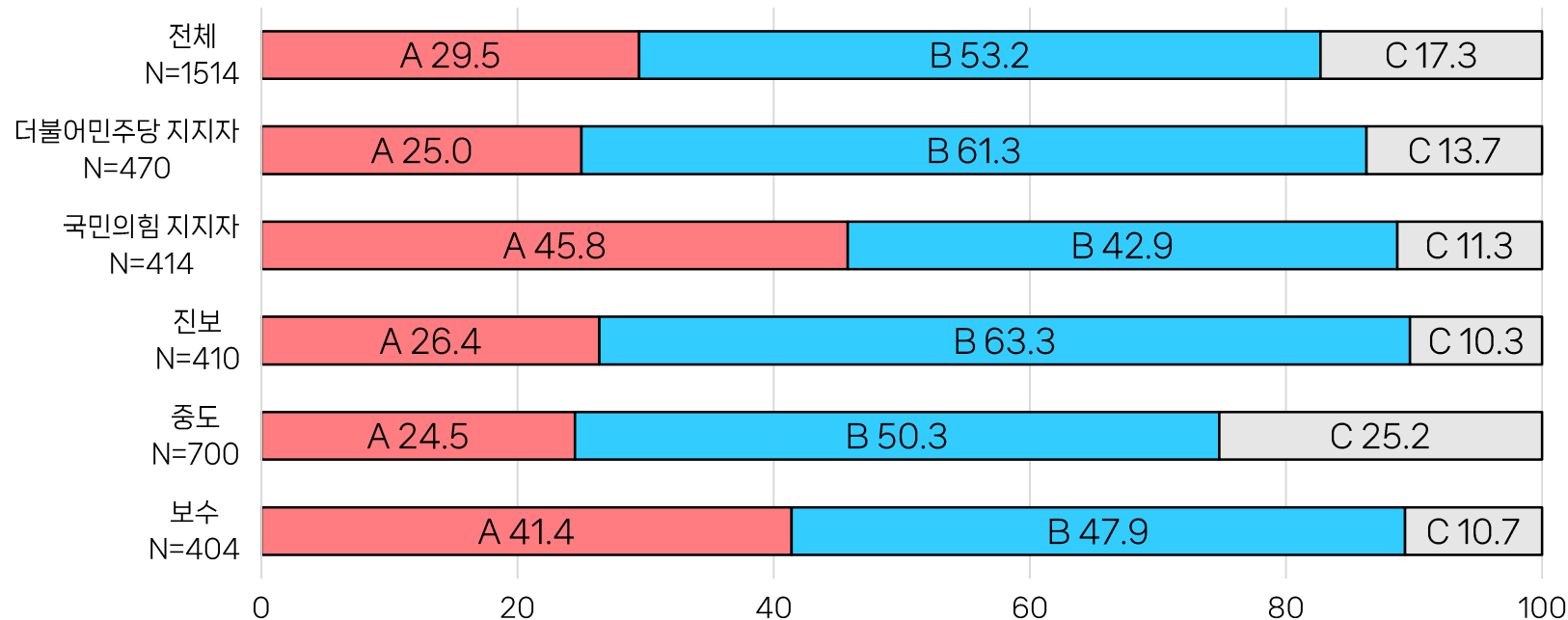


A	B	C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	모름/무응답(2025)

[표 36] 개헌에 대한 입장

문36. 귀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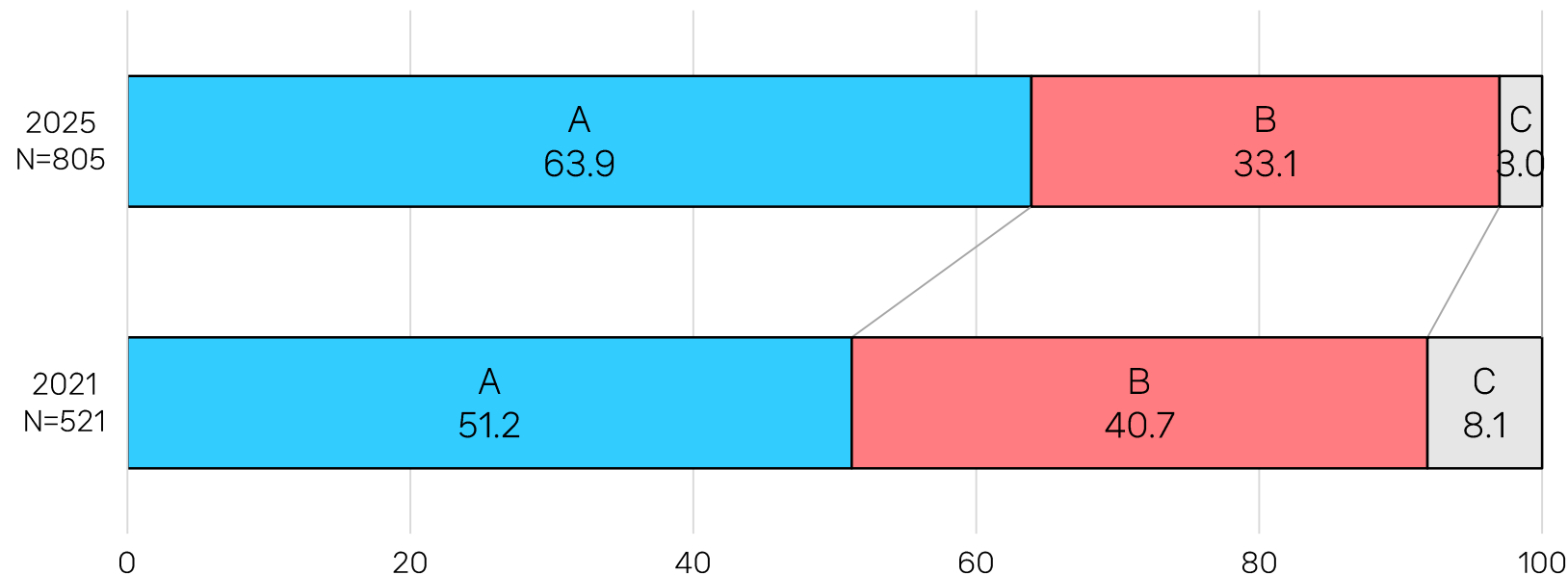
A	B	C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	모름/무응답(2025)

[표 37] 개헌을 서둘러야 하는지 여부

문37-1. [문36의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 응답자에게 질문]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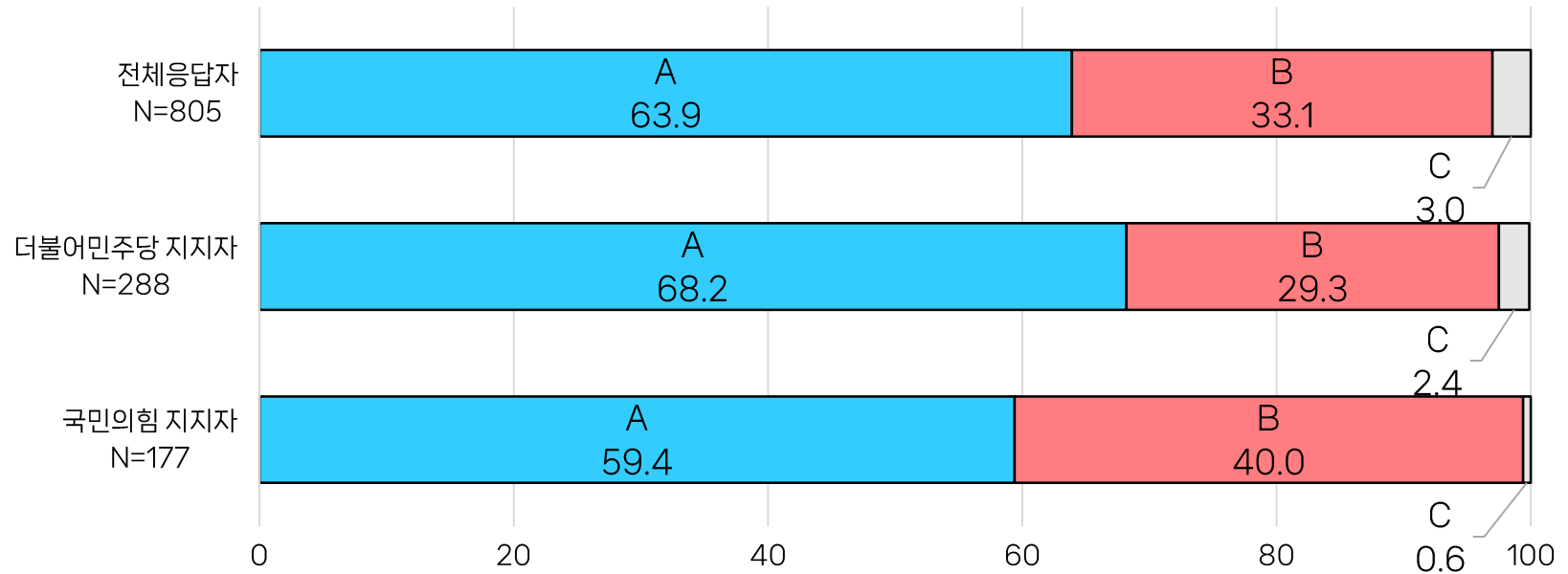
A	B	C
서둘러야 할 과제다	서두를 과제는 아니다	모르겠다

[표 38] 개헌을 서둘러야 하는지 여부

문37-1. [문36의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 응답자에게 질문]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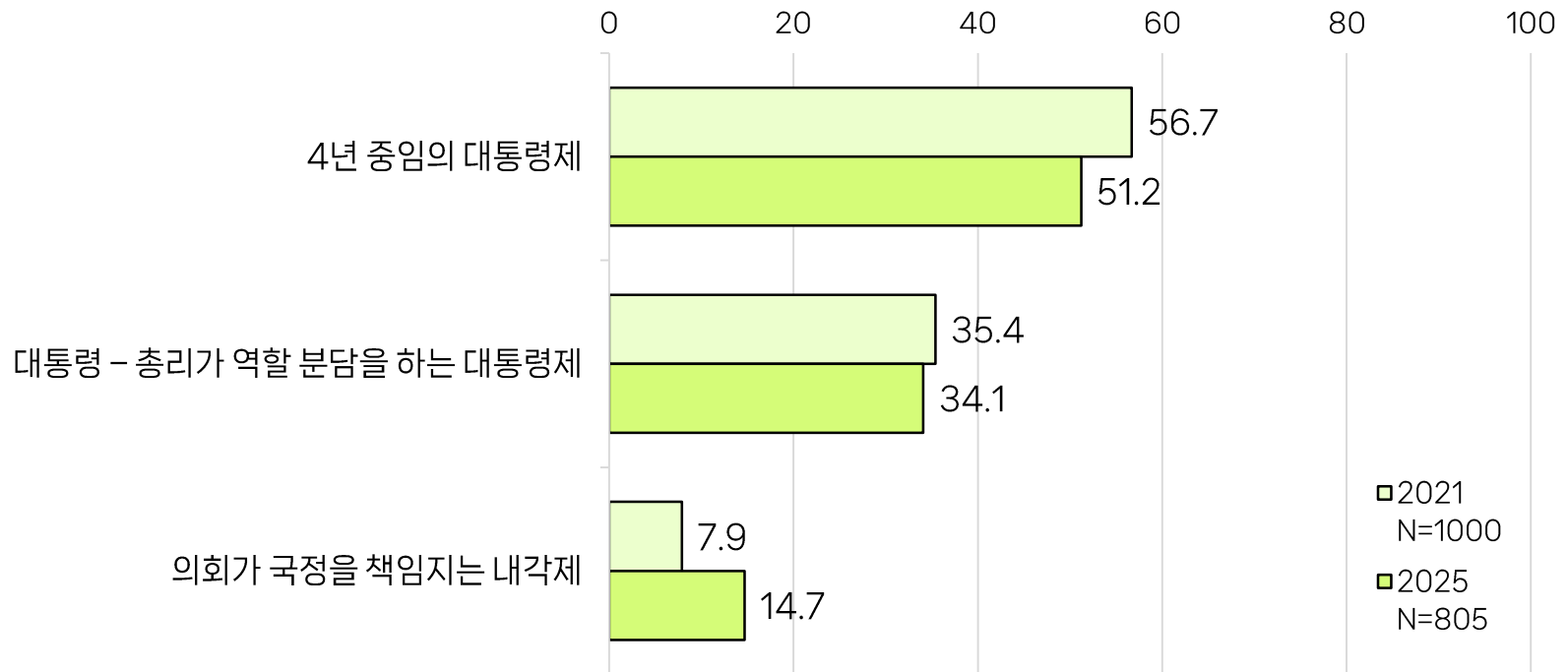


A	B	C
서둘러야 할 과제다	서두를 과제는 아니다	모르겠다

[표 39]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선호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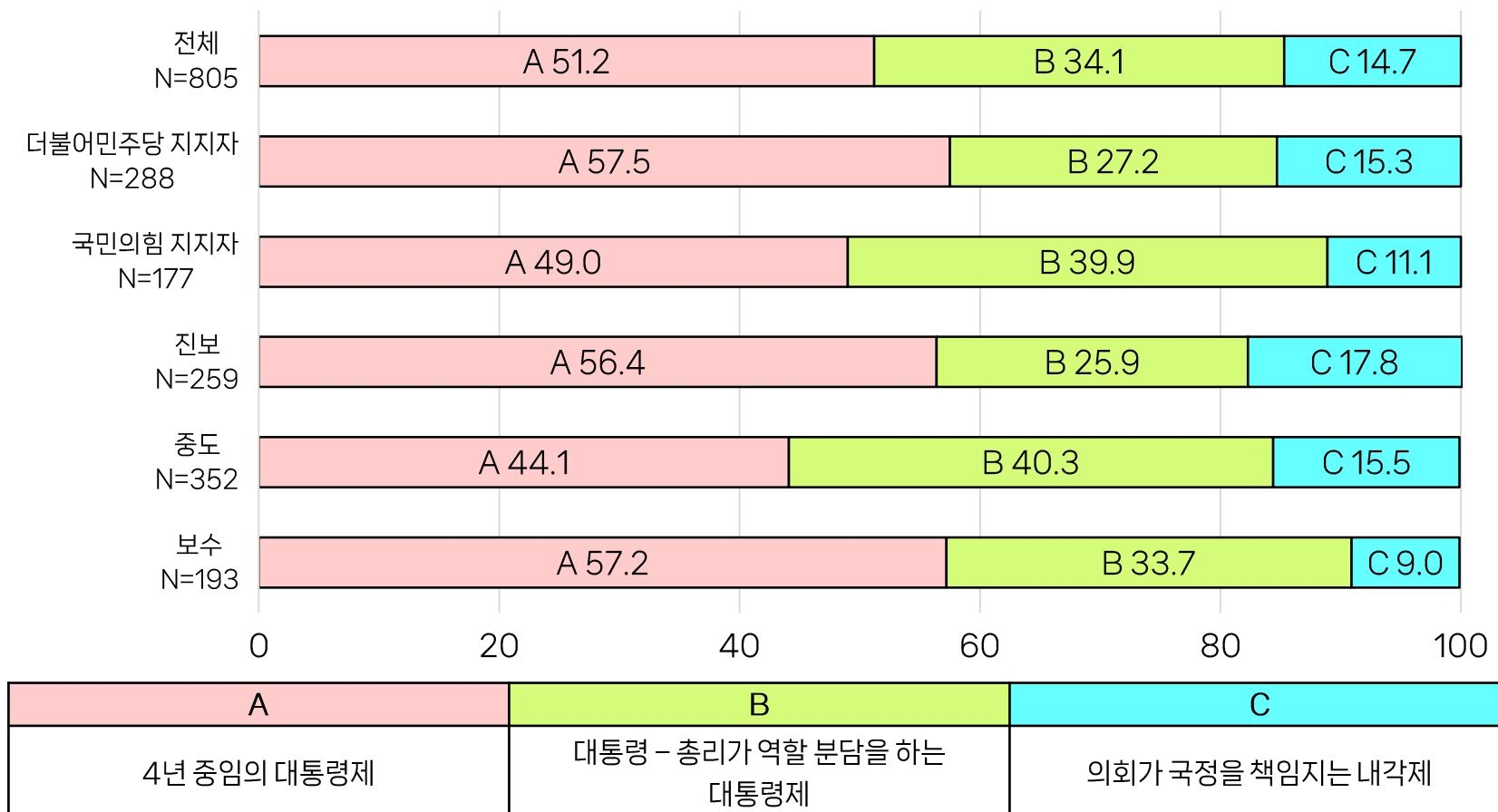
문37-2. 만약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2021: 전체 응답자에게 질문
- 2025: 문36의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 응답자에게만 질문



[표 40]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선호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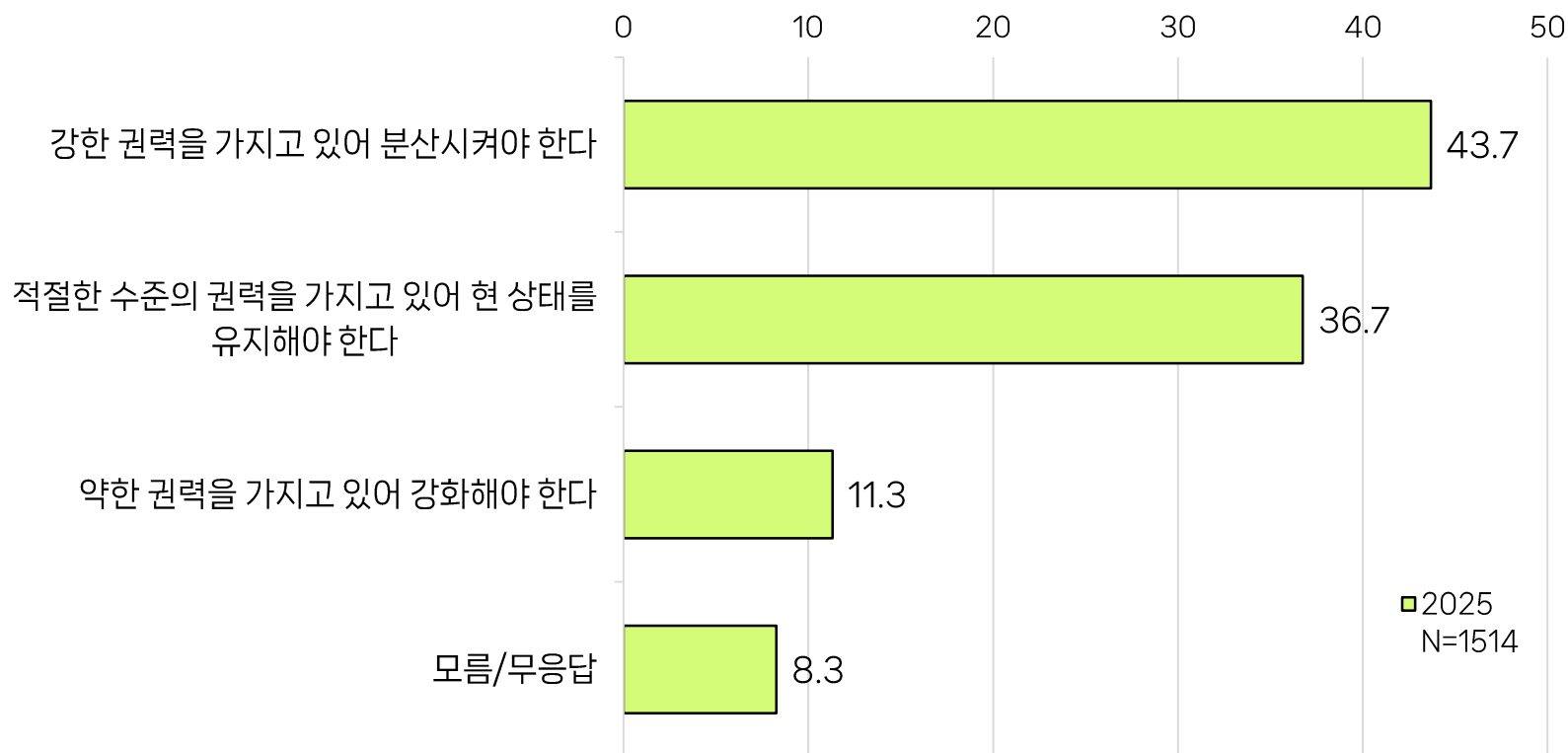
문37-2. 만약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41]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권력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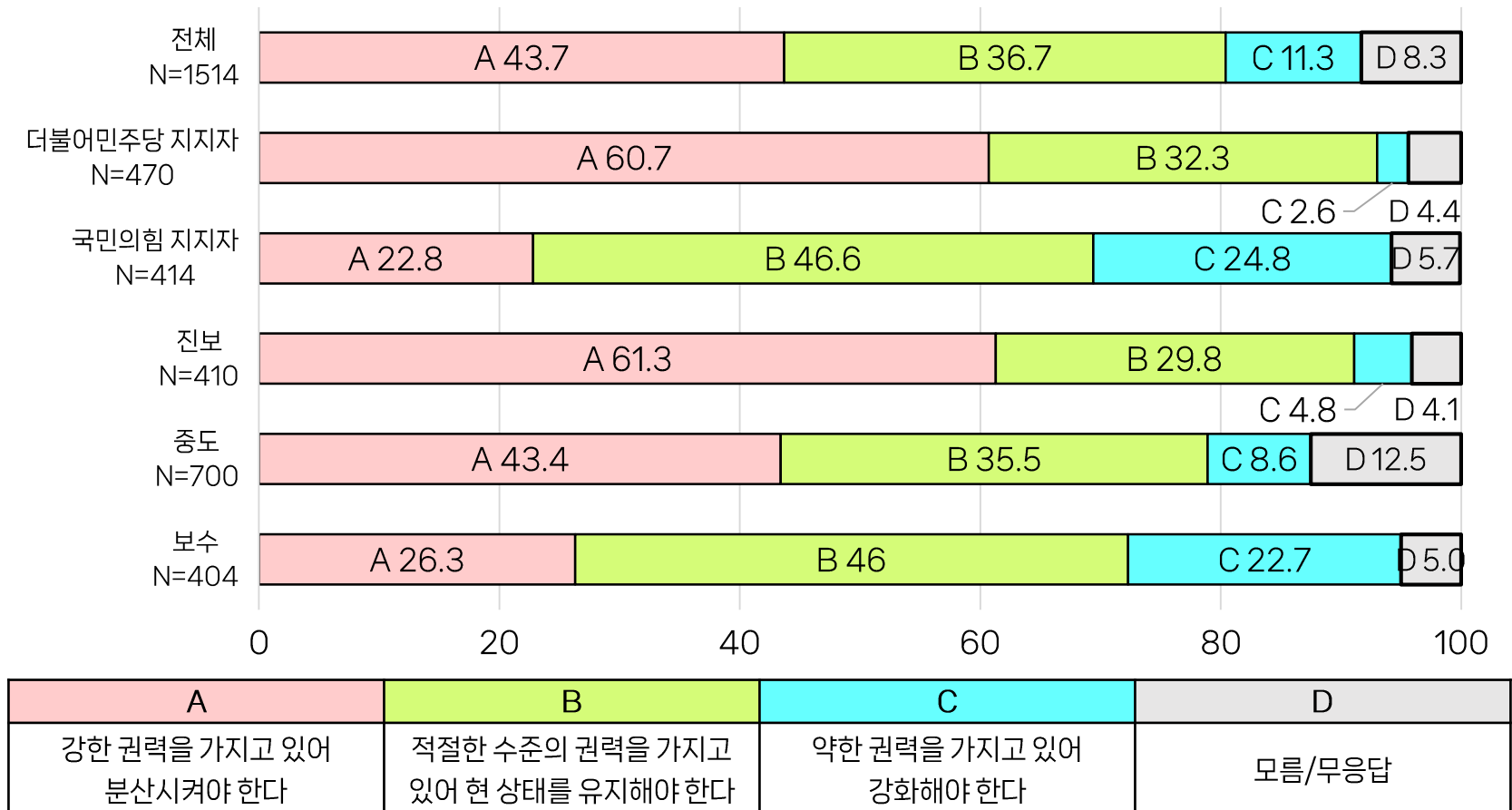
문38.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42]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권력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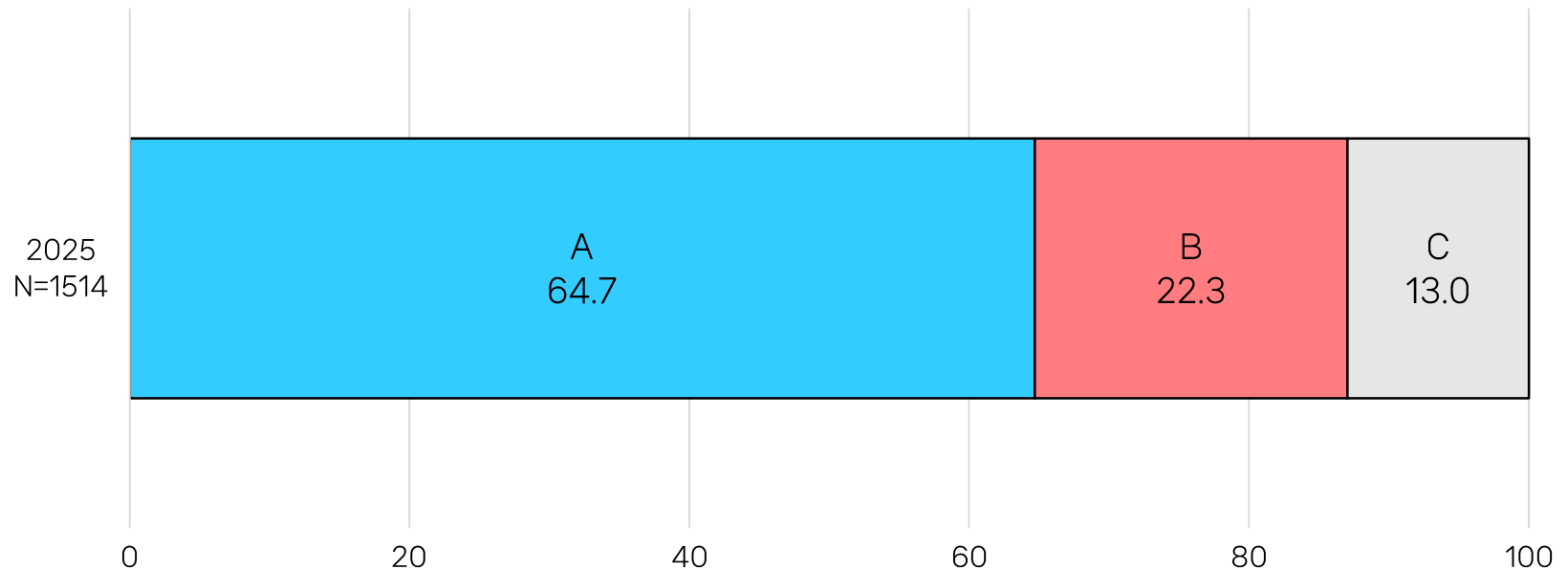
문37-2. 만약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43]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입장

문39. 귀하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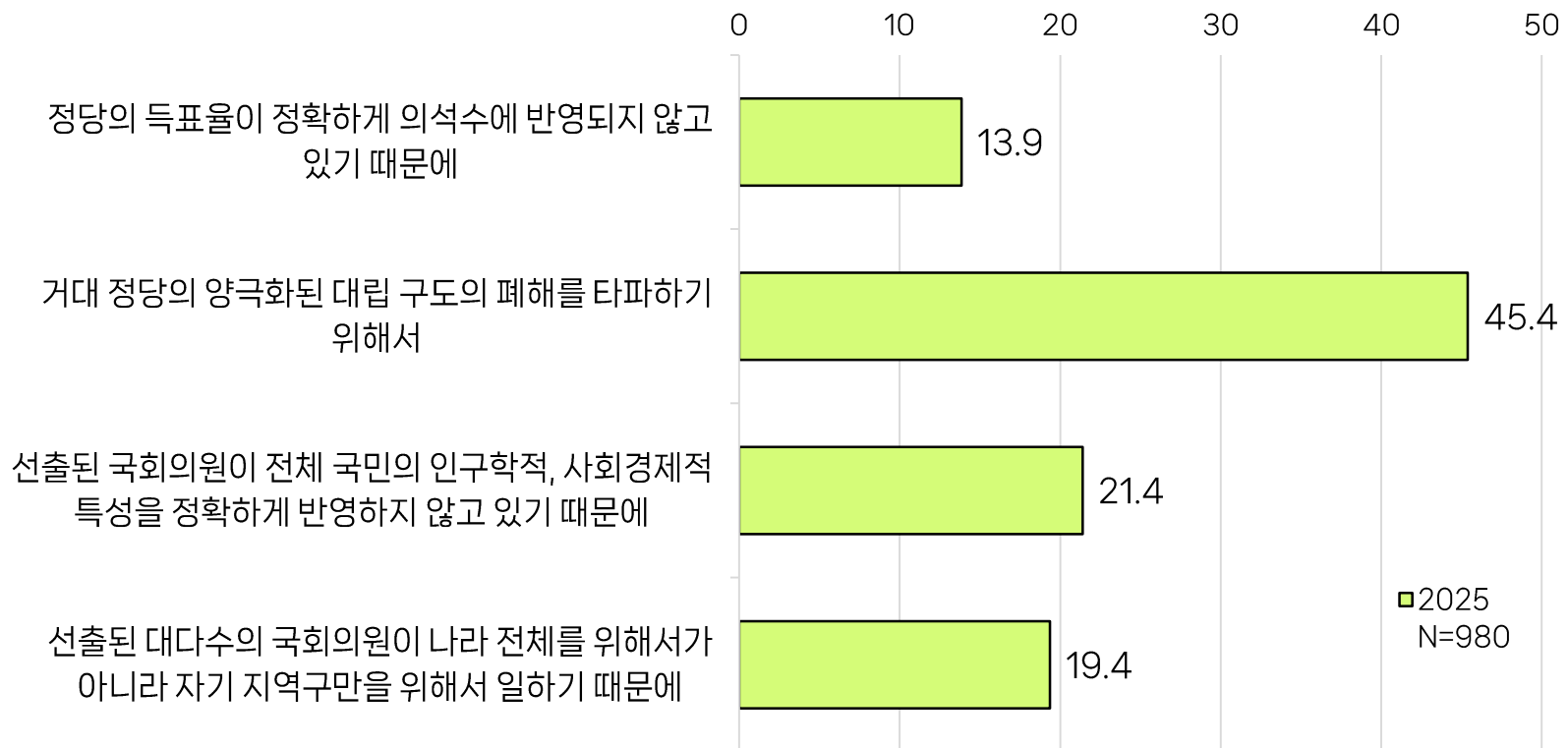
(%)



A	B	C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는 없다	모르겠다

[표 44]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39-1. [문39의 “바꿀 필요가 있다” 응답자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



외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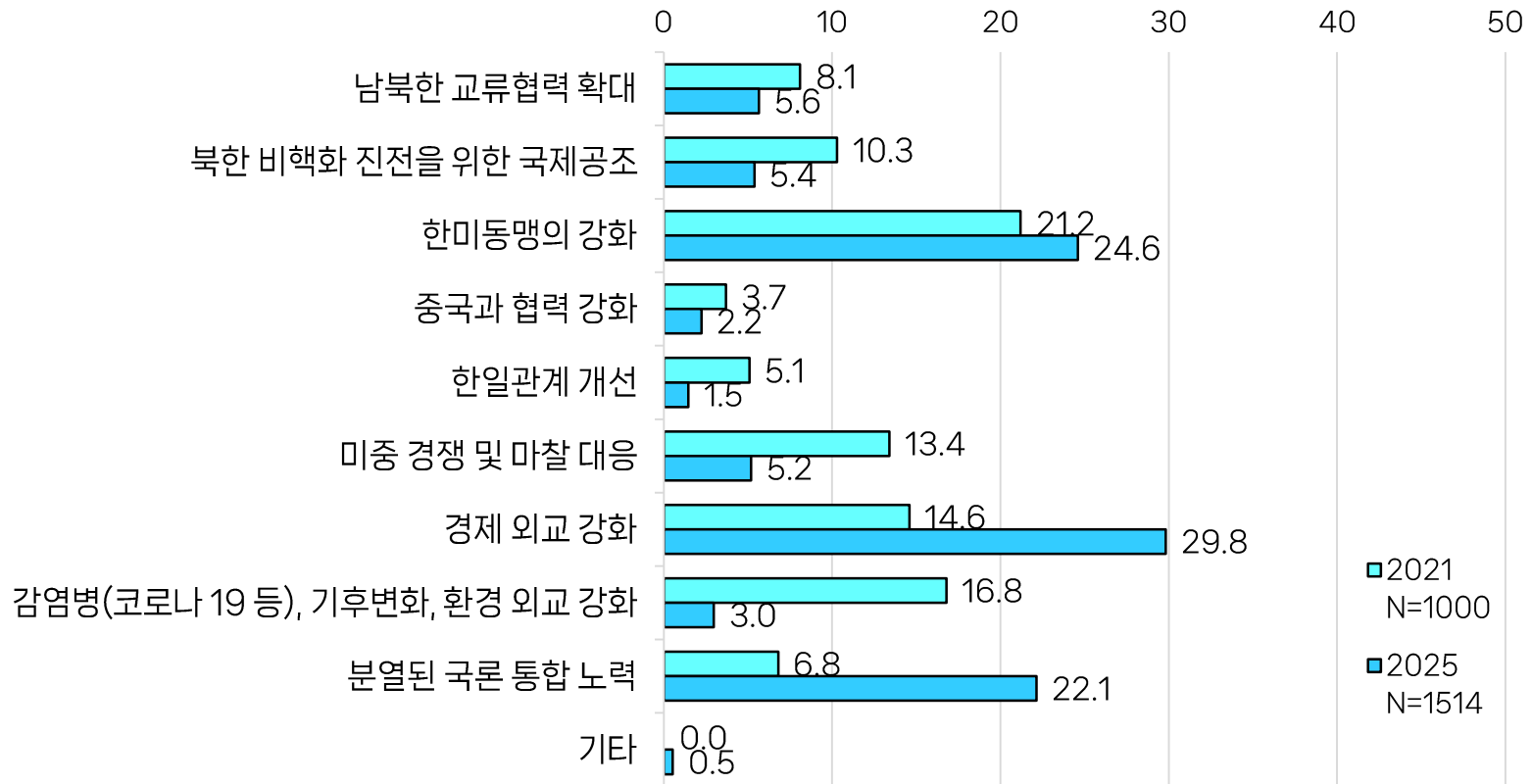
“분열된 국론 통합 4년 새 15.3%p 증가… 외교 정책 기조 변화 반영”

- 정부의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경제외교 강화(29.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미동맹 강화(24.6%)”,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22.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 “한미동맹 강화(21.2%)”, “경제외교 강화(14.6%)”, “미중 경쟁 대응(13.4%)” 순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며, 특히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4년 새 15.3%p 증가했다.
- 주요국 외교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는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진보 성향 응답자의 44.6%는 “남북 교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는 41.5%가 “안보 태세 강화”라고 선택했다. 보수 응답자 중 “남북 교류 확대”를 꼽은 비율은 15.7%에 그쳤다.
- 대미 외교에서도 성향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보수 50.4%가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인 “경제 및 첨단기술 협력(20.6%)”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대미 수평적 관계 구축(32.6%)”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한미 동맹 강화(26.6%)”가 그 뒤를 이었다.
- 대중 외교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세 그룹 모두 “경제교류 확대 및 첨단 기술 협력”, “미세먼지, 환경, 기후변화, 감염병 등 협력”, “경제제재 대응”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 대일 외교에서는 2021년까지만 해도 “역사문제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보다 높았으나, 2025년 조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역전되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과반(56.2%)이 “역사 문제 현안 해결”을 지목했고,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을 선택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55.5%는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을 선택했고, “역사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은 비율은 2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5]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 [1순위]

문40.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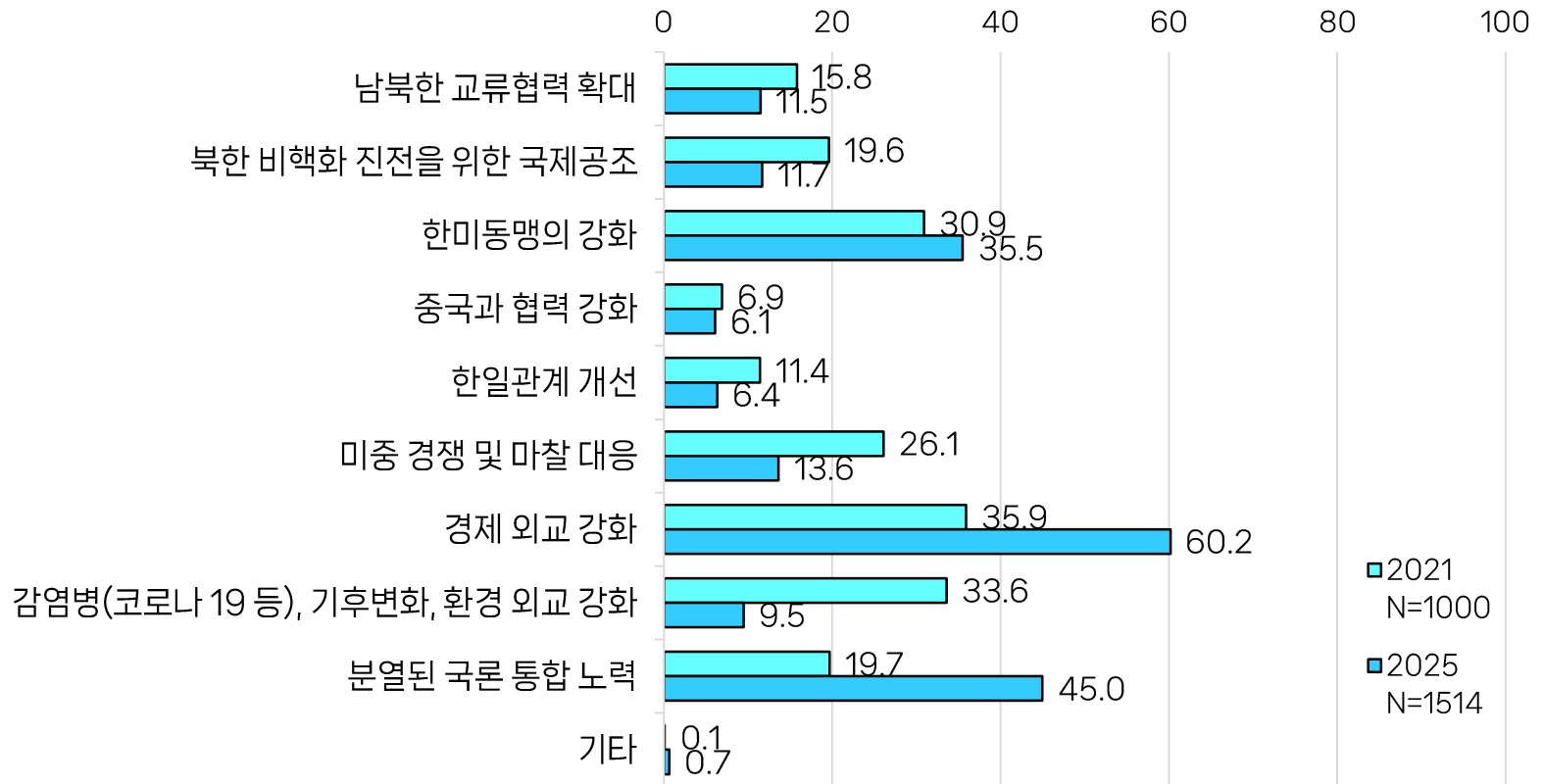
(%)



[표 46]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 [2순위까지]

문40.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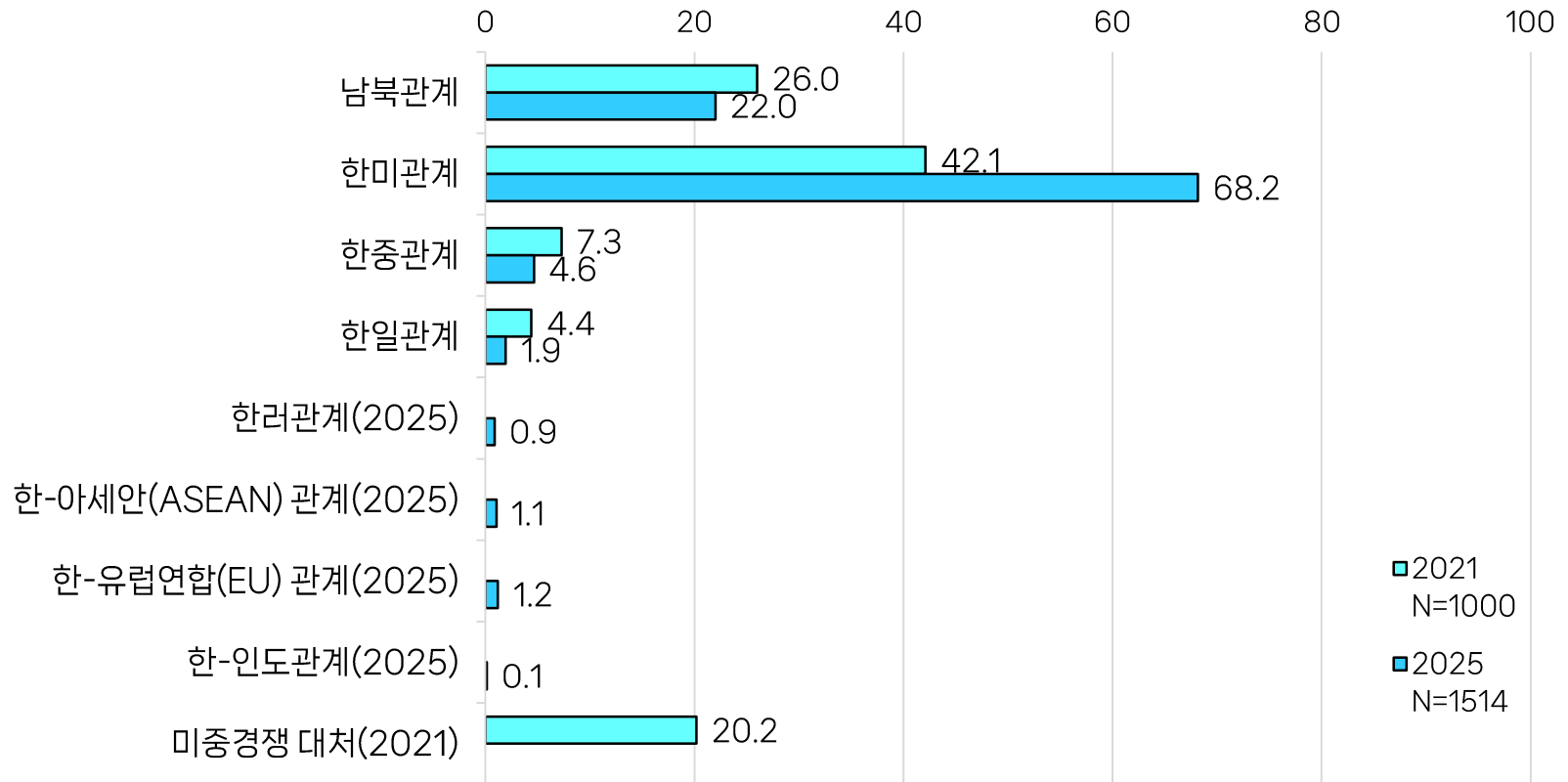
(%)



[표 47]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 [1순위]

문41.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는 무엇입니까?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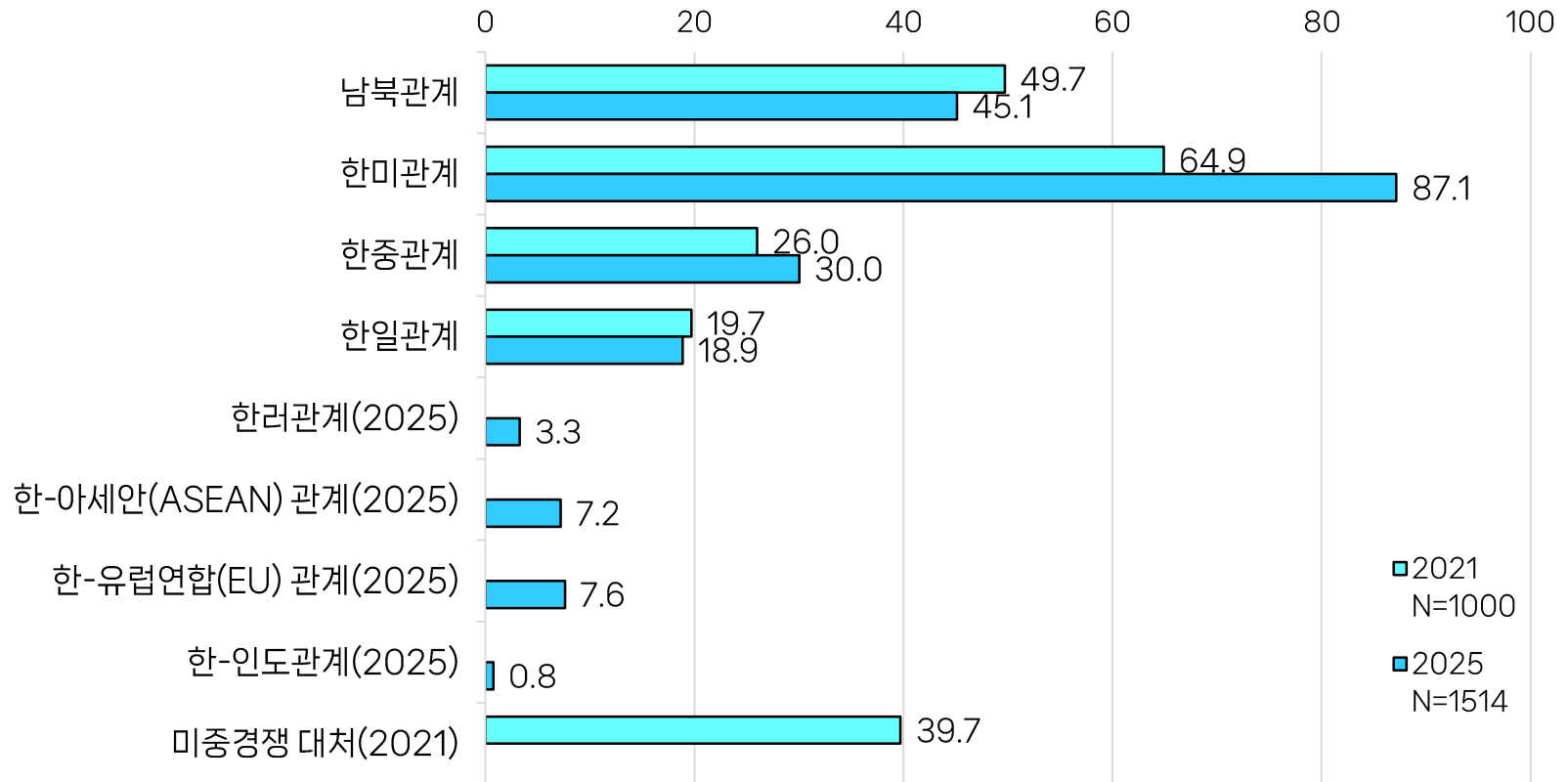
(%)



[표 48]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 [2순위까지]

문41.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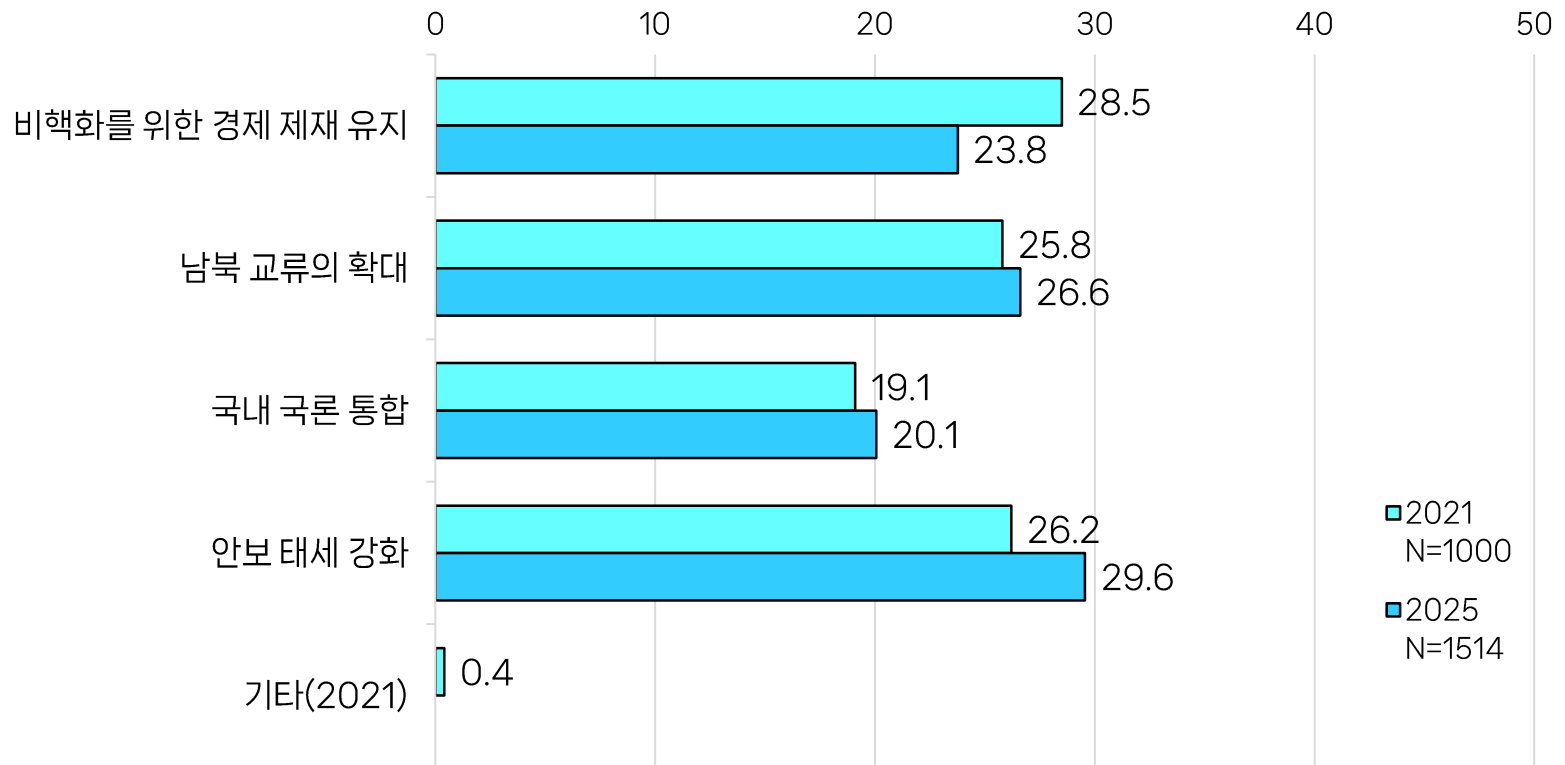
(%)



[표 49]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문42.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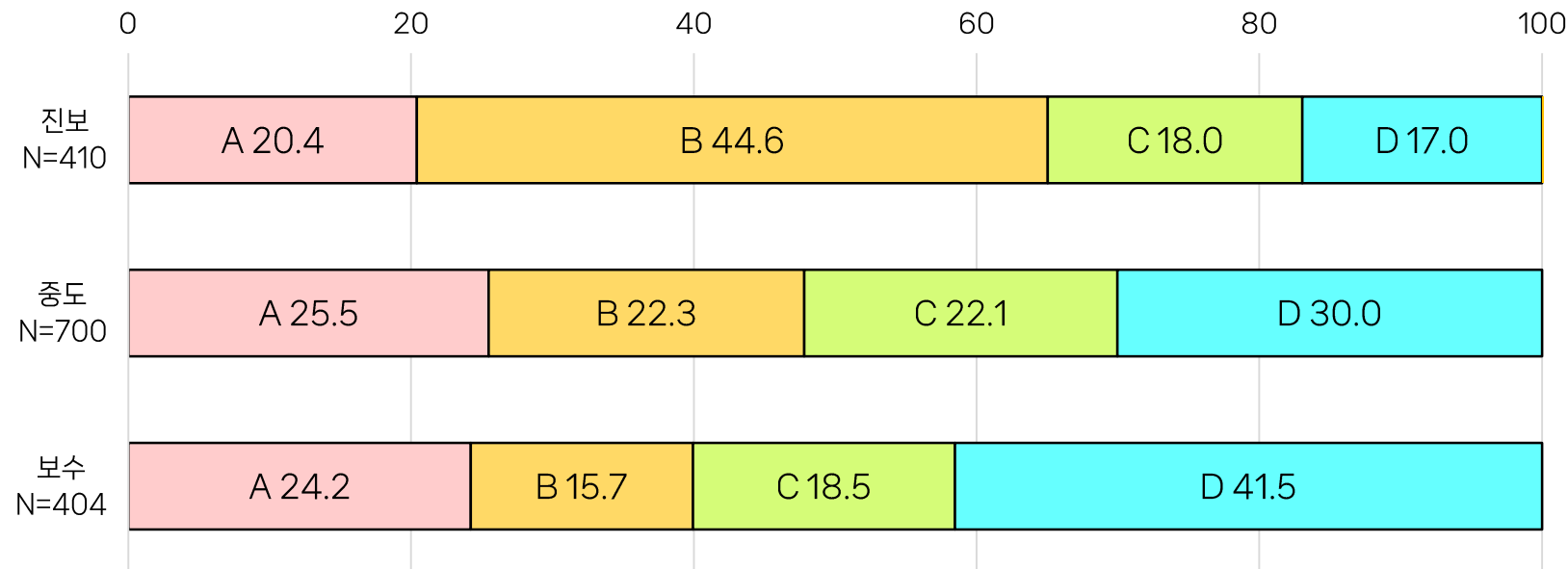
(%)



[표 50]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이념성향별]

문42.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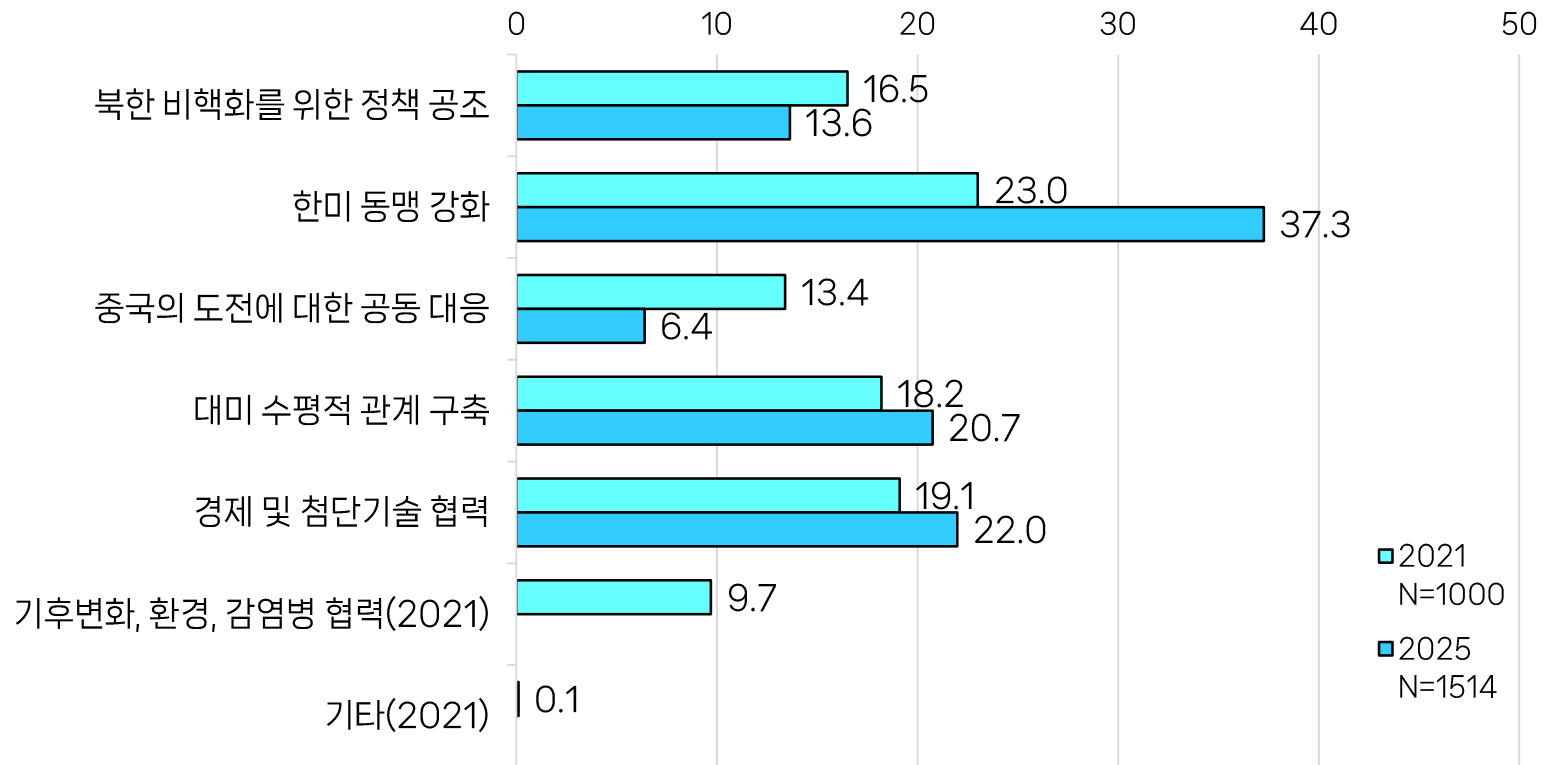


A	B	C	D
비핵화를 위한 경제 제재 유지 및 강화	남북 교류의 확대	국내 국론 통합	안보 태세 강화

[표 51] 대미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문43.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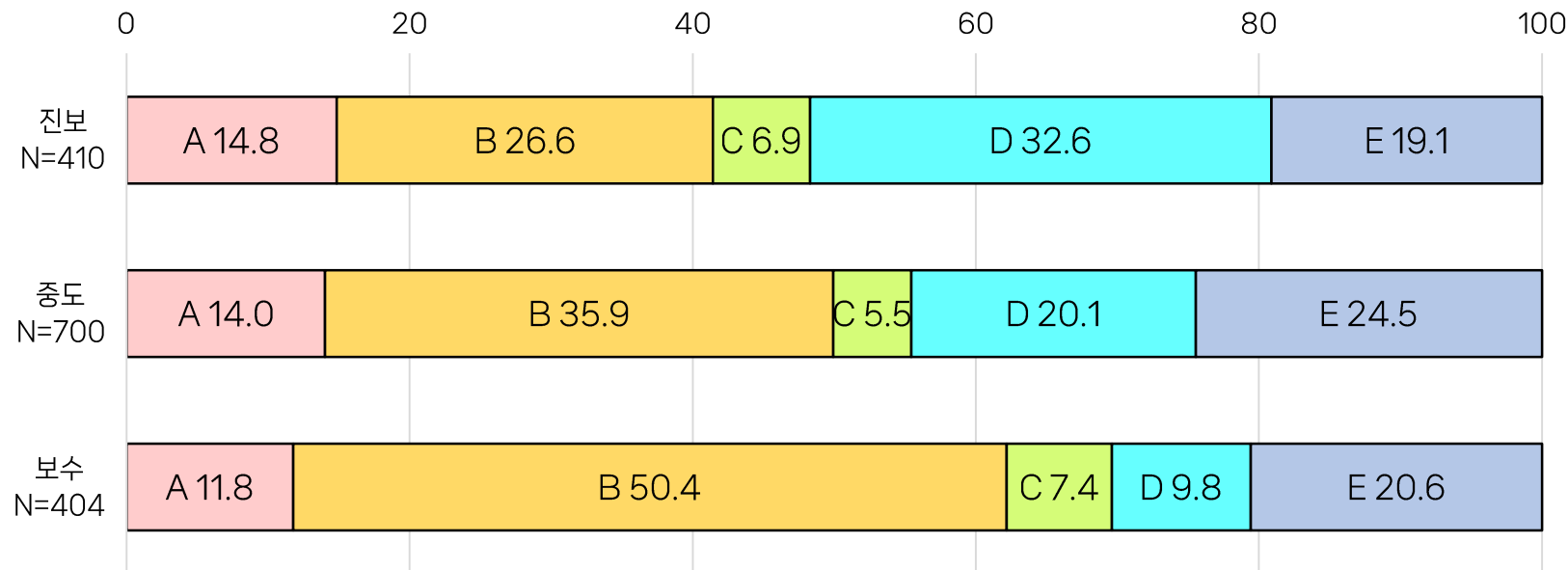
(%)



[표 52] 대미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이념성향별]

문43.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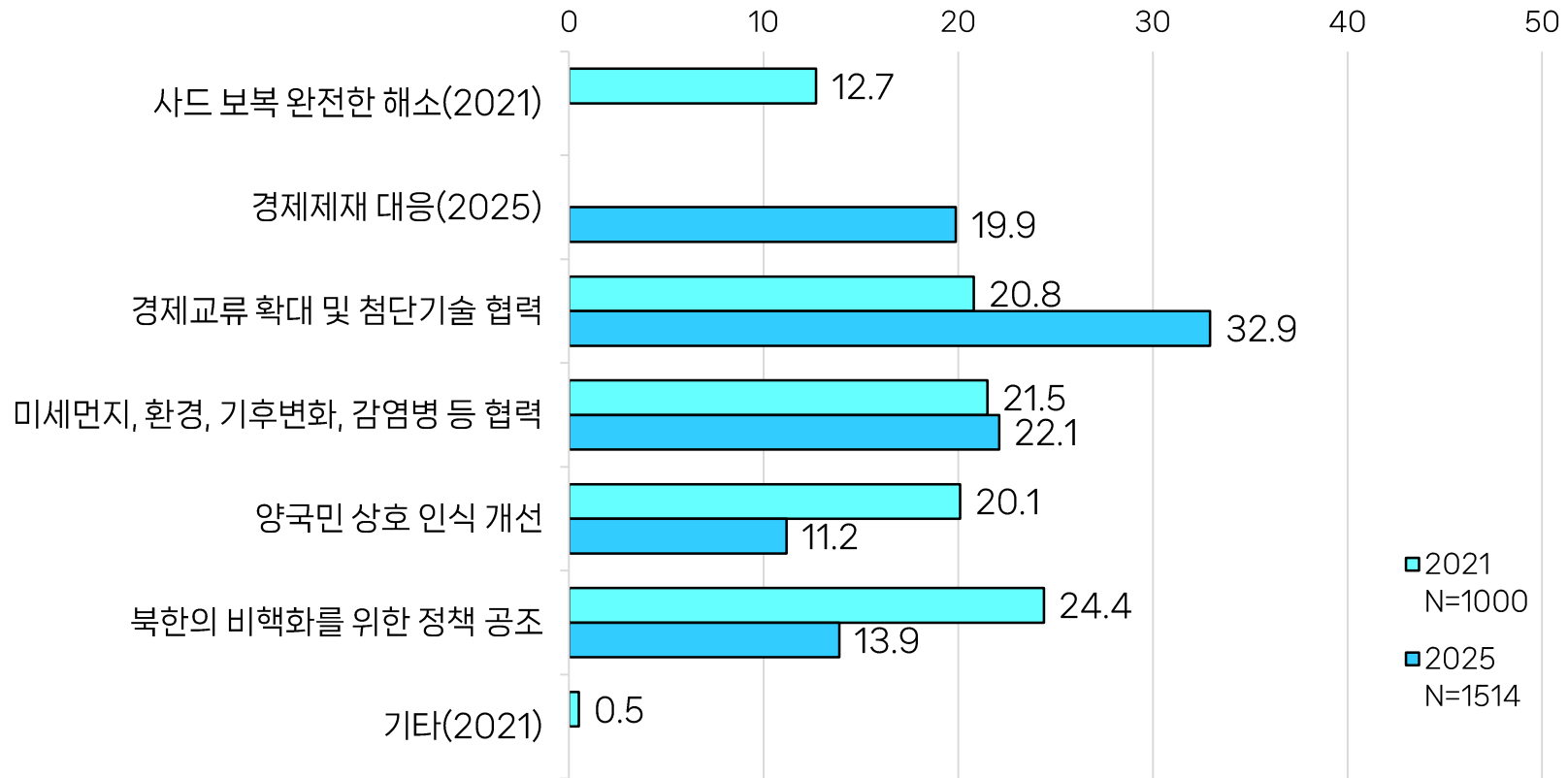


A	B	C	D	E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	한미 동맹 강화	중국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대미 수평적 관계 구축	경제 및 첨단기술 협력

[표 53]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문44.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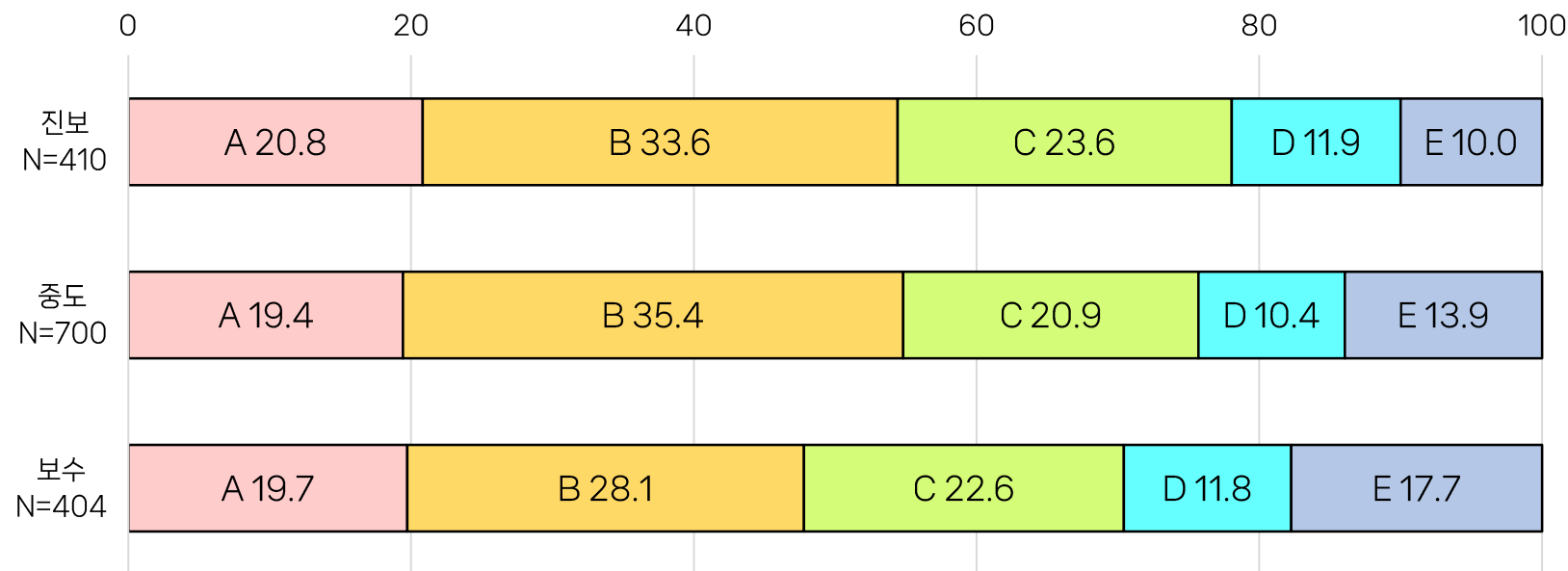
(%)



[표 54]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이념성향별]

문44.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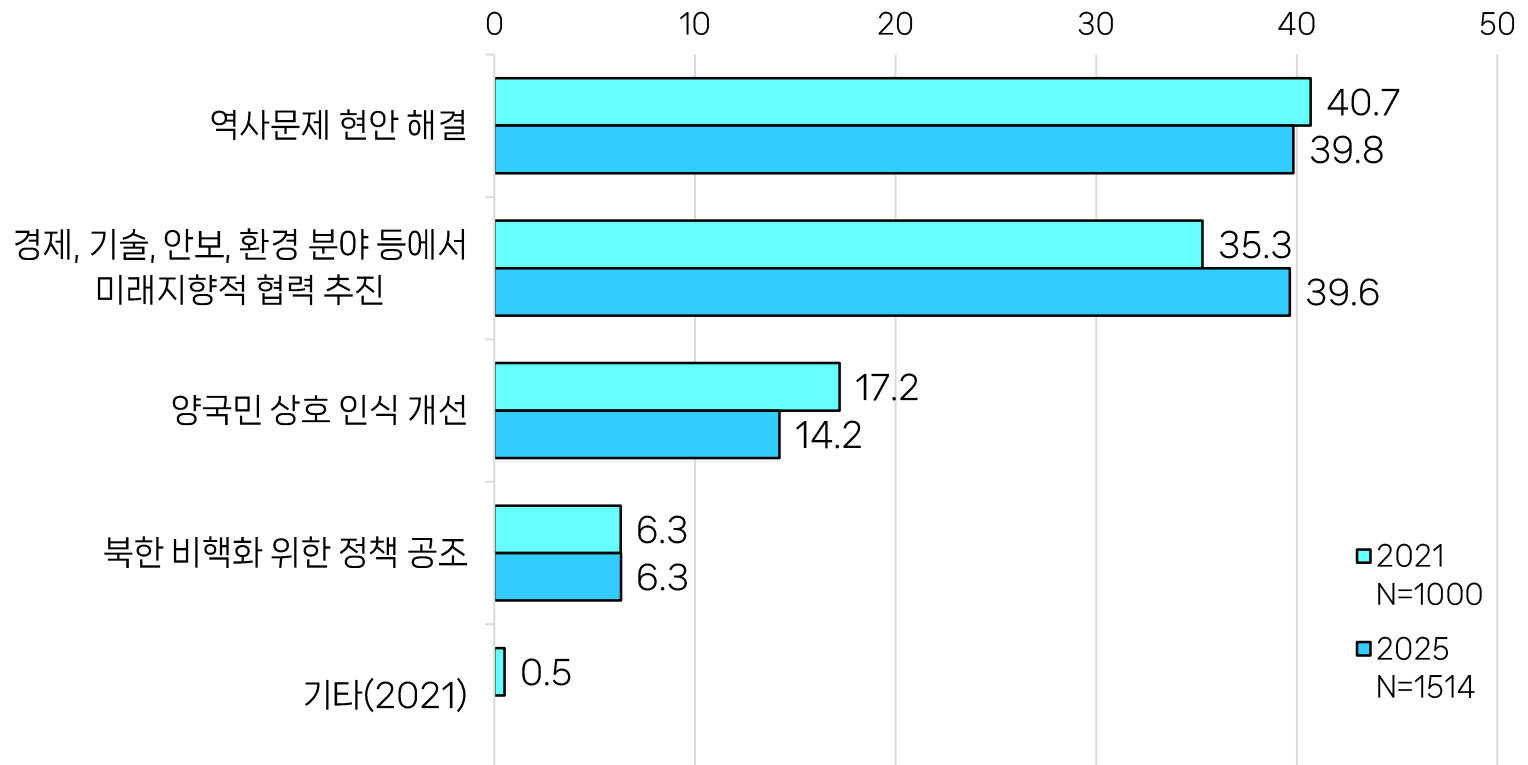


A	B	C	D	E
경제제재 대응	경제교류 확대 및 첨단기술 협력	미세먼지, 환경, 기후변화, 감염병 등 협력	양국민 상호 인식 개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

[표 55]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문45. 정부의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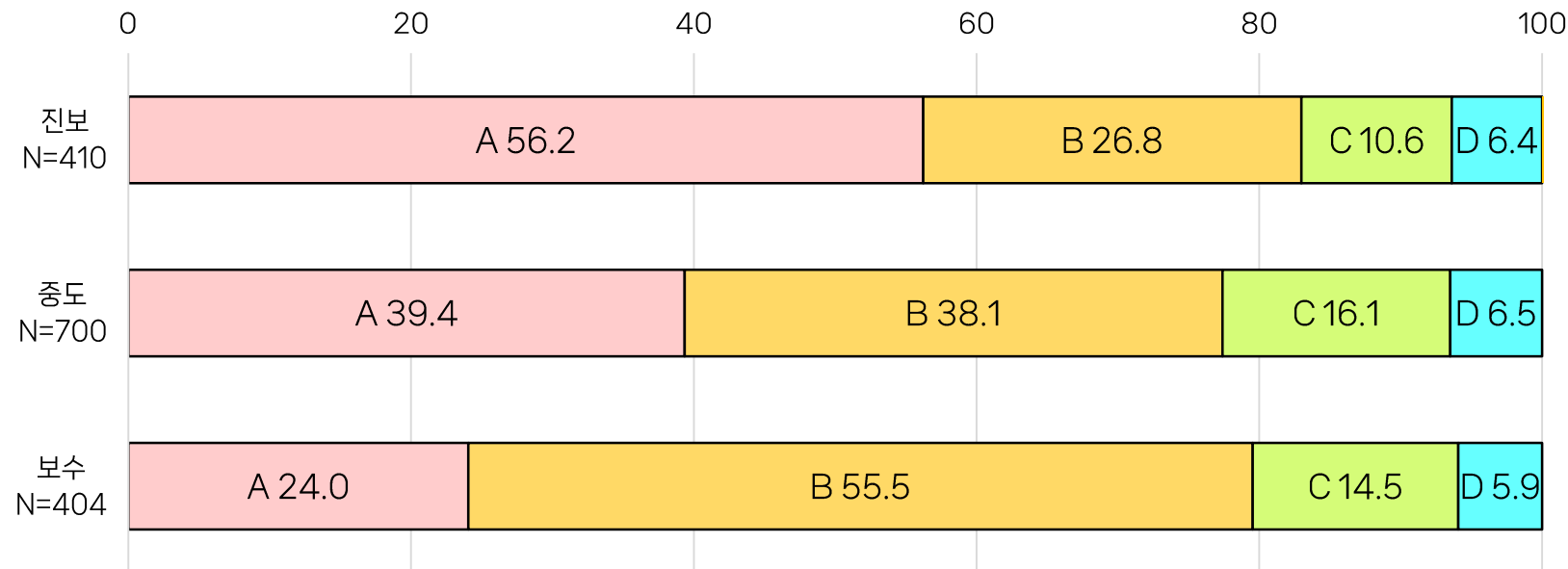
(%)



[표 56]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이념성향별]

문45. 정부의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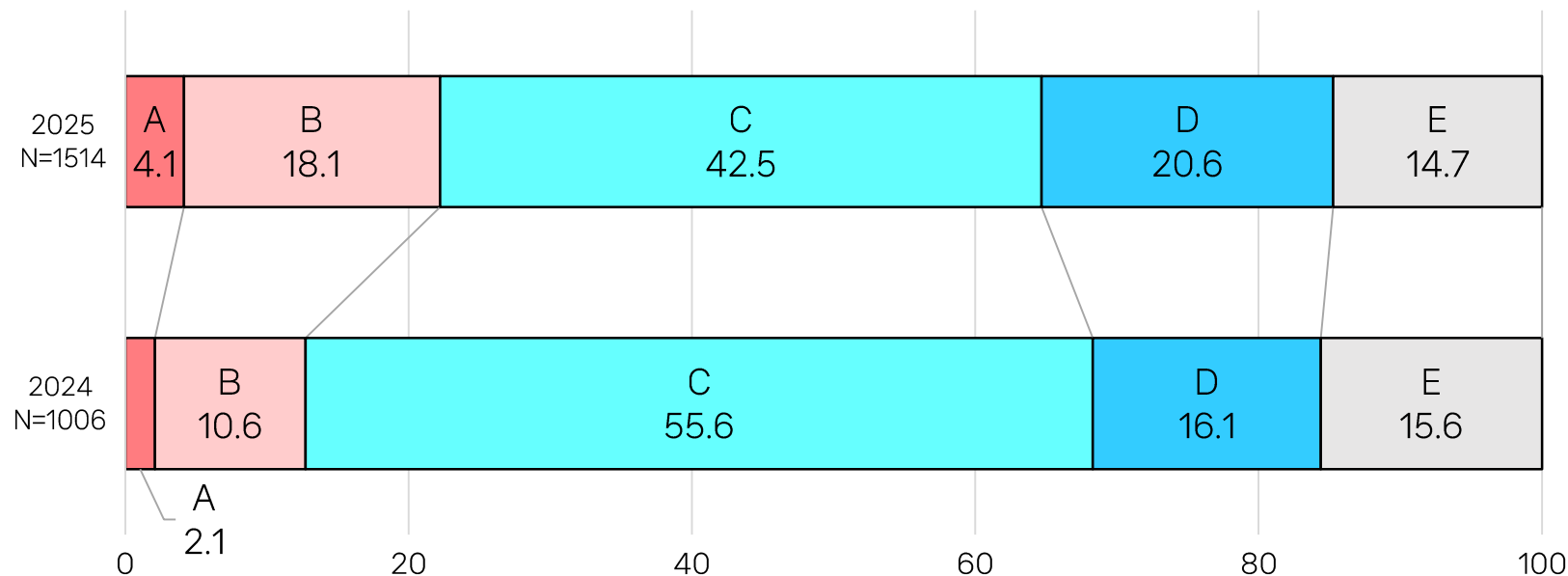
A	B	C	D
역사문제 현안 해결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양국민 상호 인식 개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

[표 57] 미국에 대한 인상

문46. 귀하께서는 미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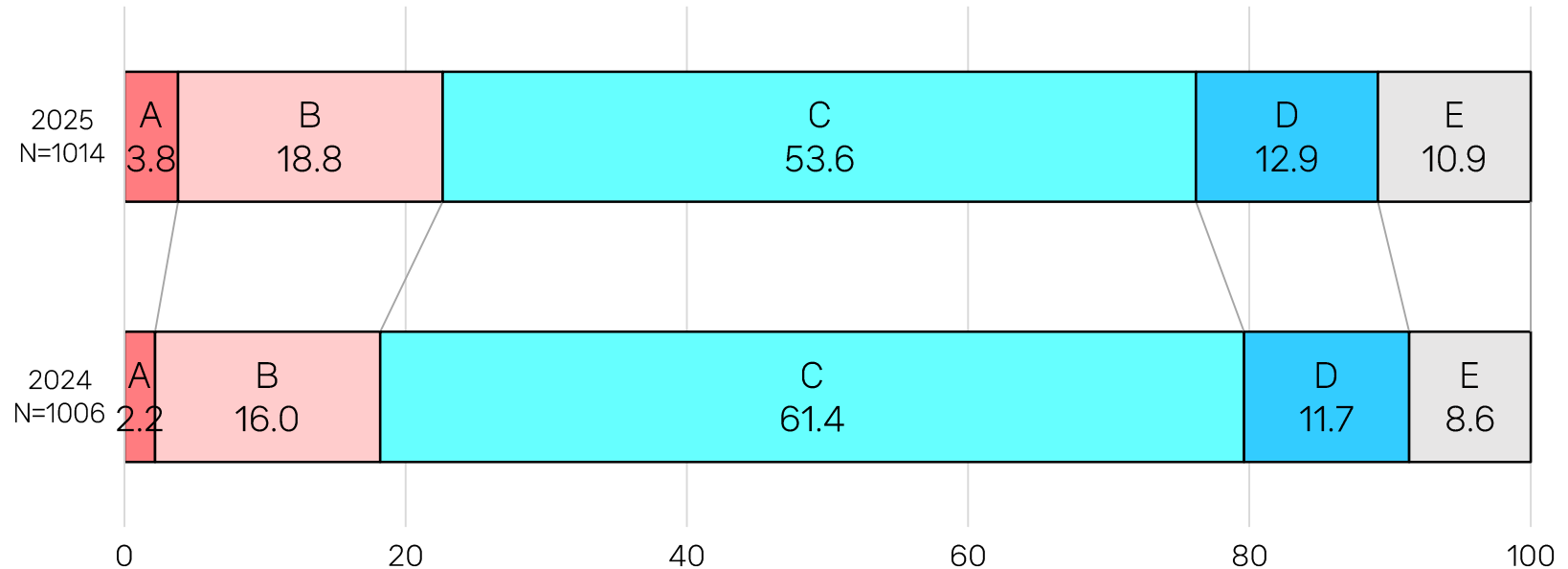
A	B	C	D	E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58] 미국 신뢰 여부

문47. 귀하께서는 미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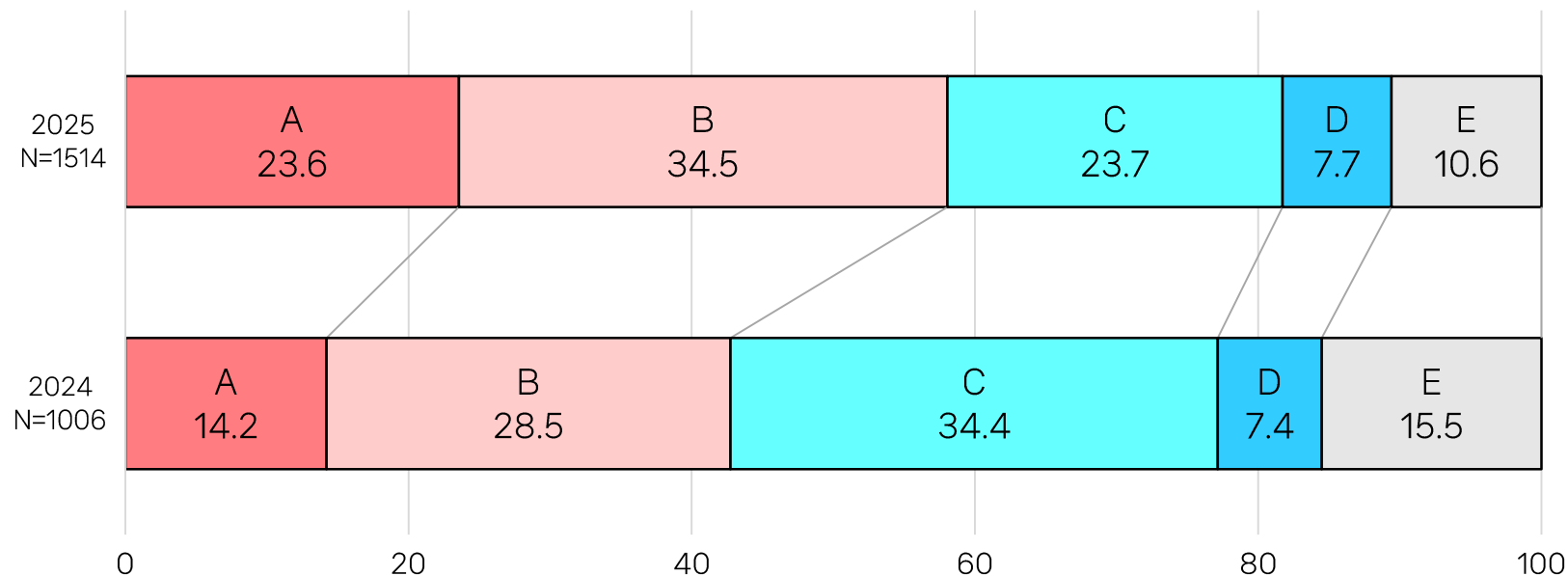
A	B	C	D	E
전혀 신뢰할 만하지 않다	대체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59] 일본에 대한 인상

문48. 귀하께서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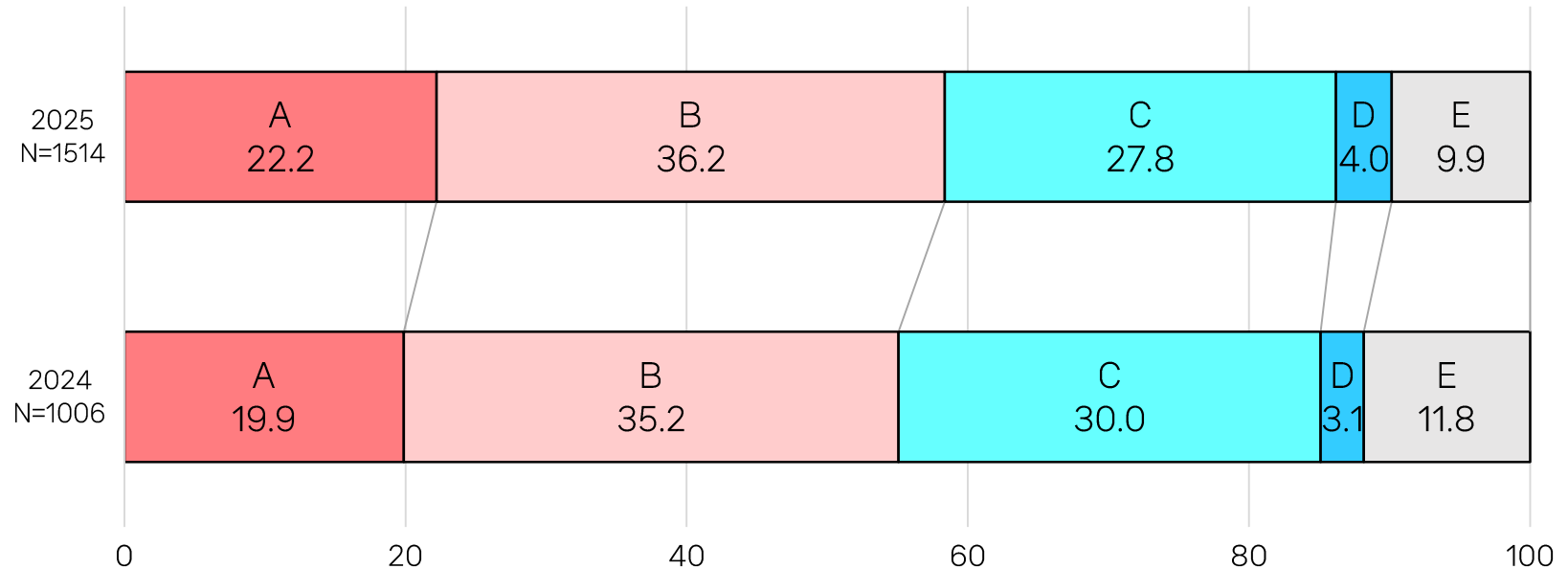
A	B	C	D	E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60] 일본 신뢰 여부

문49. 귀하께서는 일본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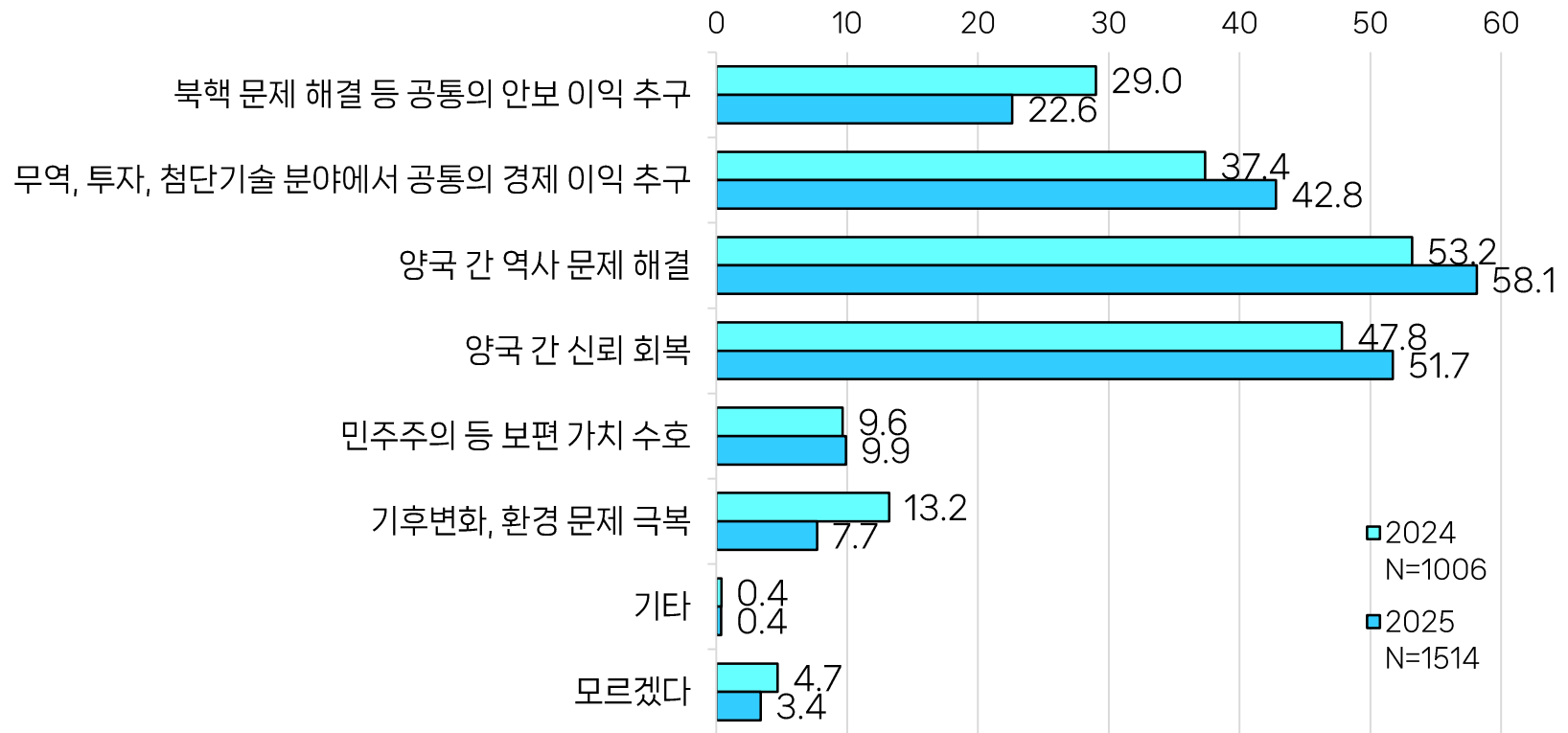
A	B	C	D	E
전혀 신뢰할 만하지 않다	대체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61] 한일관계의 목표

문50. 귀하께서는 한일관계가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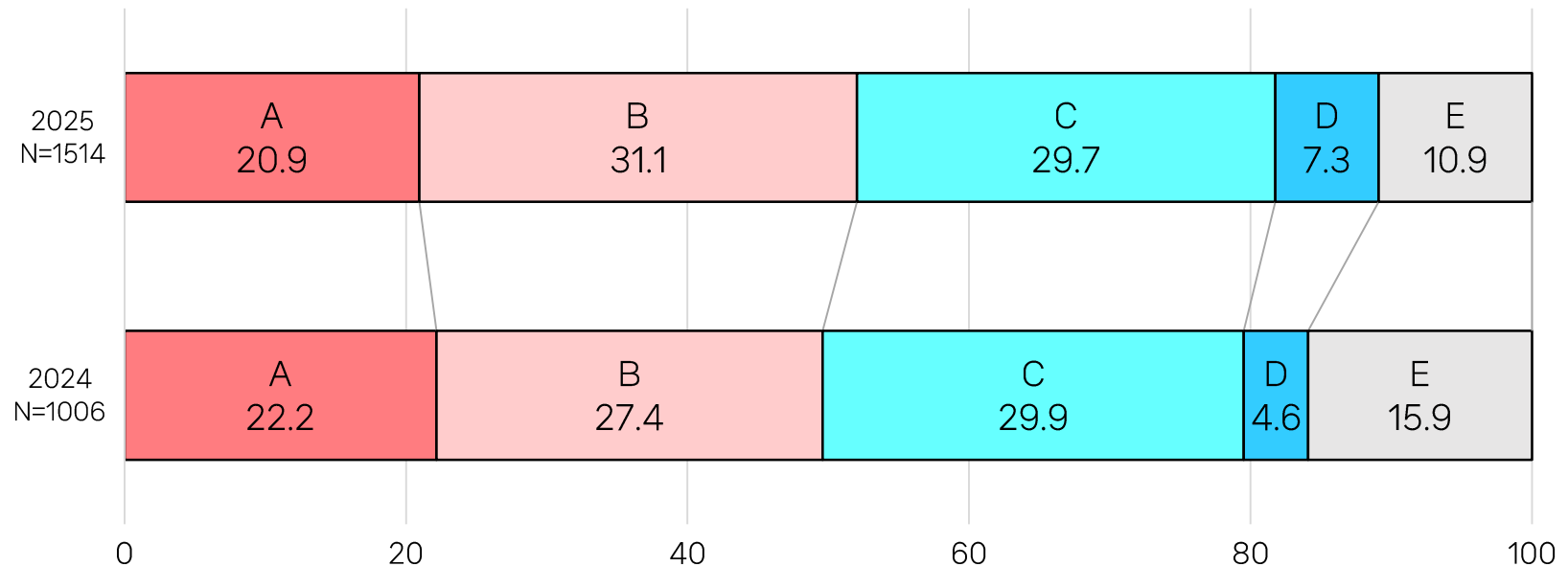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표 62]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태도

문51. 귀하께서는 현재의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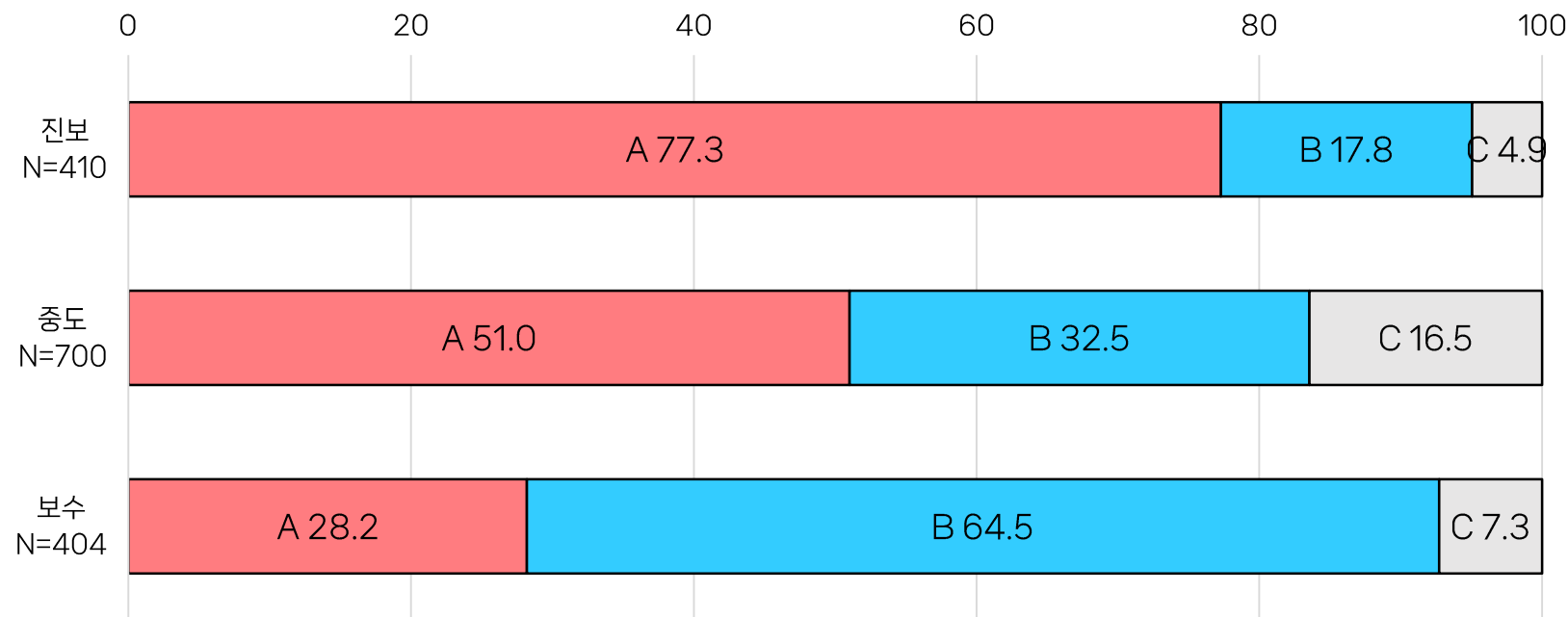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	B	C	D	E
매우 나쁘게 평가한다	대체로 나쁘게 평가한다	대체로 좋게 평가한다	매우 좋게 평가한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63]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태도 [이념성향별]

문51. 귀하는 현재의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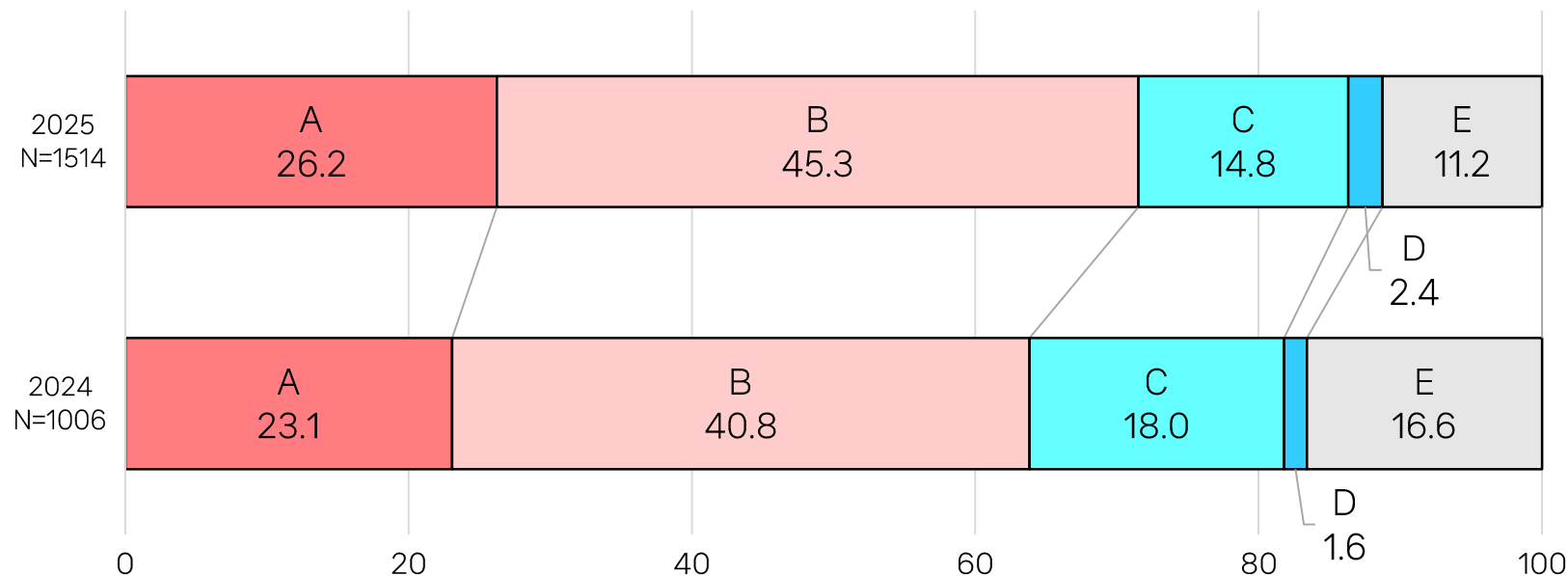
A	B	C
나쁘게 평가한다	좋게 평가한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64] 중국에 대한 인상

문52. 귀하께서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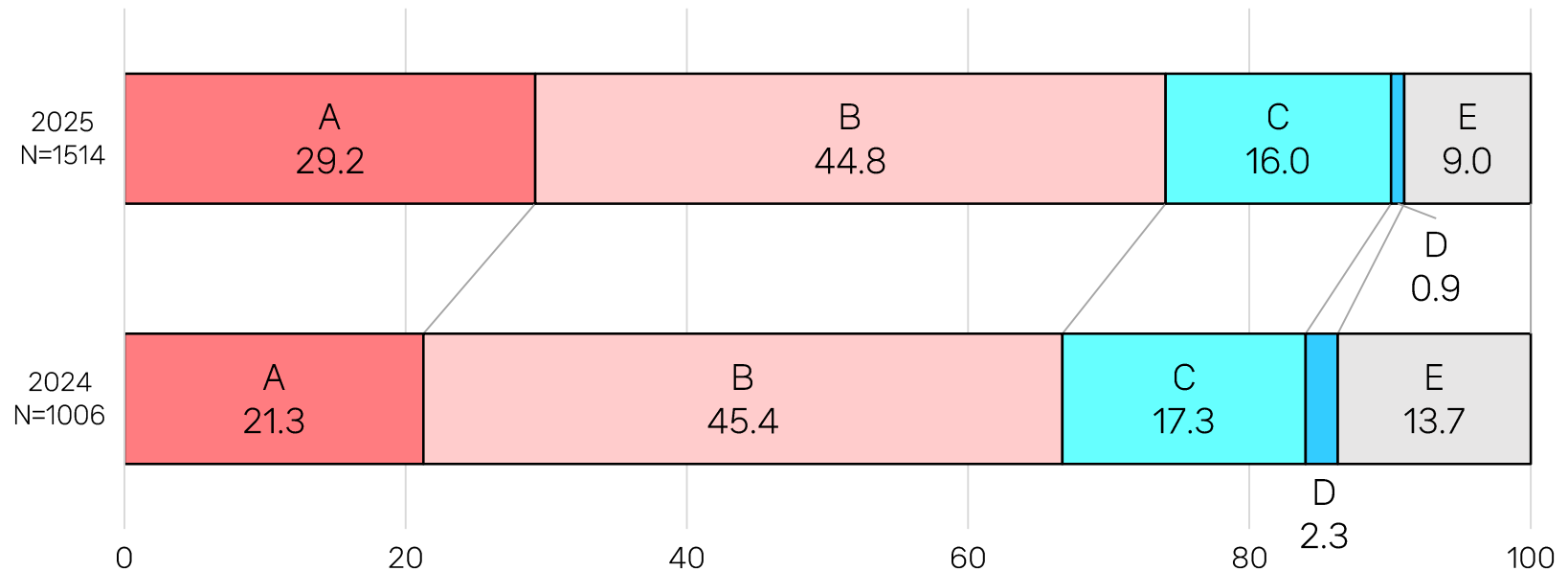
A	B	C	D	E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65] 중국 신뢰 여부

문53. 귀하께서는 중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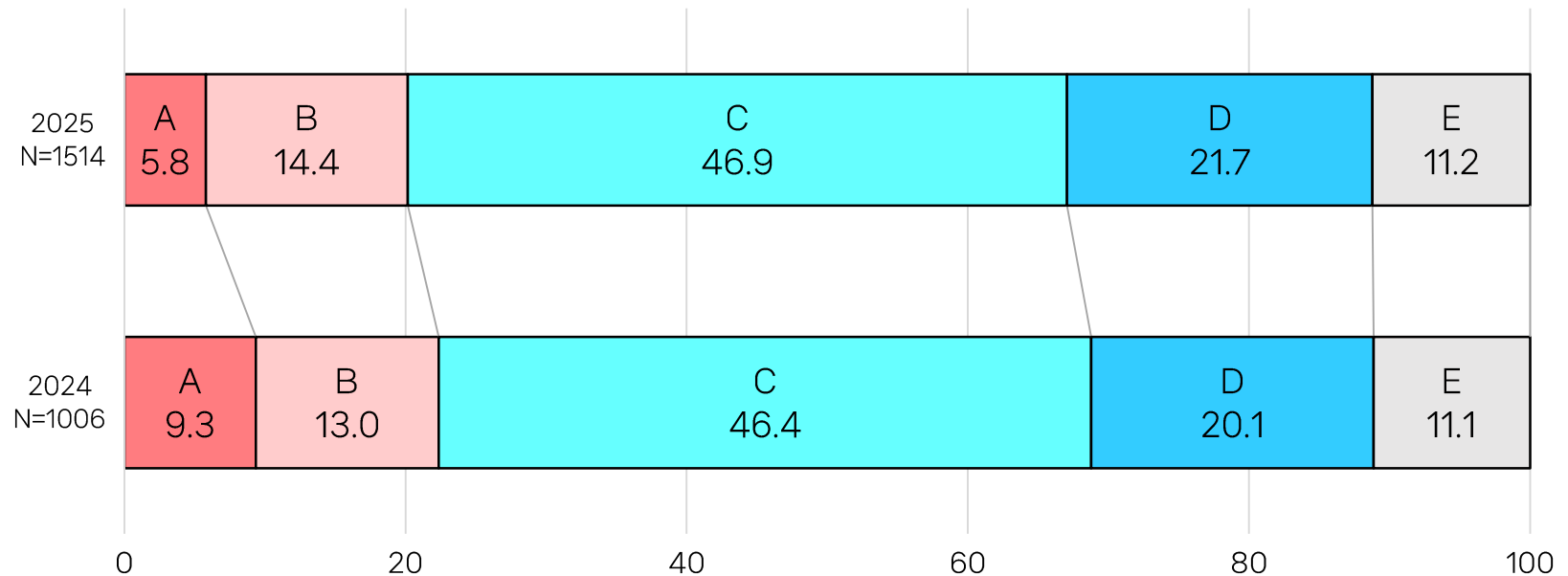
A	B	C	D	E
전혀 신뢰할 만하지 않다	대체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66]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문54. 귀하께서는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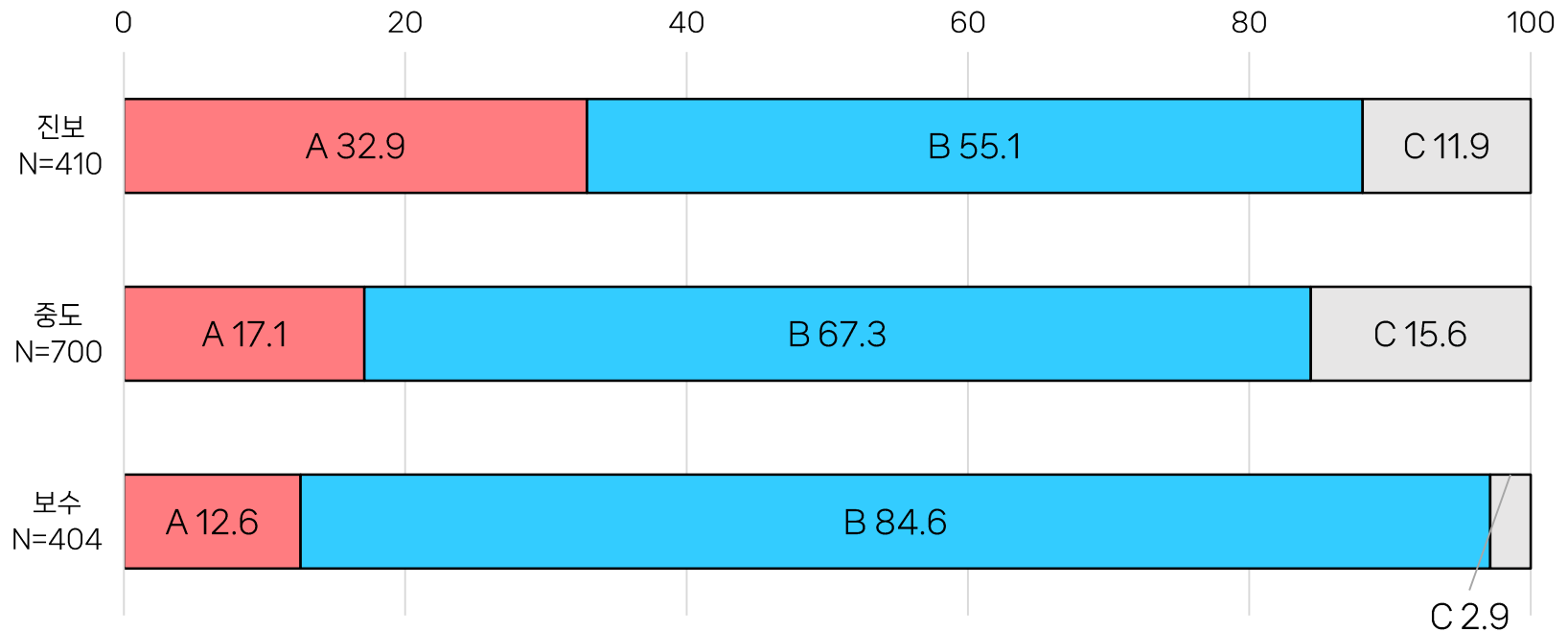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	B	C	D	E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67]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이념성향별]

문54. 귀하는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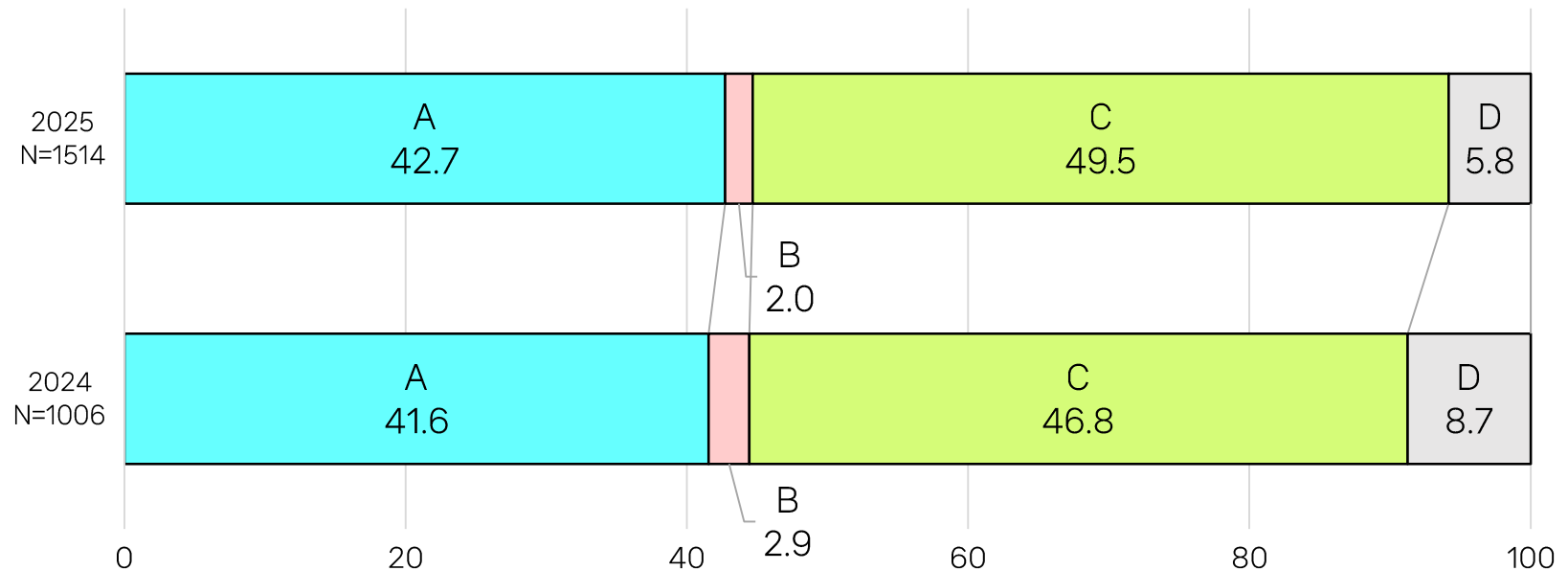


A	B	C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68] 미중 갈등 시 한국의 태도

문55. 미국과 중국 사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2024 동아시아 인식조사'와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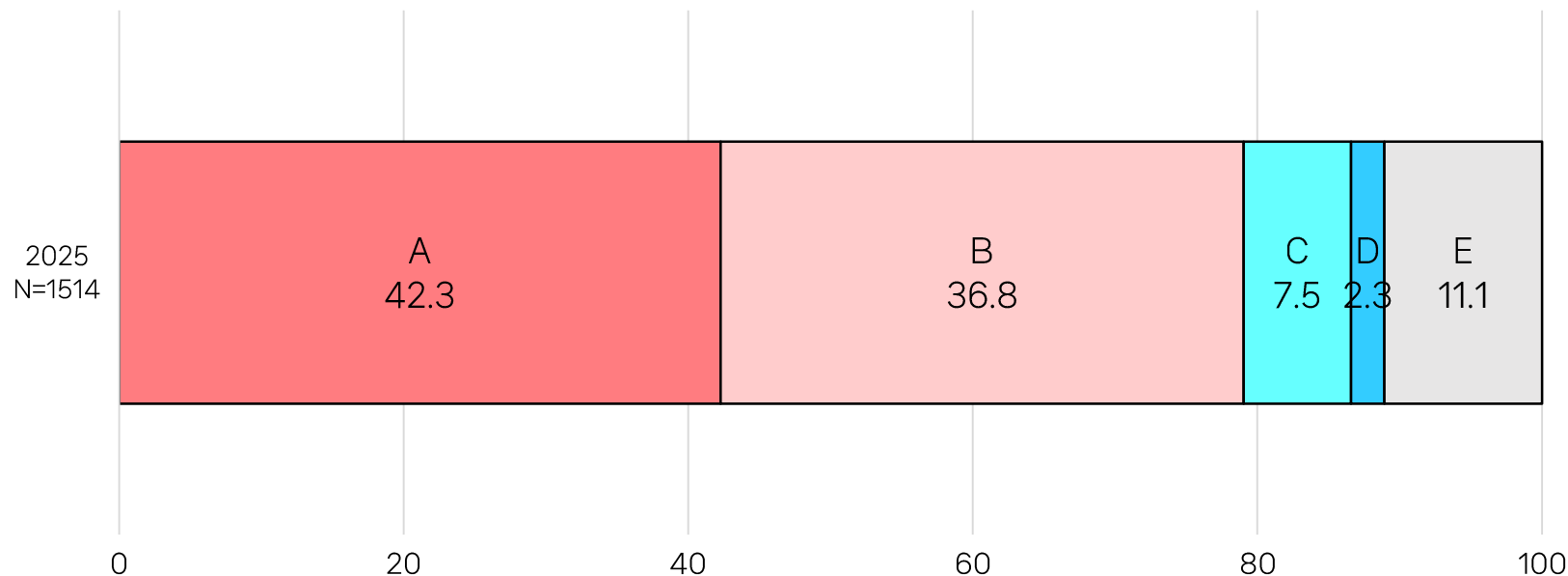


A	B	C	D
미국을 지지	중국을 지지	중립	모르겠다

[표 69] 북한에 대한 인상

문56. 귀하께서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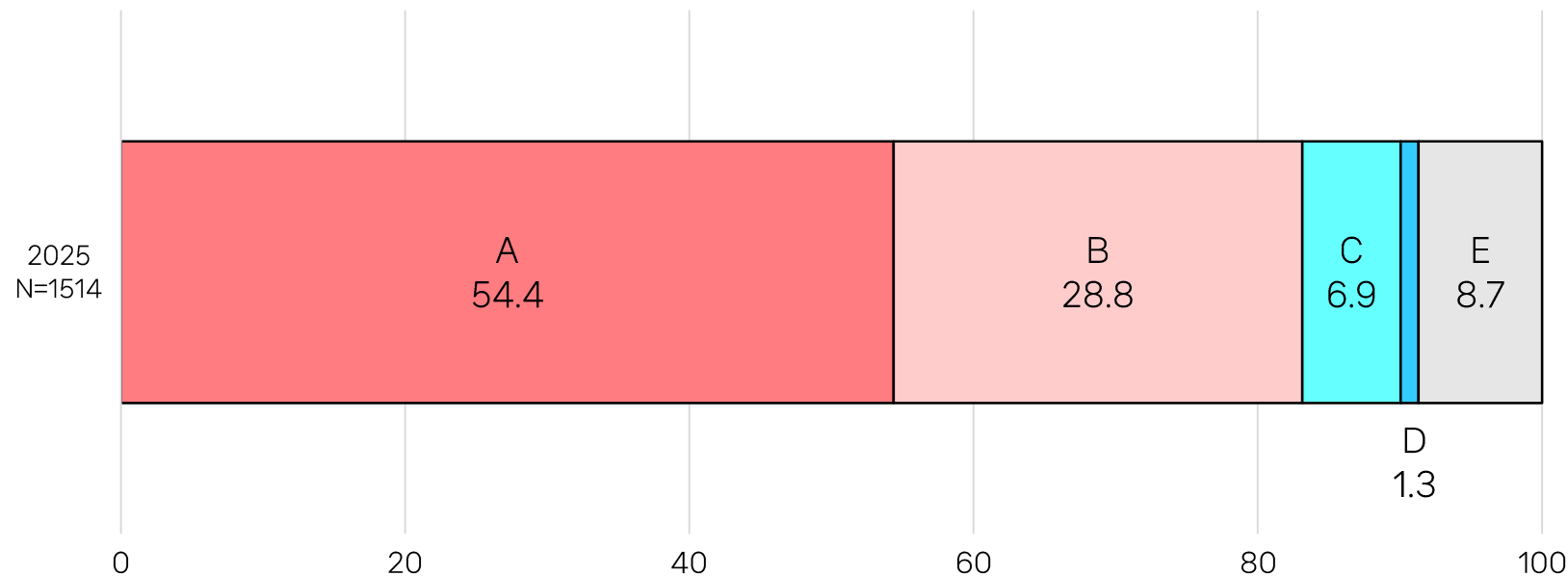


A	B	C	D	E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표 70] 북한 신뢰 여부

문57. 귀하께서는 북한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



A	B	C	D	E
전혀 신뢰할 만하지 않다	대체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	어느 쪽도 아니다